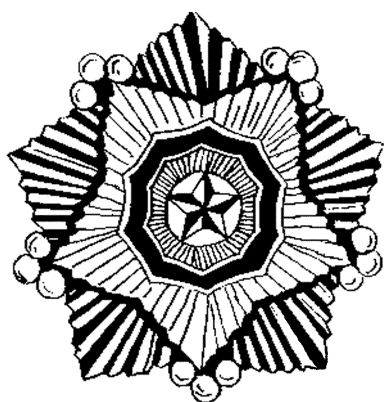


7

주체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7호

(루계 제813호)

차례

끝없이 흐르는 수령님세월(시)	김 정 경(3)
수령님은 병사들과 함께 영원히(시)	황 명 성(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우리 수령님과 강선	송 재 하(5)
단편소설 치마저고리	박 성 호(6)
주체문학의 대강	(15)
우리 수령님의 정원(서사시)	최 순 철(16)
금수산태양궁전이 가까운 푸른 벌에서	변 홍 영(23)
○ 우리의 전승광장	문 동 식(24)
시 천하제일명산 백두산아 외 1편	오 정 로(24)
○ 환호성	남 경 환(25)
전쟁이야기(담시초)	김 광 호(44)
초소의 아들에게	전 재 훈(38)
위대한 년대를 빛내인 조국수호의 노래(평론)	김 려 숙(39)
전사들—아버지들(수필)	조 인 영(47)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 공동구호에서 —



나의 분대장 김 리 돈(27)

그 품을 알기까지 박 성 진(51)

351고지에서 부르는 노래(시초) 문선건, 심재훈(49)

전 기(시) 리 연 희(48)

들의 서정(시뭉침) 리 은 향(65)

◇ 평 론 ◇

《감상문》을 본 감상 최 진 혁(67)

매조로 특색있는 구성미(단평) 서 경 진(70)

리덕천 이야기(야담) 최 흥 록(72)

상 식 (66)



끝없이 흐르는 수령님 세월

김 정 경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세월이
벌써 두번도 더 이 땅에 흘렀구나
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며 울던
7월 8일 그날로부터

많이도 변했어라
내 사는 도시 강계의 거리는
불빛 고운 강반을 꽃마당처럼 펼쳐
보다 아름답고 젊어진 모습으로
푸르른 하늘가에 더 높이 솟아올랐고
내 조국 또한 핵보유국 우주강국의 위용속에
온 세상우에 우뚝 솟고...

허나 이 모든 변혁을 가져온
우리 수령님의 정책
인민을 하늘높이 떠받들어올린
위대한 사랑의 시책은
그 어느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오늘도 력력히 이어지고있거니

나를 불러 정답던 학교의 종소리는
오늘도 나의 막내딸 교문으로 부르고
나의 아이적 예방주사 놓아주던
산골마을의 엄하던 의사선생 그대로
꽃같은 간호원처녀들이 그 길을 이어걸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수령님 잠 못드시고 밝히시던
당중앙위원회의 그 불빛은
오늘도 인민위해 꺼질줄 모르고
인민생활 돌보시려
수령님 나서시던 그 새벽문은
오늘도 그렇게 첫새벽에 열리고

내 조국의 드넓은 대지를
다 밟으시던 수령님의 자욱우에
오늘도 덧놓이는 사랑의 자욱
산골마을 마지막집 생활까지 보살피시던
다심한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지막집의 잔적경까지 헤아려주시는
어머니 우리 당의 세심한 마음

세월이 흐르면 모든게 변한다지만
그 어찌 달라질수 있으랴
인민을 위해
수령님 내놓으신 사랑의 시책들과
인민위해 헌신하시던 수령님의 활동방식은
세상에 다시없는 최상의 경지이거니

하기에 우리 장군님
인민을 찾아 한평생
수령님처럼 걸으시였고
오늘은 우리 원수님
이 나라 천만군민을 그렇게 돌보시며
수령님식대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찬란한 미래으로 이끌어가시거니

그 위대한 사랑의 세월속에
나의 가정도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세월속에 나의 조국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눈부신 변혁의 역사를 안아왔거니

정녕 이 땅에선 영원히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인민을 위한
수령님의 빛나는 세월이...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견해와 결심이 서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3.1운동 당시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는 북부국경일대와 남만지방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 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깊이 살펴보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침략자들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립군의 싸움만으로 나라를 찾을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왜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였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족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로씨야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원수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도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무산혁명방침이었다.》

수령님은 병사들과 함께 영원히

황 명 성

한평생

수령님 인민위해 바친 한평생
그 은정 못 잊어 누구나 이야기할 때면
병사들도 감회에 젖어 추억하더라

한평생

병사들을 제일 사랑하신분
병사들을 제일 아껴주신분
그이는 어버이수령님

그리워 못내 그리워

승엄히 우러르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태양처럼 환하신 그 미소
자애로운 봄빛이런가

그 봄빛에 어려와라

우리 병사들을 위함이라면
천만가지 나라의 중대사도 다 미루시고
눈내리는 새벽에도 비오는 저녁에도
초소를 찾아 떠나신 사랑의 자욱

그 어디나

머나먼 외진 산중초소에
삭도를 놓아주시려고
오르며 내리신 험한 산발은

그 어디나

물에서 아득히 떨어진 섬방어대
파도가 높아 못 간다면
함선으로 장벽을 쌓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수령님 떠나신 푸른 동해의 배길은...

오시면 초소에 오시면

병사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다정히 귀속말로 들어주신분
병사의 장알진 주먹도 풀어보시며
기다리는 고향집에 영웅이 되어 가라고
일당백의 샘솟는 용맹도 안겨주신분

땀방울이 찢물쿠는 무더운 여름에

병사들의 겨울철 솜신을 몸소 신으시고
산길도 들길도 다 걸어보시고서야
합격이라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그 미소

그 미소 봄빛으로 안으시고

생의 마지막해
봄날도 화창한 봄명절에
초소에 오시여 초소에 오시여
해종일 병사들과 함께 계신 수령님

무한대한 사랑의 하늘이었다

이 세상을 다 주는 믿음의 세계였다
어버이수령님 태양의 그 품에서
이 땅의 천만병사 백두의 뉘를 안고
무적필승의 총대숲을 이루었나니

오, 백두의 위업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강군 선군의 대오
수령님은 병사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며
최후승리의 축복을 주시여라!

우리 수령님과 강선

송 재 하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그날
스무해나 기다려온
만경대고향집을 눈앞에 두시고
우리 수령님 먼저 찾으신 곳은
강선이였다

전쟁의 재가루가
이 땅 어디 가나 흩날리던
전후의 그 나날에도
우리 수령님 또다시 찾으신 곳은
강선이였다

강선
강선은 무엇이어서
강철증산의 거세찬 불길
눈내리는 12월의 그날에
강선의 로동계급 가슴마다 지피셨던가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의 억센 나래도
강선의 쇠물로 마련해주시고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도
천리마의 기상으로 펼치게 하신 수령님

우리 혁명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수령님은 강선과 함께 계시였다
그래서 구내의 푸르른 백양나무도
못 잊을 전후의 그날을 이야기하고
거인같은 저 만톤프레스도
수령님의 그 업적 노래하는것 아닌가

용해장을 찾으먼
땀결은 용해공의 방열복 만져보시며
더 좋게 만들어주자며 지으시던
해빛같은 그 미소 어려오고
식당구내에 들어서면
저가락끝이 뽀족하면 식사에 불편하다고
모양도 손수 잡아주시던 그 사랑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주나니

강선
너는 정녕 무엇이어서
우리 수령님 때없이
한밤중에도 전화를 거시어
용해공들의 건강도 알아보셨던가

바람부는 봉산강다리
해저문 보산의 흙무지우에서
강선의 앞날을 설계하셨던가

아,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초선에서
강철로 당을 받아들여온
강선의 로동계급이 그토록 대견하시어
우리 당의 근위병이라고
시대와 혁명의 앞자리에
언제나 내세워주신 수령님

그렇다 강선은
우리 수령님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꿈많은 하늘이였고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웃음이였다
세월앞에 빛발치는 내 조국의 자랑이였다

그래서 한생 마음속에
강선을 안고사신 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강선을 못 잊어 불러주신
아, 우리 수령님

강선에 바치신
수령님 그 헌신을 빛내려
우리 장군님
뜻깊은 12월의 그날에
강선을 찾으시어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지피셨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혼지켜
눈부신 번영기를 펼치는 이 땅을
생산과 증산의 불노를로
언제나 불태우는 강선이라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더 높이 추켜들게 하셨
나니

아, 강선
어버이수령님 기록한 영상으로
우리 당 력사에 뚜렷이 자리잡은 곳이어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강선의 로동계급과 함께
오늘도 저 달마산아래 서계시는
아아, 우리 수령님

치마저고리



박 성 호

1

이 땅우에 미제가 침략전쟁의 첫 포성을 올린 때로부터 만 3년을 가까이하고있던 초여름의 어느날 새벽이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한 때라 아직 해가 올밀대우로 솟아올라 여기 가루개까지 비치자면 한참이나 있어야 하겠지만 벌써 서늘한 새벽기운은 한결 풀이 죽었다.

폐허속 어디에서 밤샘을 했는지 메새 몇마리가 푸드득푸드득 새벽하늘에 날아올라 빼유— 빼유— 잠내나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모란봉쪽으로 날아갔다.

새벽녘의 고요를 깨치는것은 메새들뿐이 아니었다.

벌써 여기저기서 밤짓는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찾고 대답하는 소리가 아스푸레 들려왔다.

무너진 벽체와 깨어진 벽돌장들만 아니라면 철과 철,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피의 전쟁이 벌어지고있다고 믿을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새벽이었고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간밤을 내각에서 꼬박기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건지리 쪽으로 가고계시었다.

그곳에서는 정전담판때문에 오늘 판문점으로 나갈 남일총참모장이 기다리고있을것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던 정전담판장에 다시 기여나오고서도 《공중압력》으로

라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후방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전담판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이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놈들의 최후발악을 짓부시고 원수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는 미제의 야심을 짓밟아버림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 작전방침을 내놓으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작전방침에 따라 전전선에서 적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첫번째 타격전은 5월 13일부터 5월 26일사이에 21개의 목표에 30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지금온 보다 강력한 두번째 타격전이 시작되였다. 이에 맞게 정전담판장에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새벽전경을 내다보시며 사색에 잠겨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운전사옆에 앉은 김명진부관의 몸가짐이 별로 불안하다는것을 느끼고 눈길을 돌리시었다.

김명진은 자꾸 몸을 궁싹거리며 머리를 돌려 줄곧 남쪽하늘을 살피고있었다. 때없이 날아드는 적기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못 놓고있는 그였다.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소.》

적비행기들이 덤벼들 시간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었다.

김명진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안심치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의를 주어야 하는건데... 저렇게 표가 나는 흰색저고리까지 입고나올줄은... 모든것이 다 저의 불찰입니다.》

김명진이 저앞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눈길을 주며 자책 어린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혼자 말쑤처럼 뇌이시였다.

《동무가 언제 그럴 새나 있었겠소. 정심이가 었 그제 배치되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를 수행하는데…》

그러시고는 김명진이 안심치 앓아하는 그 앞자 동차쪽을 바라보시였다. 따발총을 잔등에 비껴메고 무릎을 세운채 긴장하게 앓아있는 병사들사이로 이따금씩 하얀 땀기같은것이 팔락이며 날리는것이 얼핏얼핏 보이군 했다.

운전사조수석에 앓아가는 서기 유정심의 하얀 저고리에서 날리는 웃고름이였다.

방금전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사령부로 가시기 위해 내각집무실에서 나오시였을 때였다. 김명진이 함께 떠나게 된 군인들앞에서 주먹을 흔들며 누구인가 추궁하다가 장군님을 뵈옵자 무척 당황해하는것이였다.

《무슨 일이요?》

김일성동지께서 다가가시며 의아해서 물으시자 김명진이 당황히 녀성침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서기동무가 아직 나타나질 앓아 그러합니다. 빨리 떠나야겠는데…》

《서기가?》

김일성동지께서 눈길을 돌리시는데 그때에야 녀성침실쪽에서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몸매 호리호리한 처녀가 뛰어나왔다. 그가 바로 오늘 함께 가게 되어있는 서기 유정심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최고사령부 통신부문에서 근무하던 그는 이틀전에 서기로 임명되였다.

종주먹을 부르쥘고 뛰여오는 그를 보는 순간 김명진의 눈이 대뜸에 화등잔처럼 커졌다.

아연해서 얼핏 **김일성**동지께로 눈길을 돌렸던 그는 급히 처녀를 맞받아나가며 장군님께서 들으실세라 낮게 그러나 날카롭게 추궁을 했다.

《동무 정신이 있소? 그렇게 흰저고리차림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거요. 당장 들어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시오. 당장!》

순간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섰채로 할딱거리던 처녀는 사람들앞에서, 더우기 장군님앞에서 그런 추궁을 받는것이 부끄러워서인지 단박에 그 갈쑤한 얼굴이 익은 고추처럼 빨개졌다.

《그럼… 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처녀를 보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녀그럽게 웃으시였다.

《정심이가 그렇게 치마저고리를 입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소. 자 명진동무, 어서 떠납시다. 시간

이 없소!》

김일성동지께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시며 재촉하시자 김명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님, 저런 흰저고리는 영낙없이 적비행기의 표적이 되겠는데 그대로야 어떻게…》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처녀의 얼굴이 금시 해쓱해졌다.

《어마나, 그럼 제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였다.

《걱정말아라. 우리 정심이가 이런 옷을 입고나 왔으니 적기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할게다.》

그러시고는 명진을 돌아보며 어서 차에 오르라고 재촉하시였다.

그렇게 되어 떠난 길이였다.

지금까지 적기들이 날아들군 하던 레를 보면 좀 이르기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시간을 택하기는 하였지만 혹 누가 알랴. 당장이라도 적기들이 달려들지. …최근에 이르러 더욱 악랄해진 공중비적들이다.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은 물론 며칠전에는 여러 지역의 많은 저수지들과 제방들까지 폭격파괴하였다. 공중비적들이 우리의 수뇌부를 노리고 비렬하게 덤벼든적은 또 얼마였던가.

김명진은 순간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남쪽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명진의 마음이 리해되시였다.

어쩐지 그에게 미안한감도 드시였다. 하지만 오늘 첫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이여서 생각하고생각하다가 저 옷을 택했을 처녀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여 더 말쑤를 하지 앓으시였다.

처음으로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서자니 거울앞에서 얼마나 옷매무시를 다듬었겠는가.

어제 저녁에는 그 옷을 입을 생각으로 가슴 들먹이며 한밤을 새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에게 당장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한다면…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였다.

잠시 앞차에서 땀기오리같이 날리군 하는 웃고름을 보시다가 약간 갈리신 음성으로 나직이 말쑤하시였다.

《사실 저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오테는 깊은 사연이 있소. 저 치마저고리에다 눈물겨운 사연이 있고…》

김명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돌렸다.

《저 치마저고리에 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김명진은 어쭈게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전 아직...》

적폭격기들이 날아들기 전에 일손을 축내려고 이른새벽부터 논밭로 나왔을 농민들의 모습을 차창밖으로 바라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며칠전에 있는 일들을 다시금 되새겨보시었다.

...전전선에서의 강력한 두번째 타격전을 지도하시느라 인민군부대들에 나가시었다가 저녁에야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정심이가 서기로 배치받아왔다는것을 아시고 반색하며 그가 들었다는 방으로 가시었다.

《우리 정심이가 왔다면서?》

김일성동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시자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 쓰고있던 처녀가 텅기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처녀는 막 뛰쳐나와 장군님의 팔을 잡아흔들며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가 이끄는대로 긴걸상에 가 나란히 앉으시었다. 방은 군인병실처럼 너댓명이 잘수 있는 침대가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그 맞은편에 긴걸상이 놓여있었다.

《그래 그간 잘있었느냐. 어머니도 별일 없교?》

《예. 어머니 그저 노상 이 딸에 대한 근심뿐입니다. 글썄 제가 이렇게 다 컸는데도 아이때처럼... 호호호. 제가 장군님의 서기가 되었다는걸 알구는 얼마나 놀라던지...》

《어머니가 왔됐느냐?》

유정심의 어머니 강옥희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식모로 일하고있었다.

《예, 제가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게 되었다는걸 어떻게 알구 왔는지... <네가 구실을 하긴 하겠니? 너같이 어린게... 예그, 철두 없는 네가 장군님께 짐이 되지는 않겠는지.> 하면서, 호호호.》

김일성동지께서는 티 한점 묻지 않는 이 햇병아리같은 처녀의 밝고 명랑하고 활달한 성품에 저절로 마음이 끌려들을 느끼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할머니가 되었어도 역시 딸이란다. 늘 걱정해주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주 고싶어하고...》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냉큼 일어나 방금 자기가 앉아있던 책상쪽으로 다가가더니 사물함을 열고 자그마한 보꾸레미를 들고와 장군님앞에 펼쳐보이며 자랑을 했다.

《글썄 엄만 이 옷까지 지어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야참, 이 옷감은 원래 올라버지가 엄마 해

입으라고 보내준건데... 글썄 제가 장군님의 서기가 되었다구... 자기보담 내가 입어야 한다구 하면서 장군님 서기는 옷차림부터 남들과 달라야 한다 나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펼쳐드는 옷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릿해움을 어찌할수가 없으시었다. 손수 저고리의 팔소매며 깃고대, 안섶과 주름잡힌 치마를 쓸어보시는 그이의 심중엔 잊지 못할 전사의 체취가 그 저고리에서 그대로 풍겨오는듯 했다.

《동정을 곱게 달았구나. 이 옷감을 받던 일이 생각나느냐?》

《예.》

...해방되기 두해전 가을 어느날 밤 그들모녀가 살던 기울어져가는 초가집문을 조심히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왼쪽팔에 관통상을 입은듯 부목을 댄 팔을 흰천으로 감아 목에 걸은 그 사람은 가까스로 문설주에 기대서서 가쁜숨을 토폴며 말했다.

《유학생동무가 보내서... 왔습니다.》

정심이 모녀는 깜짝 놀랐다. 정심이가 다섯살나던 해 유격대를 찾아간다고 집을 떠난이래 종무소식이던 아버지에게서 사람이 온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이 내놓은 물건은 더욱 놀라운것이였다. 보자기안에서는 눈부시게 흰 저고리감과 까만 치마감이 나왔던것이다.

《이 천은 학성동무가... 아주머니가... 옷을 해입으라고 보낸것입니다.》

정심이 어머니가 눈이 둥그래서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그럼 애아버지는... 애아버지는?...》

《학성동무는 후에...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는 누데기로 몸을 가리운 정심의 가냘픈 어깨를 쓰다듬어주면서 앞으로 왜놈들이 달려들어 행패질을 할수 있으니 인차 자리를 옮기라고 말했다.

《오래지 않아 나라가 해방됩니다. 그때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날로 그들은 자리를 뗐다. 왜놈들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동북의 석현땅에 눌러앉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심의 말을 들으시다가 조용히 긴숨을 내그으시었다.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중국땅으로 갔으니 내가 너희 행처를 몰라 해방이 되어서도 1년이 넘도록 못 찾았됐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 고있었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다시 그 치마저고리에 시선을 주시었다.

이 사연깊은 천을 정히 간수했다가 딸이 다 자라서기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자 손수 치마저고리를 지어왔을 정심의 어머니 강옥희의 심정이 뜨겁게 안겨오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전사인 유학성의 크고도 두툼한 손을 만져보듯 천천히 오래도록 치마저고리를 어루쓸어보시었다.

그러다가 감개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옷을 참 잘 만들었구나. 이걸 입고 나서면 우리 정심이가 한결 더 예뻐지겠다.》

정심은 별처럼 눈을 반짝이며 두손을 짝 마주쳤다.

《장군님께서도 제가 이 옷을 입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자기로 다시 옷을 싸서 정심에게 안겨주고는 자리를 일으키었다.

《그럼.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유정심은 옷보자기를 꼭 그러안고 따라일어서며 행복에 겨워 속삭였다....

바로 그런 일이 있어 유정심이 오늘 아침에 그 옷을 입고 나왔던 모양이었다. 그러다 뜻밖에도 명진이한테서 그런 호된 추궁을 받았으니 지금 그가 얼마나 억이 막히고 피로와하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하늘을 살피는 명진에게 조용히 이르시었다.

《정심이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저렇게 차리고 나선것 같은데 너무 닥달을 말라구. 그도 지금이야 한창 땀을 불 나이가 아니요. 우리 학생동무앞에 떳떳할수 있게 정심이를 잘 키우자구.》

차는 어느덧 건지리로 들어가는 산굽이를 돌아서고있었다.

바로 그때야 앞산마루로 아침해가 서서히 얼굴을 올려밀고있었다.

2

《똑똑똑.》

문을 조심히 두드리고 들어선 사람은 방금전에 요구하시었던 자료를 가지고온 유정심이었다. 어깨에 작은 별 한알을 박은 군관복에 혁피를 가뜰히 졸라매고 위장망까지 어깨에 얹은 그를 보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눈굽이 시큰해지시었다.

《우리 정심이가 군관복을 입으니 또 그것대로 의젓해보이는구나. 정심이에겐 어느 옷이나 다 어울리는것 같애.》

《장군님!》

정심은 갑자기 목메여 부르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급기야 돌아서서 어깨를 떨면서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해서 물으시었다.

《왜 그러느냐?》

정심은 한참이나 울다가 두손으로 앞자락을 반듯하게 펴고 무슨 말인지 할듯 하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이윽해서야 장화교송이를 움지락거리며 울먹울먹한 소리를 했다.

《장군님, 제가 그만... 누구보다도 항공에 주의를 돌렸어야 할 제가 오히려... 제 정말 다시는... 그 치마저고리를...》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아릿해움을 느끼시며 방동의 심지를 돌구시었다.

《그 옷이 어떻다고 그러느냐. 입어야 할 때야 입어야지. 부관동무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느냐?》

《백두산에서 싸울 때 아버지랑 항일투사들이 어떻게 장군님을 옹위해드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방후에도 그렇고... 또 이 전쟁에서도 그렇고... 장군님을 모시는 일에서는 천번만번중의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어떤 투사는 원쑤놈들에게 잡혀 고문받다가 혹시 꿈에서라도 사령부의 위치를 말할가봐 스스로 혀를 끊기까지 했다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깊은 곳에서 불덩이같은 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여 시선을 돌리시었다.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온 못 잊을 혁명동지들의 그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이 순간에 가슴에 파도쳐왔던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을 위해, 그들이 념원하던 조국의 해방과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그들이 남기고간 혈육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함을 늘 자각하게 되시는 장군님이시었다. 그래서 이 유정심이네들이 더없이 귀중하게 여겨지시고 보란듯이 키워 내세워주어야 하겠다고 마음다지게 되시는것이였다.

《정말 잊을수 없는 고마운 동지들이다. 그런 동지들이 있어 내가 그 피어린 항일의 혈전장에서도 그리고 이 준엄한 전쟁에서도 사선의 고비를 수없이 넘고 헤치였지만 이렇게 무사한것이 아니겠느냐. ... 그건 그렇고. 정심인 그 문제를 두고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말아라. 난 오늘 정심이가 입고 나온 그 옷을 보면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정심인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저고리감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있었는지 알고있겠지?》

정심은 고개를 수그렸다.

《예,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엇그제 오셨을 때도…》

《그걸 잊어서는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 우등불가에 서 불무지보초를 서던 유학성이가 하던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는듯싶으시었다.

…인적드문 두메산촌의 켜지게 가난한 살림일망정 정심의 부모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의중계 살아가고있었다.

정심이가 뜯개말이나마 익혀가지고 저녁마다 팔솔불아래서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며 고된 노동의 피로를 풀곤 하던 그무렵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조선반도를 하나의 거대한 병참기지로 전변시킨 일제의 략탈만행은 더 우심해지고 깊은 산골에도 《보국대》니, 《징용》이니, 《정신대》니 하는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정심이가 다섯살 잡히던 그해 어느날 청결검사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쏘다니며 못살게 굴던 면주재소의 《살팽이》라는 별명이 붙은 난쟁이왜놈순사가 동구길에서 정심이 엄마와 맞다들었다. 정심이와 엄마는 친정아버지가 지주놈네 나무를 하러 갔다가 크게 다쳤다는 말을 듣고 약을 가져다주러 가는 길이었다. 《살팽이》의 살모사눈이 정심의 손목을 잡고가는 어머니의 까만 치마와 흰저고리를 보자 살기를 떠고 편뜩이었다. 정심이 아버지가 목재판에서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결혼식때 첫날옷으로 사준 치마저고리였다.

본시 살결이 하얀 정심이 어머니가 그 까만 치마에 흰저고리까지 입었으니 마치 선녀가 내린듯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지금껏 트집을 잡을 건덕지가 없어 어찌지 못했던 《살팽이》가 긴 칼을 절걱거리며 앞길을 막아나섰다.

《대동아성전이 벌어지고있는 이 비상시국에 아직도 그런 옷이나 입고 다니는가. 그런 옷이나 입는것은 내선일제에 불응이나 하는것이다.》

《살팽이》는 사정없이 어머니를 끌고 면주재소로 가더니 흰저고리에 먹물벼락을 들썩였다. 흰저고리를 적시며 도랑지어 흘러내리는 먹물을 바라보며 정심은 마치 어머니의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방울을 보는것 같아 악 소리를 치며 눈을 꼭 감았다. 그날 목재소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이 참경을 보고는 더는 참을수 없어 《살팽이》를 단배에 때려눕히고 그길로 유격대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갔다.

《너의 아버지는 산에서 싸울 때 너의 어머니한테 옷 한벌 해준것마저 왜놈이 그렇게 걸레짜처럼

만들어놓았다고 분해서 이야기하곤 했단다. 그래서 그 옷감을 마련한것이지.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여적 간수하고있다가 이렇게 너에게 넘겨주었구나.》

그이의 음성은 저으기 갈려있었다. 사실 그 옷감은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주신것이었던것이다. 유학성이가 사령부로 기여드는 《토벌대》놈들을 유인하고 장렬하게 희생되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너무도 가슴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시었다. 사랑하는 전사가 가슴에 품고있던 그 한을 헤아려 몸소 치마저고리감을 마련해두셨던 그이이시었다.

유학성이가 국내정찰을 나갈 때 들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영원히 그 한을 풀어줄수 없게 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며칠후 유학성이 대신 국내정찰을 나가는 소대장에게 옷감보자기를 주시며 젖은 음성으로 당부하시었다.

《학성동무의 가족을 꼭 찾아 이 옷감을 전해주시오. 학성동무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알려주어서는 안되겠소. 학성동무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겠는데… 학성동무가 희생되었다는것을 알면 그들이… 아니, 안되오. 이 옷감은 학성동무가 보냈다고 하시오.》

그렇게 보내주신 옷감이였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간수하고있는것이다. 아마도 남편이 돌아오면 해입으리라 고이고이 간수해두고 그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으리라.

《엄만 제가 그렇게두 엄마가 해입어야 한다구 했지만… 이 옷을 입고 장군님사업을 보좌해드리는데 아버지가 알면 기뻐서 춤을 출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가슴이 찢르르해오시었다.

정녕 가슴이 아프시었다.

《그런 사연깊은 옷을 도로 벗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구나.》

《장군님, 너무 마음쓰시지 마십시오. 그 옷을 입을 날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쟁이라는걸 미처 생각 못하고 그랬으니…》

《그래 전쟁이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용타. 그러나 이 전쟁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인차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땐 그 치마저고리를 마음껏 입고 다녀라. 원래부터 치마저고리는 우리 조선여성들이 즐겨입는 전통적인 민족옷이다. 항일의 녀대원들도 누구나 치마저고리를 좋아했단다. 지하공작이나 정찰을 나갈 때면 즐겨 치마저고리를 입

군 했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까만 치마에 자주색 저고리를 입고 도천리로 지하공작을 떠나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선히 어려와 눈곱이 젖어드시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심이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었다.

《우리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옷을 입고 만경대에도 가자. 어떻니?》

《예, 좋습니다.》

유정심의 얼굴에 곧 미소가 피어올랐다.

밝고 명랑한 본래의 모습으로 인차 돌아가는것을 보니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마음이 놓이시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일이나 좀 이야기해보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벽쪽에 놓은 긴의자에 가앉으며 정심이더러 옆에 와앉으라고 손짓하시었다.

《그래 정심이는 희망이 무엇이나?》

옆에 와서 조심히 앉던 정심이가 도로 일어섰다.

《예?》

《앉으라는데…》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아 옆에 앉히며 다시 물으시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느냐?》

순간 정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의욕의 빛이 떠올랐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알린다.

《저… 혹시… 저를… 다른 곳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종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다. 정심이가 무슨 희망을 갖고있는지 알고싶어서 그러는거다.》

유정심은 그제야 말씀의 뜻을 깨달은듯 어깨를 낮추며 새무죽이 웃었다.

《뭐 별로… 특별히… 생각해본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싶은 일이 있겠지. 교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전 그저 이렇게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이 제일 좋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또…》

김일성동지께서는 또 한번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것은 아니겠지. 허허허… 사람이란 누구나 앞날에 대한 꿈을 안고사는 법이다.

이 세상에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니.》

유정심은 수집은 미소를 지으며 눈길을 떨구고 마주친 손을 오무작거렸다.

《저한테 소원이라는것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 엄마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옷을 해드리는데

이였습니다.》

《우리 정심이가 정말 곱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야지. 그렇게 부모님들을 생각해주고 기쁘게 해주고싶은 마음에서부터 애국심이 자라난다고도 할수 있다. 앞으로 어머니에게 꼭 좋은 옷을 해드리자.》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명진이 총참모부의 한 장령과 함께 들어섰다. 전선에서 긴급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모양이었다.

전선에서는 지금 맹렬한 타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허허허, 이거 정심이와 마음놓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안 주는군.》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어서시여 집무탁앞으로 가 송수화기부터 드시었다. 유정심은 그제서야 자기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닫고 얼른 거수경례를 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서기 유정심 돌아갈수 있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래,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3

종다리 울어울어 진달래 피어피어

발같이노래 산천에 떨치네

…

어디선가 청아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맑고도 구성진, 그러면서도 목청껏 내뿜지는 못하고 조용 조용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폭격에 뿌리를 허궁 드러낸 진달래를 조심히 떠서 마대에 담으려던 김명진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허리를 폈다.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사이로 군관복을 입은 한 처녀가 옆구리에 바구니를 끼고 나물을 뜯고있는 것이 보였다.

유정심이였다. 이른새벽마다 산나물을 뜯어다 최고사령부식당에 가져다주곤 한다더니…

…

꽃송이 뿌러뿌러 새 나라 노래하세

김명진은 손등으로 송골송골 내뿜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싱그레 미소를 지었다.

(경박한 처녀로구나.)

이것이 유정심이 처음 서기로 배치받아왔을 때

김명진이 내린 마음속 결론이었다. 다음날에 있는 《치마저고리사건》은 그를 더욱 아연하게 해주었다.

(저 애가 과연 서기임무를 꽤 수행해낼가?)

그날 짬을 내어 항일빨찌산들이 장군님을 어떻게 보위해왔는가를 이야기해주면서도, 뼈저리게 자기를 뉘우치며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크게는 믿음이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불신은 믿음으로 변해갔다.

그는 유정심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함께 일하는 동무들과 함께 마당과 저 앞길까지 깨끗이 쓸고 꽃밭을 알뜰히 가꾸는것으로 아침일과를 시작하곤 하는것으로만 알고있었지 이렇게 산나물을 뜯어다 식당에 가져다주곤 하는줄은 썩 후에야 알았었다. 저녁에 하루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늦게까지 책상에 마주앉아 공부를 하곤 한다. 서기를 하자면 우선 많이 알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는 모습, 밝고 명랑하면서도 매사에 빈틈이 없다. 하기가 **김일성**동지께서 하나하나 배워주고 일깨워주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어련하랴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일 저녁 그의 학습정형을 알아보고 다음날의 학습방향을 그어주곤 하시였다.

언제인가는 비가 몹시도 오는 날 지방에 현지지도 나가시였다가 《가만, 오늘이 우리 정심이 생일날이지. 우리 늦었어도 가서 축하해줍시다.》 하시며 밤중으로 돌아오신 날도 있다.

어머니도 딸의 생일을 생각하였겠지만 오지는 못하였었다. 이 바쁜 때에 최고사령부에 가있는 딸의 생일에까지 찾아가랴 했을것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를 위해 밤길을 걸으신것이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 것처럼 품들여 자기 딸을 키우시는줄 안다면 유학성동지는 또 얼마나 좋아하랴 하는 생각에 김명진은 코허리가 시큰해와저도 모르게 눈을 습벅거렸다.

유정심은 노래를 부르며 저아래로 멀어져갔다.

김명진은 그제야 피륙 정신이 들어 서둘러 진달래포기를 정히 마대안에 담아지고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나무를 심을 구멍이를 파놓고 기다리고계시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새벽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책을 하시다가 놈들의 폭격에 뿌리채 드러난 진달래를 보고 가슴아파하시며 안침진 곳에 옮겨심자고 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진달래를 심을 구멍이를 파고계시였다.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세번째의 강력한 타격전을 구상하시며 밤을 꼬박기 새우신

그이이시였다.

계절은 계절이라 날씨는 아침부터 찜뭉치고있었다.

얼마 삽질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다.

새벽산책길에 시작하신 일이라 아직은 누구도 모르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유정심이 뛰어들라왔다. 산나물을 뜯어가지고 내려가다가 삽질을 하시는 장군님을 본것이다.

《야참, 장군님, 삽을 이리 주십시오. 그런 일 이야 저희들에게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유정심이 이러며 삽을 앓으려고 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며 허리를 펴시였다.

《이젠 다됐다.》

그러시고는 파내어 쌓아놓은 흙무지속에 삽을 쿵박으시였다.

《이제 명진동무랑 오면... 나무를 심자.》

유정심은 의아해서 흙구멍이를 들여다보았다.

《장군님,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림니까?》

나무를 심을 철은 아닌데... 하는 의문이 실린 목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깨에 걸쳤던 타올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진달래꽃나무를 심으려고 그런다. 정심인 무슨 꽃을 좋아하느냐?》

《전 봉선화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태어난 해에 봉선화처럼 곱게 피어나라고 울밑에 봉선화를 심었답니다. 아버지가 유격대로 떠나신 담에는 어머니가 해마다 꽃씨를 받아두었다가 봄이 오면 꼭꼭 봉선화씨를 뿌리곤 했답니다.》

《그게 바로 부모들의 심정이지. 자식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늘 가슴에 안고살아야 한단다.》

《알겠습니다.》

유정심이 갑자기 엉뚱하게 물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십니까?》

《나? 나야 우리 나라에 피는 꽃은 다 좋아하지.》

《그래두...》

바로 이때 명진부관을 따라 정히 뜬 진달래포기들을 마대로 감싼 몇몇 군인들이 모여왔다. 김명진은 진달래포기들을 날라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식도와 물을 길어왔다.

유정심은 여전히 의문을 담은 눈길로 김명진이 내려놓는 진달래포기를 쳐다보았다. 왜 하필 이 여

름에 철이 다 지난 진달래를 옮겨심는가 하는 기색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부식토를 삽으로 구덩이안에 깔아놓으며 사연을 말씀해주시었다.

《아까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어제 밤 놈들의 눈먼 폭탄에 이 진달래포기가 뿌리채 들러있더구나. 가만두면 말라죽겠기에 옮겨심기로 한거다. 이 전쟁에서 꽃나무들까지 피해를 받고있구나.》

유정심이 얼른 장군님의 삽을 받아들고 부식토를 걸싸게 퍼넣었다.

《이젠 됐다. 어서 꽃나무를 들여앉히자.》

유정심이 그제야 허리를 폈다. 명진이네들이 진달래포기를 조심히 들어 구덩이에 들어앉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식토와 파낸 흙을 고루 섞어 꽃나무들레에 덮은 다음 팡팡 다지며 말씀하시었다.

《이 진달래는 예로부터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라고 일러왔지. 항일유격대원들이 이 꽃을 무척 사랑했소. 안 그렇소, 명진동무?》

김명진이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1939년 5월 조국땅에 들어섰을 때 일이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반겨맞은 이 진달래꽃을 부어안고 너무도 감격해서 다들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김명진이 주먹으로 입을 막았다. 자기가 장군님께 가슴속 아픔을 더해드리는데 같은 생각이 불시에 뇌리를 쳤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진의 그 속마음이 리해되시었다.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미여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시며 더 힘을 주어 밝으시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향기로운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고오시어 《장군님, 조국의 진달래입니다.》하던 음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저 정심이네를 찾기 위해서도 무척 애를 쓰시었다. 그를 찾아 데려왔을 때는 품에 꼭 껴안고 불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시었다.

《정심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꼭 훌륭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하시며…

《자, 이젠 그만하고 물을 주자.》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자 정심이 얼른 바깥쪽을 들고 꽃나무에 물을 술술 부어주었다.

역시 여간만 눈치가 빠른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명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윽하여 부판이며 사람들이 공구들을 거두기 시작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물을 담은 소랭이에 손을 잠그시며 대견한 눈길로 정심을 돌아보시었다.

《이젠 전쟁도 끝나가는데… 정심인 자기 희망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았느냐?》

《예? 전쟁이 끝나면… 저를… 정말 다른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겁에 질린듯 한 떨리는 목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씻으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난 정심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한몫 맡아했으면 해서 그런다.》

《장군님!》

고개를 떨군 유정심의 두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아마도 자기가 체구실을 못해서 다른데로 보내시려는것으로 지레짐작한 모양 더 말을 잇지 못한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잘하겠으니 부디 어디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소하고싶은 생각이 지금 막 끓고있으리라.

명진이도 삽을 거두다말고 화등잔처럼 커진 눈으로 정심을 쳐다보다가 장군님을 우러렸다. 놀란것으로 말하면 명진이가 더했다. 오늘날에 와서 그는 유정심이처럼 서기로서의 책임자는 없다고 단언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항일전에서 희생된 전우의 딸이라고 하면서 것처럼 애지중지 품들여 키우신것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도 그렇게 품들여 키우시고는 이제 와서 왜…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다 씻고나서 타올수건을 받아 물기를 문대이며 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정심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천으로 어머니옷을 해드리겠다고 했지. 그제 얼마나 훌륭한 꿈이나. 난 그 고운 천을 네 손으로 직접 짜는게 더 좋을것 같아서 그런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방직기사가 되었으면 한다.》

정심은 자기를 다른데 보내려는것이 능력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는것을 알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장군님의 품에 안겨들었다.

《장군님, 절 다른데 보내지 말아주시시오. 전 장군님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다른건 다 싫습니다. 그저 장군님의 사업만 옆에서 보좌해드릴수 있다면… 우리 엄마도 그걸 바랄것입니다. 전 언제까지건… 언제까지건…》

김일성동지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시었다. 자꾸만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찌지 못하며 갈린 음성으로 달래이시었다.

《정심아, 나도 정심이를 어디 보내고싶지 않다. 푹푹하구 일 잘하구… 늘 데리고 일하고싶다. 그러나 나는 정심이가 더 큰일을 했으면 해서 그런다.

정심아, 내가 어려서부터 품었던 제일 큰 소원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 인민모두를 흰쌀밥에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는 것이었다.

정심이가 고운 옷이란 소리를 할 때 난 정심이를 보면서 내 소원을 풀어줄 또 한명의 동지가 생겼다고 속으로 기뻐했었다. 정심아, 정심인 항일투사의 딸답게 한 어머니의 옷만이 아니라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고운 옷을 해입히는 그런 큰 일군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던 소원을 이루는 길이요 왜놈순사에게 단벌옷마저 찢기우고 원통해 울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을 푸는 길이다. 알겠느냐?»

《장군님… 그래두… 그래두 난…》

정심은 더욱욱 장군님의 품에 파고들며 몸을 떨었다.

동산에 떠오른 아침해가 눈부신 해빛을 누리에 뿌리기 시작했다.

4

어느 한 고개길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명진과 마주서계시었다.

《장군님, 정말 정심이를 보내시겠습니까?》

김명진이 무척 아쉬워하며 하는 말이였다. 처음엔 그닥 시답지 않아했지만 이제 어떻게 마음에 꼭 들었던지 다른데 보내고싶지 않아하는 것이다.

《보내야지. 방직기술이 제일 발전된 나라에 보내야겠소. 그 나라 대학에 가서 배우면 앞으로 한몫 할게요. 이악하고 짝지고… 큰 일군감이야.》

정심이와의 작별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더우기 떠나기 싫어 울고올 처녀의 그 눈물을 마음편히 보아낼것 같지 못하시었다.

그러나 더 큰것을 위해서는 보내야 하시었다. 그래서 지금 현지지도의 길에서 손수 구하신 비단천을 명진에게 들려보내시려는 것이었다.

앞에는 김명진이 아직도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가 가서 바래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겠구만.… 여기 돌아볼 곳이 몇군데 더 있으니 어찌겠소. 동무가 가서 바래주오. 그리고 이 천은… 류학을 가도 갈음옷이 있어야했기에 준비한 것이니 옷을 해입혀 떠나보내도록 하오. 학생동무가 딸에게 고운 옷 한번 변변히 못 입혔다고 한을 남기고 갔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하시오. 그 애가 처음 치마저고리를 입었을 때 명진동무가 싫은소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옷을 입고 떠나는 모습을 꼭 보고 오시오.》

김명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비단천을 싼 보꾸

레미를 받아안았다.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에 목이 짝 메어왔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그 사랑을 꼭 알려주겠습니다.》

이윽고 명진이 탄 차가 떠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령마루에 서시어 오래도록 그를 바라워주시었다.

5

세월이 흘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들어선 어느해 설날 유정심을 비롯한 몇몇 혁명가유자녀들을 친히 저택으로 불러주시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한몫씩 맡아 일을 제끼고있는 그들을 축하해주고싶으시였던 것이다. 유정심은 류학을 떠나보낼 때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비단옷감으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그이께 삼가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였다.

《오, 우리 정심이구나. 이거 안됐다, 나라의 제일 큰 방직공장지배인을 아이처럼 불러서.…》

유정심은 발췌 웃으며 처녀시절처럼 응석어린 어조로 말씀드렸다.

《아버지원수님, 저는 앞으로 할머니소리를 듣게 돼도 오직 원수님의 딸입니다. 오늘도 원수님께서 제가 류학을 갈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그 옷을 입고왔습니다.》

《그래그래. 너희들모두가 내 자식이구말구. 정심인 그새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면서?》

《예, 아들딸 오누이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해, 선렬들의 뒤를 잇게.》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자녀들이 한명한명 부어올리는 축배잔을 받으시며 그들이 해놓은 일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었다.

《너희들이 한몫씩 맡아하니 내 마음도 한결 든든해진다. 명진동무가 말하는데 정심이네가 어제까지 년간 천생산계획을 187프로로 넘쳐수행했다면서?》

김명진은 그사이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라났다.

《예.》

《너의 어머니가 기뻐했겠구나, 딸이 온 나라 인민들이 해입을 천을 짱짱 생산해내고있으니. 난 거리에 나설 때마다 고운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을 보면 정심이를 생각하군 한다. 녀성들이 그 옷을 입고 나서니 얼마나 거리가 환하냐. 조선치마저고리는 정말 좋은 옷이다. 그래 어머니에게 새옷을 해드렸느냐?》

《예,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공장에 배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형상의 진실성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화폭속에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이 구현되면 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문학에서 철학성을 구현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잘 가꾸어야 한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작품의 철학성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다. 작품의 철학성은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사상과 형상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의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진리를 예리하고 심각하게 제기하고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심오하게 해명하여야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된다.》

치되어가서 처음 짠 천으로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올렸습시다. 그러면서 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이 흰쌀밥에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는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셨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옷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난날 옷 한벌밖에 없던것마저 왜놈에게 찢기우고 입고 갈 옷이 없어 친정집에도 못갔던 일을 외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소원을 안고계시는가고, 원수님의 그 평생소원을 풀어드리는데 꼭 한몫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정심이가 이렇게 큰 방직공장 지배인을 하는걸 아버지가 보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네.》

《원수님!》

정심은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이렇게 목메어 부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내를 둘러보시었다.

《너희들이 지난해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당이 준 임무를 모두 훌륭히 수행했거던...》

그이의 눈가에 언뜻 물기가 어리었다. 저 유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백두의 이름모를 골짜기와 산들에 묻고온 전우들의 모습이 생각나시였던 것이다. 그 눈덮인 산야에 사랑하는 전우들을 묻으며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신것이 바로 그들의 념원대로 자녀들을 우리 혁명의 기둥들로 억세게 키우는것이였다.

(동무들! 어서 일어나 저 애들을 좀 보시오. 저 애들이 이제는 동무들을 대신하여 나를 받들어주고 있소! 이것이 바로 혁명의 계승이 아니겠소. 그 계승은 대를 이어 계속될것이요.)

창창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존안에는 그윽한 미소가 갈수록 더 짙게 피어오르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슴이 쩡해움을 느끼시며 이제는 노래들을 부르자고 하시었다. 유자녀들이 한 명씩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이께서는 옆에 앉은 정심이에게 속삭이듯 물으시었다.

《명진부위원장의 말이 새해계획을 또 높였다던데 꽤 수행할수 있겠니?》

정심은 노래하는데 방해될세라 역시 속삭이듯 말씀드렸다.

《아버지원수님, 우리 공장은 이번 5개년계획기간에 방직, 직포, 염색, 편직공정이 완전히 일신되었고 공장로동자들은 모두가 천리마기수가 되었습니다. 5개년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원수님의 감사문을 전달받던 날 공장로동자들은 우리 인민을 더 잘 입히시려고 것처럼 마음쓰시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거 정말 고맙구나. 공장로동자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다오.》

《알겠습니다. 아버지원수님, 이제는 입는 문제를 가지고 더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는 2.8비날론공장준공식을 하였고 또 도처에 방직공장, 건직공장들은 얼마나 많이 일떠섰습니까.》

《그래그래, 많이 일떠섰지. 천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러나 잘 입고 잘살려는 인민들의 생활적요구는 그만큼 계속 높아지는 법이다. 우리 새해에도 일을 더 잘하자.》

행복의 시간은 빠른 법이다. 어느덧 창가에는 저녁어스름이 비끼고있었다. 유정심이네들은 **김일성** 동지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는 새해에도 안겨질 아름다운 행복을 약속하는듯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있었다.

우리 수령님의 정원

최 순 철

머 리 시

1

유서깊은 대동강을
감도는 젖빛안개
금수산을 휩싸안은 그 안개를 차며
백학들이 날아오른다

새벽노을이 붉게 물드는 금수산
수려한 너의 모습에 어려오는듯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시려 것처럼 마음쓰시며
날마다 첫새벽문을 여시고
저택정원의 시험포전에 들어서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그래서
흐르는 새벽안개도
어찌면 우리 수령님
후더운 숨결처럼 안겨들고

우줄우줄 키를 솟구는
강냉이포기들과 남새포기들의 설레임소리에도
이랑이랑들에 듬뿍듬뿍 복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호미질소리가 실려오는듯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한평생
위대한 농민이 되시여
이 땅을 가꾸신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그 체온에 씨앗들이 싹이 트고
사랑의 그 손길아래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진
시험포전이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여기 시험포전에 들어서면
우리 수령님 꼭 뵈울것만 같아
우리 수령님 꼭 뵈울것만 같아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의 아름다운 꽃송이들 더더욱 만발하고
그리움의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는
아, 그리움의 정원이여

이 나라 사람들
아니, 세계의 인류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아버이수령님들을
목매어 부르며 마음 달려오는
금수산태양궁전이여

나의 발걸음이 절로 옮겨진다
백두산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숨결과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어
가슴 후터워지는 금수산 포전길로

안겨오누나
한쪽의 모자이크벽화
저택정원의 시험포전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너무도 눈에 익은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구수한 난알향기 풍기는 포전에서
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는가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아, 아버이의 그 영상이여

우러를수록
나의 가슴속에 새겨지누나
한생토록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며
인민만을 위해 사신 우리 수령님의
전설같은 그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수십여년세월이 흘렀어도
금시련듯 생생히 어려오는
세상에 없는 류다른 정원이 생겨나던
어느 봄날의 그 이야기가

그날이었어라
새들도 깨어나지 않은 이른새벽
실안개 감도는 저택정원에 나오시여
들고나오신 호미로 새로 일군 꽃밭에
무엇인가 심으시던 우리 수령님

—저, 수령님

어쩌면 이렇게 이른새벽에...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아, 일찍들 나왔구만
그런데 여기에 꽃을 심기보다
콩을 심지요
며칠전에 진행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정신대로
우리도 빈땅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콩을 심지요

그러시며
저기 원형화단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다른 곳에 옮겨심고
보통강바닥흙을 가져다 잘 퍼서
시험포전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그러면 자신께서 자주 나와보고
농사방법을 가르쳐주겠으니
잘해보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여라

수령님 부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담아
정원에 향기그득한 꽃을 심어가꾼 그 심정을
아되고싶어
젖어드는 눈길을 들어
수령님을 우러르는데...

또다시
흙묻은 호미를 쥐시고
한알 두알
콩을 심으시는 수령님

그이의 심중엔
가득차 흘렀어라
그 옛날 가난과 굶주림에 설음났던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시려는
불보다 뜨거운 아버지의 그 정이

—수령님!
여기 정원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꾸리도록 해주신것입니다

그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일손을 멈추신 우리 수령님
해방직후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신 그날
우리 장군님 한겨울에 정히 피워드린
은방울꽃다발을 그려보시는가

전화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담아 쓰신
축복의 편지의 구절구절을 새겨보시는가
안팎에 뜨거움이 어리여라

—그래,
김정일동지가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하는 마음이 것처럼 지극하오...
그러나 내가 인민을 위해 여기 정원에
시험포전을 꾸린다는것을 알면 리해할거요
아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거요!

조국이어
인민이어
우리 다 알고 살았던가
그날의 이른새벽에 아로새겨진
인민사랑의 이 전설을

이 세상 그 어느 백화만발한
정원에도 감히 비길수 없는
류다른 정원
금수산시험포전이 꾸려지던 이야기를
정녕 알고 살았던가

동트는 새벽이면
호미를 드시고 땀을 흘리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고결한 그 넋이
아로새겨져있는 포전이어

가슴뜨겁게 안겨오누나
우리 인민을 잘 먹이는것이
그리고 소원이라시며
세상에 좋다는 종자는 다 들어다
몸소 시험해보시고
재배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금시라도
팔뚝같은 이삭들이 달린
저 강냉이포전에서 들러올듯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

—음, 5월말에 개피리가 나와서 걱정들 했다는데
이것은 울강냉이이기때문에 일없소
강냉이를 수확한 다음 메밀을 심어봅시다
그리고 꿀통도 놓으면 꿀도 먹고 메밀도 먹게 되니
평먹고 알먹기가 아니겠소

어려오누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쌍이신 피로도 푸시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

비물이 채 빠지지 않은 포전에서
신발이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렁진 콩꼬투리들을 하나하나 세여보시며
그리고 기쁨에 넘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그날의 그 영상이

—여기에 앞그루로 완두콩을 심었다가
뒤그루로 콩을 심으니 얼마나 좋소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는
꼭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해야 하오

물씬 그윽한 향기가 풍겨오는
포도원에서든 들려오는듯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시여
몸소 비행기에 포도나무모들을 싣고오신
아버이수령님
주렁진 포도송이들을 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이

—이렇게 빈땅에 포도를 심으니 얼마나 좋소
그러니 이 포도는 공짜요 공짜!
이렇게 매 가정들의 빈땅에 포도를 심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포도를 실컷 먹일수 있을거요

들러볼수록
한껏 자양분을 머금고
푸르싱싱한 남새포전이어
너의 이랑이랑들에도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새겨져있어라

찬기운이 서리던 초봄의 이른새벽
포전에 나오시여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려면
삼모작을 해야 한다시며
파릇파릇 잎새들이 돌아난 남새모를
정성을 담아 심으시고 포근한 흙을 덮어주시던
아버이의 그 영상이여

한없이 자애로운 그 영상을 그려볼수록
떠오르누나
어느해 9월 22일
못 잊을 그날의 가슴뜨거운 그 이야기가

불내 여름내
정성껏 가꾸신
새 품종의 기름작물을
손수 캐신 우리 수령님

샘물에 씻으시여 맛을 보시면서
맛이 정말 좋다고
이 작물로 기름도 짜고 우리 아이들에게
파자도 만들어먹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저 대성산주작봉에 있는 김정숙동무도
정말 기뻐할거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수령님

—수령님!

어쩌면 어쩌면...

우리 김정숙어머님께서 수령님을 잘 모시라고
그처럼 당부하셨는데...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
걱정에 목메여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일없소
해방직후에 정숙동무도
정원에 남새포전을 만들어놓고
이른새벽이면 **김정일**동지와 함께 가꾸곤 했소
늘 고무신에 흙을 묻히고 땀흘리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소
우리 인민을 잘 먹일수 있게만 된다면
정숙동무도 정말 기뻐할거요

아, 수령님
이 나라 인민이 사는 곳 그 어디나
찾고 또 찾으신 집집마다
열어보신 그 쌀독들에
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려
인민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려
사계절 여기 금수산포전을 안고사신 아버지수령님

바로 그런분이시였기에
북방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깊은 밤
쏟아지는 폭우에
시험포전의 농작물들이 걱정되시여
몇번이고 전화를 걸어오시였거니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여서도
제일먼저 여기 금수산시험포전부터 찾으시여
무르익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며
그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어라

그렇게
인민사랑의 오탁팩과가
여기 우리 수령님의 저택정원에 뿌리를 내렸고
그렇게 무르익은 열매들이
온 나라의 농장벌들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었으니

오, 금수산시험포전이어
너는 온 나라의 농장벌을 다 안고있는
인민사랑의 정원
만복의 씨앗이 움터난
주체농법의 원종장이여라

어제 밤 꿈속에서 수령님 만나뵈고
너무 기뻐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끝이 없더니
영생하는 그이 모습 뵈었습니다

...

자나깨나 수령님 그리는 마음
금수산기슭으로 달려갑니다

내 심장의 박동처럼
울려오는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
걸음을 옮길수록 안겨오나니
여기 시험포전을 온 나라에 넓혀가시며
우리 수령님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이

어느해 겨울날
산골농민들의 살림형편을 알아보시려
이른새벽에 길을 떠나신 우리 수령님
외진 산기슭의 포전에
차를 멈춰세우시였어라

무릎까지 치게 눈이 쌓인
포전에 들어서시여
장갑도 끼지 않으신 맨손으로
차디찬 그 눈을 헤치시던 수령님

일군들에게
강냉이그루터기를 세여보니
평당포기수를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산골농민들의 생활이 펴일수 없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어라

그러시고는
강냉이 심는 방법을
눈우에 손으로 그려가시며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아버이의 못 잊을 그 영상이여

오, 인민이여
그날에 우리 수령님 배워주신
농사방법이 여기 저택의 시험포전에서
연구하고 완성하신것임을 알고
우리 격정에 목메여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지 않았던가

—수령님 같은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날들을

잊을수 없어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설레이는
금수산포전의 농작물들이
오늘도 전하여주는듯

여기 포전에서 우리 수령님
삼복의 피약벌아래
땀으로 옷깃을 화락 적시시며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시험해보고 찾아내신 좋은 품종들과
채배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곤 하시었다고

그럴 때면
평생 흠을 주무르며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일군들도 저저마다
무릎을 치며 탄복하곤 하였다고

인민을 배불리 먹이시려
여기 저택정원의 시험포전을
온 나라에
그대로 펼쳐가신 아버지수령님

온 나라의
농사일로 것처럼 마음쓰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맞으신 찬눈비는 그 얼마였던가

정녕 잊을수 없으려
뜻깊은 4월의 그 봄날이야기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잊을수 없으려

씨불임한 논밭들에 비가 내리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새우시며
기상관측소에
몇번이고 전화를 하신 수령님

봄비가 봄비가 내리는것이 너무도 반가우시여
여기 금수산포전의 밭이랑을 호미로 파보시며
약비가 약비가 내린다고
이만하면 온 나라의 논밭들이 푹 젖었을것이라고
그리도 기쁨에 넘치시여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

—수령님!
옷이 다 젖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오늘은 수령님생신날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농사보다 더 중한것이 없소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일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락으로 생각하겠소
난 오늘 생일을 정말 즐겁게 쇠는것 같소

—수령님!...

아, 뜻깊은 생신날
인민은 푸짐한 명절상앞에 앉혀주시고
자신께서는 그 인민을 위해
이른새벽부터 찬비를 맞으시던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고걸으신
이 나라의 멀고 험한 포전길들이여

생각할수록
눈물겹게 어려오거니
서해안의 농장벌을 찾으시여
스며드는 소금기를 가늠해보시려
논물을 맞보시던 우리 수령님

북변의 농장을 찾으시여
차가 못 가면
걸어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감탕길을 헤치시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도 들려온다
그렇게 심혈을 바치시며 가꾸신
드넓은 벌에 열매들이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날

늪길거리는 벼바다 강녕이바다를 바라보시던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에 심취되시여
풍년가를 부르시며
이 별판에서 하루밤 자고싶다고 하시던
자애로운 그 음성

이런분이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잘 먹이시려
그처럼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분

말하랴 력사여
너 어느 갈피에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잘 먹이려고
저택의 정원에 거름내나는 시험포전을 꾸리고
농사를 지은 그런 령도자가 있었던가

류다른 정원—시험포전을

온 나라에 그대로 펼쳐가시며
이랑이랑들에 인민을 위한 사랑과
고귀한 넋이 어린 구슬구슬 땀방울을
씨앗처럼 물으신분 있었던가

아, 우리 수령님
저택의 처마아래 펼쳐진
내 조국의 산과 들이
그대로 자신의 온넋이고
인민의 행복의 만년터전이였기에
한품에 껴안으시고
정성을 다하여 가꾸시였거니

사랑하는 그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헌신과 로고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영원한 인민사랑의 정원
내 나라 강산이여

그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의 숨결
인민사랑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어
걸어볼수록 가슴이 뜨겁고
안아볼수록 심장이 불타오르는
성스러운 대지—
우리 수령님의 정원이여

3

피눈물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스무한해전 7월의 그날이었다
여기 금수산포전에 나오면
꼭 우리 수령님 수령님을 다시 뵈울것 같아
달려나온 사람들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그 말쑹을 받아안고
격정에 목메여 울고 또 울었어라

—아버이수령님께서 가꾸시던 시험포전을
잘 관리하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야 하겠습니다

아, 장군님!
하늘에 새겨도 다 새기지 못할
우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그 업적을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충정의 세계를 받아안던
못 잊을 그날이여

정녕
우리 수령님 수령님은
여기 금수산포전을 떠나신적이 없으셨다
스무한해세월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의 심장속에 계셨다

하기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뵙고
여기 금수산포전을 지나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을 떠나시던
우리 장군님 심중엔 수령님께 다진
신념의 맹세가 다시금 울려졌거니

—수령님!

기어이 수령님님원대로 나라가 흥하고 인민이
잘살게 하여 이 땅에 만복이 차넘치게 하겠습니까

오, 우리 수령님 맡기고가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신고
동트는 전선의 산발을 달리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
그 야전차를 천만군민은 마음속으로 따라섰거니

그렇게 우리 장군님
떠오르는 해를 고지에서 맞으시고
기우는 별을 들에서 바라시며
이어가고 또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이어

그 길우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자욱을
가슴에 안아보는
나의 귀전에 들려온다

진눈까비를 맞으시며
천지개벽한 강원땅의
토지정리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수로의 좁은 다리에서
일군들과 나누신 절절한 그 대화가

—장군님!

길이 험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팔순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저택정원의 시험포전을 가꾸시었고
온 나라의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소
나는 우리 수령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만 있다면
이런 길을 걷고 또 걸겠소

사랑의 그 자욱자욱을 따라서는
나의 마음속에 어려온다
그처럼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천리 먼 함흥벌을 찾으시여
하나하나 농사방법을 가르쳐주신 장군님

알차게 무르익은 벼이삭을
쏴어보고 또 쏴어보시며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동해안농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그 영상이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미곡벌의 들길에
마음을 세워도
눈시울 젖어드누나

미곡협동농장은 자신께서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며
비오는 날에도 바람부는 날에도
찾고 또 찾으시던 아버지장군님
눈이 온다 그 길을 멈추셨으랴
전선길의 흰눈을 가득 떠인 야전차
지금도 마음속에 밝혀오기에

우리 장군님의
그 영상을 그려볼수록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우리모두 수령님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사는 인민으로 내세우자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그 음성

아, 조국이며 인민이며
아버지장군님의
한평생은
바로 그렇게 이어졌거니

우리 수령님께서 남기고가신
사연깊은 지평이를 가슴에 새기시고
수령님의 모습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에서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한평생이여

비바람 세찬 새벽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민을 위해 맞는 이런 비는
찬비가 아니라 옥비라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

그렇게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길만을 걸으시며
우리 수령님
온 나라에 넓혀주신 시험포전을
기름지게 걸구시고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주시었거니

그 위대한 인민사랑을 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미곡벌과 한드레벌의 벼이삭들

대동강기슭의 원홍땅과 철령아래 사과바다
대흥단의 감자꽃바다여
병사들의 초소마다 펼쳐진 류다른 쿵풍경
이 나라의 선군만경의 모습들이여

이 나라 어딜 가나 그림같이 펼쳐진
선경의 그 모습들에
우리 장군님
장군님 계신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노래를
구절구절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생을 불같이 사신
아버이장군님 계신다

우리 수령님 가뒤편 이 나라의 대지에
부흥의 봄
강국의 봄을 불러오신 우리 장군님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계신다

아, 오늘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땅에 향기그윽한 열매들을
무르익히신다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인민의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우리의 무릉도원이여
웃음꽃이 더욱 만발할 우리의 앞날이여

그날을 그려보며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가슴 들먹이는
나의 귀전에 들려온다
여기 금수산포전의 한쪽의 모자이크벽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심장으로 아뢰이는
정찬 그 목소리가

—수령님, 수령님께서 이 나라의 첫새벽문을 여시고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념원과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을
우리 원수님께서 그대로 펼쳐주고계십니다

우리 수령님
환하게 웃으신다
더더욱 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다

해빛같은 그 미소가
그대로 금수산노을에 어러
온 누리를 불태우는가
그 노을에 한껏 물들은 포전의 농작물들이
끝없이 설레인다

아, 금수산포전이여
여기서 보인다
만복을 누려가며 웃음꽃 활짝 피우는
인민의 행복한 그 모습이

이 땅우에 찬연한 빛발을 뿌리며
쫓아오른 태양—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시는
백두산대국의 모습이 보인다

맺 음 시

인민이여
성스런 이 땅의 한줌한줌의
흙을 껴안아보시라

그러면 심장으로 느끼게 되리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과 로고의 숨결과 체취를

그러면
가슴가득 안겨오리라
이 땅우에 주렁지는 향기그윽한 열매들이
한평생 인민을 위해 뿌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결한 넋이 어린 구슬구슬 땀방울들처럼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글자만 남는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우리 수령님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 원수님
이 땅을 뜨거운 열과 정으로
품에 안아 가꾸시거니

오, 세계여
이제 너는 보게 되리라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누리는
사회주의만복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게 되리라

금수산태양궁전이 가까운 푸른 벌에서

변 홍 영

봄바람에 설레는 울창한 수목원결에
우리 가꾸는 풍요한 벌이 있다
이해따라 모내기로 들끓는 벌에 나서니
더더욱 가슴 젖어오는 뜨거운 생각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올해농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시며
모를 내는 이 벌을 금시라도 찾아주실듯
환히 웃으시며 푸르러가는 포전들을 돌아보실듯

태양의 그 미소가
봄날의 햇빛으로 넘쳐나는 푸른 전야
올해는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신 뜻깊은 해이니
농사를 더 잘 지어 풍작을 거두자고
자애넘친 축복을 보내주시는듯

가슴이 절로 후터워오는구나
오로지 우리 인민들이 잘살 날을 앞당겨주시려
세월의 찬눈비를 다 맞으시며
이 나라 들길을 씩없이 걷고걸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와서
깊어지는 생각에 눈시울이 젖어오는구나

이 벌의 그 어느 포전 어느 논머리에도
애국애민의 기록한 그 자욱이 새겨져있나니
실하게 키운 모 한대한대가 더없이 소중하고
벌가득 옮겨심는 모 한포기한포기에도
더욱 간절한 소원을 실어보는 류다른 봄이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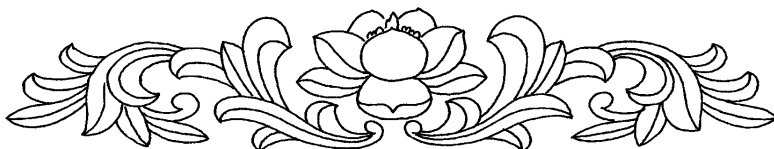
아, 올해농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평생념원을 더욱 활짝 꽃피울
가장 숭고한 애국투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을
풍요한 오평백파로 주렁지워
10월의 대축전장에 풍작의 기쁨안고 들어설
가장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이 가까이 보이는
이 포전 이 전야에
땅이 꺼지도록 금나락을 가꾸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애국농민된 책임을 다했다 하랴
태양의 축복넘친 이 땅 이 벌에서부터
행복의 금파만경 온 나라에 펼쳐지려니

종다리도 해종일 하늘가에 우짖는
이 좋은 봄날
푸른 벌 푸른 이랑이랑에
정성을 심네 사랑을 심네
번영하는 우리 조국 쌀로써 받들어갈
애국충정의 한마음 수놓아가네

아, 봄의 훈향 가득찬 태양성지에
가을날의 이삭향기 끝없이 넘쳐나도록
만풍을 안아올 오직 한생각
누구나 이 간절한 소원을 심는
내 나라 사회주의대지우엔 풍년나락 설레리라
세세년년 황금벌의 새 력사 펼쳐지리라!

—대성협동농장 포전에서—



우리의 권승광장

문 동 식

전승의 그날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
광장의 높은 단상위에 서계시였다
불구름 가셔낸 맑은 하늘 푸른 대지
해빛같은 미소로 가득 채우시며

그이를 우러러
숲처럼 설레이던 영광의 군기들
미제의 항복서를 통쾌하게 밟으며
지축을 울리던 금별의 강철대오...
승리의 함성높은 조국의 하늘엔
축포의 꽃보라 피어올랐다

만세! 만세!...
미제와 야합한 침략의 때무리들
끝내 조선앞에 두손들고 굴복한
위대한 전승 만세 만세 만만세!

그 환호성은
탁월한 수령의 화살표따라
미제의 정수리에 불벼락치던
근위사단의 용맹한 장병들
그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드리는
영광 영광의 환호성이었다

만세! 만세!
위대한 전승 만세!
포악한 양키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만만세!

그 환호성은 전쟁 3년간
기대앞에 발머리에 함께 계신 수령님
그이의 믿음안고 우리 조선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온 누리에 떨쳐갈
천만군민의 필승의 신념
불타는 충정의 분출이었다

금별의 근위대오 파도치던 7.27
그날의 환호성이 오늘은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원수님 이끄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폭풍같은 함성으로
온 행성을 진감하고있거니

오, **김일성**광장
가없이 맑고 푸른 창공으로
백화만발하는 광활한 대지로
끝없이 펼쳐지는 전승의 이 광장은
희세의 천출위인 우리의 수령님들과 원수님
그분들이 행성우에 떨쳐가시는
승리의 광장이여라

천하제일명장 백두산아 외 1편

오 정 로

백두의 령장
우리 원수님 오르시자
눈이 부신 해돋이노을
새날을 펼치며 솟아오르는
백두산마루

그이 발밑엔
노을에 물든 백설도 꽃주단인듯
천리수해도 황홀경을 펼치며 받들어올린
백두산마루

한손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거머쥐시고

취락퍼락하시는
그이의 기상이 비껴내리고
내 나라를 세계우에 강국으로 안아올리시며
천만식솔 마지막 한사람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이의 뜨거운 정이
강렬한 봄빛으로 흘러내리는가

아, 백두산
일제백만대군의 허리를 꺾고
저 골짜기 눈속에 처박은
우리 수령님모습으로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원썩들을 쳐갈기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우리 원수님 오르신 백두산마루
이 지구우에서 제국주의운명에 끝장을 낼
최후승리의 환호성을 터쳐올릴 단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솟아있어
인민의 환희는 뚫어라

아아,
천하제일명산에
천하제일 명장들을 모시니
우주만방에 백두산아
명산의 그 모습을 네가 높이 떨치고있구나

영생의 품

멀고 험한 길
달려오시여
용사묘의 돌사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고

쏟아지는 눈물
견잡지 못하시며
안고오신 꽃송이
대돌앞에 정히 놓으시는
우리 원수님

조국의 바다를 지켜 최후를 마친 용사들
그들의 희생을 두고 잠 못이룰 부모들
기다리는 안해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내린다고
용사묘를 세워주시었거니

아, 신화에 있었거나
전설에 있었거나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결을 떠났다고
잠을 못이루시고
끼니도 번지시며
자신을 바치신 그이

백만년 세월이 가도
끓고 끝끝한 그 모습으로
세월의 풍상도 흐트리지 못하게

돌사진속에 생전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아세워
주시고

보고싶으시여
천리길 달려오시여
그렇게 뵈고싶어하던
그 소원도 다 풀어주시고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존함도 새기도록 하시여
용사들의 영생을 지켜주시는 원수님

어뢰정으로 적함을 까부신
영웅들도 아니다
원수님 안겨주신 믿음을 안고
마지막까지 초소를 지킨 평범했던 전사들
영광의 언덕우에 세워주시는
원수님 품은 영생의 품

그 품에 안겨
조국을 위해 바친 생엔 죽음이 없다
수많은 병사들
인민들이 찾아오는 용사묘
여기서 그 용사들이 아름다운 생의
큰걸음을 내디디고있다

환 호 성

—전승경축열병대오에서 부른 전쟁로병의 노래—

남 경 환

전승의 그날 포연에 절은 군복을 입고
총창을 비껴들고
전승열병광장에 섰던 우리
만세의 환호를 터치노라
김정은원수님 우리러

폭풍치는 감격의 환호에

전승의 그날 **김일성**대원수님
손들어 답례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운**원수님
손들어 답례하시여라

어느해 진군절 열병광장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축하해주시던 **김정일**대원수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태양의 미소를 보내주시여라

한생의 행복이 이 순간에 있었던가
행복이란 이렇게 목메여
무아경에 휩싸이는 감격의 최절정인가
행복이란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데 있는가

전화의 날처럼 군모를 주시고
전화의 날처럼 군복을 주시고
전화의 날처럼 풀색견장을 주시여
귀밀머리에 흰서리 날리는 우리를
위대한 년대의 병사로
전승경축열병광장에 세워주신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목메이노라 솟구치는 격정이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
꿈인가 생시인가
인생 80에 군복을 입고 위대한 년대의 병사로
원수님앞에 섰으니

자애로운 사랑속에
우리 전쟁로병들
청춘을 되찾은듯
만세의 환호성 더욱 높아라
그 사랑 없다면
백발은 세월이 준 흰서리로만 느껴지리

전쟁로병 이 부름은
명예도 칭호도 직위도 아니여라
그것은 수령결사옹위에 바쳐진
가슴에 끓는 피
이 피가 식을 때 삶도 끝나거니
머리의 흰서리로 하여 받는 나이대접
눈길을 모으는 인생이라면
우리 머리를 들지 말자

우리 전화의 날 가슴에 끓는 피로
수령님께 충정을 다집했노니
세월이 흐르고 세기는 바뀌었어도
그날의 끓는 피를 가슴에 안고
원수님 우러러 목메이노라

오는 세월 가는 세월도 다 막을수 없었던
흰서리 백발을 전쟁로병들의 가슴속 끓는 피로
헤아려주신 아, 우리 원수님
그 크나큰 사랑 은정을 떠나선
전쟁로병도 없다

우리 꼭 박아쓴 군모밑에
흰서리 백발이 날리고
몸은 비록 늙었어도
위대한 년대의 심장에 변함없노라

오, 하늘땅에 차넘치는 만세의 환호성
우리 전쟁로병들에겐 여생이 따로 없노라
몇백번 다시 죽는대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전사로
가렬한 불속
그 어떤 역경도 헤쳐가려니

우리는 **김정은**원수님밖에 모르는 그이의 전사
우리 앞길엔
김정은결사옹위 이 한길밖에 없다
이것이 위대한 년대의 신념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가슴에서
노도치는 만세의 환호성

세계가 우러르며 목메이는
전승경축열병광장에
우리모두의 최고의 영광, 최대의 행복이 있노라
세계가 우러르며 따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민족최대의 환호를
우리 전쟁로병들은 폐부로 심장으로 체험했노라
넋으로 신념으로 온몸에 지녔노라

세계적명장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예지
어느 명장도 흉내낼수 없는 비반복적인 작전
미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담대한 배짱
오, 천하제일명장 불세출의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조선의 영광 조선의 행복
하늘땅에 차넘치는 전승경축열병광장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환호성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김 리 돈

총신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도록 파발총을 휘두르고나니 가슴이 다 후련했다. 소탕해버린것들이 미제침략군들이어서 더 그런것 같았다.

송사리같은 잘디잔 고기만 건져내던 낚시군이 팔뚝만 한 메기나 잉어를 낚아낸 기분이랄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남으로 진격하면서 여러 지역을 해방하는 크고작은 전투들을 여러번 치르었지만 이 무명고지에서처럼 미제침략군들을 도리깨로 콩마당질하듯 두들겨패보기는 처음이었다.

투망을 뒤집어쓴 고기떼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우던 놈들은 거의다 튀치고 살아남은것들은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화물차를 타고 줄행랑을 놓았다. 그야말로 통쾌한 공격전투였다.

나무우듬지들에 올라앉았던 저녁해빛도 걷히고 황혼이 비껴무렵 매캐한 흙먼지와 포연이 범벅이 되어 떠도는 고지에 집합나팔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질 때 머리를 들며 먼지를 털어버렸다.

승리한 고지에서 울리는 통쾌한 나팔소리는 남해 끝까지 어서 진격하자고 웨치는것 같았지만 그 나팔소리를 듣는 나의 마음은 그닥 성수가 나지 않았다. 미제침략군들을 몇놈 요정내기는 했지만 그 수가 몇 되지 않았던것이다. 사실 이번 싸움에서 한번 본때를 보여 신대원소리를 듣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나섰는데 그럭저럭 일반전투원의 뚝이나 하였을뿐이었다. 모든 신대원들이 다 그러하듯 나도 신대원소리를 듣는것이 여간만 싫지 않았다.

그 《불명예스러운 골짜기》에서 빨리 빠져나오

려면 맞다는 전투마다에서 구대원들도 허를 찔 위훈을 세워야겠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신대원이 싸움판에 나서면 인차 구대원이 된다는 말은 틀림없이 위훈을 세울 기회가 수두룩하기때문 일것이다.

미군놈들을 통쾌하게 족쳤지만 좋은 기회를 또 놓쳤구나 하는 아쉬움으로 하여 나는 여간만 서운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겁이 없던 나는 중학시절에는 고난같은것을 우습게 보는 야심만만한 기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고 이름을 떨칠 기회라면 생명을 내대는것도 마다하지 않을 혈기에 넘쳐있었다. 털어놓고 말해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도 또 기회를 놓친것이다. 락동강이 이제는 멀지 않은데 이리다 전쟁이 끝나면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것만 같았다....

이러루한 생각을 좇던 내가 입맛을 다시며 뒤집어썼던 흙먼지를 활활 털고 일어설 때였다. 나에게서 장바 한기장쯤 떨어진 왼쪽전호터에 가로세로 너부러져있던 시체들중에서 하나가 대가리를 쳐 들고 사방을 휘둘러보는것이 아닌가. 혼비백산하여 까무라쳤든지, 아니면 죽은체 하고 너부러져있든지 어쨌든 숨이 붙어있는 놈이었다. 수색을 예견하고 죽은체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른것 같으니 들구뽀자고 하는 놈행이일수도 있다.

나의 눈에서는 금시 불씨가 일었다.

총을 피나들고 갈겨치우려던 나는 피땀 생각되

는바가 있어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장교놈 같았다. 대뜸 생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은 널뛰듯 했다.

하늘을 썰던 색색기소리도 뜨옴해지고 한바탕 처절한 격전이 휩쓸고 지나간 고지에는 때아닌 정적만 깃들어있었다.

미군장교놈은 자기를 가로타고 자빠진 시체를 밀어내더니 하늘을 향해 십자를 긋고나서 살금살금 산밑으로 기어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따발총을 꼬나들고 장교놈의 뒤를 따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포할 결심이였다. 장교놈은 시체더미를 벗어나자 사냥군의 총소리에 놀란 메돼지처럼 허겁지겁 달려내려가더니 도로 한옆에 구겨박혀있는 군용차에 올라탔다. 성한 차들은 도망치는 놈들이 타고 달아났으니 남아있는것은 파괴된것들 뿐이라 나는 이놈아, 파괴된 차를 타선 도대체 뭘 하자는거야, 이 빌어먹을 노랑대가리야 하고 여유작작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르릉— 하고 군용차의 발동이 걸리는것이 아닌가.

야, 이것 봐라.

그제야 나는 와플 놀라 혈레벌떡 달려내려가며 《스톱, 스톱!》하고 소리쳤다. 총을 내들었으나 기어코 생포할 생각으로 불질은 하지 않았다. 장교놈은 탄알이 없는것이라고 짐작했는지, 아니면 구사일생을 바랐는지 냅다 차를 몰았다. 내가 아무리 죽기내기로 달려갔지만 죽을등살등 모르고 내뺄는 군용차의 속도를 당해낼수는 없었다. 하는 수없이 나는 차바퀴를 향해 갈겼다. 장교놈은 권총을 뽑아들고 맞총질까지 해대며 미친듯이 차를 몰았다. 어쩔수없이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멀어져가던 차가 방향을 돌려 다시 나한테로 가까이 오는것이다.

나는 주춤했다. 저놈이 정신이 쏙 빠졌는가. 내뺄다가 어쩌서 돌아오는거야?... 어리둥절한 속에 뒤쫓무니만 보이던 차가 옆이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정면으로 마주오는것이 보였다.

아하... 비로소 나는 신작로가 논밭들을 가운데 두고 조롱박처럼 휘우듬하니 돌아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눈여겨보니 나는 조롱박의 잘룩한 지점에 있었다. 군용차는 콤파스가 제자리로 돌아오듯 내가 서있는 곳으로 달려오고있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거기에서 제놈들이 도망친 길로 빠지는 길이 갈라져나갔던것이다.

나는 다짜고짜 발고랑을 날아넘고 논판을 꺾지르며 달렸다. 차가 잘룩한 대목을 지나 남쪽으로 빠지기 전에 가달아야 장교놈을 생포할수 있는것이다. 그놈도 내가 도로에 올라서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기를 쓰고 속도를 높였다.

나의 가슴은 널뛰듯 오르내리고 목구멍에서는 거불내가 확확 솟구쳤다.

드디어 차가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도로에 올라섰다.

《스톱!》

벼락치듯 소리치며 총을 앞으로 꼬나들자 군용차는 먼지를 말아올리며 곤두박히듯 멈춰섰다.

《헨즈 앞!》

장교놈은 손들라는 내 말이 떨어지자 기다리기도 한듯 도로바닥에 권총을 내던지며 제격 손을 쳐들었다. 죽는것보다는 까무라치는것이 낫다고 포로되자고 《결심》한 모양이였다.

내가 도로바닥에서 권총을 집어들고 허리를 펴는데 장교놈이 왼쪽주머니에서 또 한자루의 권총을 뽑아드는것이 아닌가.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나와 그놈의 거리는 불과 5미터 안팎이였다.

《야, 이 양키놈아.》

나는 다짜고짜 방아쇠를 당겼다.

놈은 짹소리도 내뱉지 못하고 비틀대다가 차밖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자빠진 그놈의 대갈통에 한방 더 먹이고 차에 올랐다. 군소비조합 화물차운전사를 하는 외삼촌을 따라다니며 운전기술을 좀 배워서 천천히라도 몰아본것이 천만다행이였다.

잠시 운전칸안을 살펴본 나는 시동을 걸었다. 군용차는 달구지처럼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얼마쯤 가서는 속도를 좀 높여보았다. 아무 일 없었다. 외삼촌이 옆에 앉아서 지켜볼 때에는 겁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흥이 났다.

미군장교놈을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군용차에 권총도 두자루 로획했으니 그게 어딘가.

나는 범잡은 포수처럼 기고만장해졌다. 기분이 뜰대로 떠서 나는 전우들이 기다리며 걱정할것이라는 생각, 어쩌면 나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을것이라는 생각까지도 까맣게 잊고있었다.

이제 내가 개선장군처럼 차를 타고 척 나타나면 얼마나 멋들어지겠는가. 눈앞에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는 전우들의 얼굴이 대견해하는 중대장, 소대장의 얼굴과 번갈아 떠올랐다. 같은또래 신입대원들의 부러워하는 표정도 보이는것만 같았다. 더우기 《팬텀아, 진복이!》하며 내 어깨를 두드릴 분대장의 모습이 오래도록 사라질줄 몰랐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는 분대원들은 물론 소대원들도 나를 얼마나 찾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전우들이 고지에 남아서 나를 찾고있을지 모른다. 빨리 중대를 찾아가야 한다.

나는 속도를 좀 더 높였다.

황혼을 걷어올리며 어둠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통쾌한 남진의 길에 격전의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때였다.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랐던 흙먼지를 구름처럼 말

아울리며 차가 조발 한복판으로 뻗은 도로를 달리는데 난데없이 녀학생복차림의 처녀가 길옆에 서서 손을 들었다.

이건 또 뭐야?!...

분명 차를 세워달라는 눈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차를 세울것인가 말것인가. 도대체 어떤 처녀인데 감히 인민군대가 타고가는 차를 세운단 말인가.

마뜩잖은 눈초리로 처녀를 쏘아보던 나는 처녀앞에서 차를 세웠다.

《어마?!...》

차를 세운 처녀는 나와 군용차에 그려진 허연 별을 번갈아보며 어쩔줄 몰라했다. 차는 미군군용차인데 인민군대가 타고있으니 왜 놀라지 않겠는가.

이목구비가 단아해보이는 처녀는 때에 어울리지 않게 칼날처럼 주름을 세운 까만 치마에 검은 머리를 두른 하얀 반소매학생복을 입고있었다. 껍질 벗긴 닭알같은 살결은 까마반지르한 단발머리로 하여 더 하얗게 보였다. 손도 치마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말겠다. 땀시나는 하얀 운동화에서는 치분가루가 팔팔 날릴것 같았다. 그 어디에서도 전쟁의 거치른 자취를 찾아볼수 없었다. 호의호식하면서 자란 부자집 귀공녀가 틀림없었다. 나이는 내포래같아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뭐야?》

거치른 반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무엇이 못미더운지 처녀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차를 세웠는가 말지요?》

다시 따져묻자 겁이 나는지 처녀는 뒤로 한걸음, 두걸음 물러섰다.

《그 자리에 섰!》

내가 탁 소리가 나게 총탁을 치자 처녀는 질겁하여 오뚝 섰다. 당장 총알이 날아올것 같은지 눈알이 콧끝해졌다.

《저... 사실은 며칠전에 해방된 삼촌네 집으로 피난갔다가 우리 마을도 해방되었다기에 집으로...》

그래서 돌아오는 길인데 어두워오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차를 세운것이라고 짐작되었다. 어리둥절한것은 미군차를 인민군전사가 타고있기때문이었다.

《집이 어디요?》

공연히 우뚝했다는 생각이 들어 어성을 낮추었다.

《읍읍니다.》

거치른 시선으로 처녀의 아래우를 훑던 나는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빨리 올라타라고 재촉했다.

차에 오른 처녀는 뒤좌석으로 가려고 했다.

나는 어떤 처녀인지도 모르는 그를 뒤에 태울수 없어 옆자리에 앉았다.

차가 자리를 뜨자 나는 우쭐하여 곧 《심문》을 시작했다. 읍에서 오래 살았는가,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느 학교 몇학년인가?...

처녀는 나를 할것 처다보고는 고개를 외로 틀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애티나는 평범한 병사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있기에 누굴 떠보자고 하는가 하는 눈치였다. 보아하니 교만한 처녀같았다. 나는 여간만 속이 요글요글 살아오르지 않았다.

《거기서두 미제침략군놈들을 증오하는가?》

동무라는 말이 나가지 않아 이렇게 걸어채자 처녀는 금시 눈살이 콧웃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하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제놈들을 미워하니까, 무조건.》

고개를 외로 틀고있던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피-》하고 내 말에 코웃음쳤다.

속이 발끈 뒤집혔으나 순간 나에게는 조리없이 너무 제 생각만 앞세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격 뒤를 달았다.

《이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사람들에게 불행만 강요하는 미국놈들을 우린 무조건 증오해야 한단 말이요, 무조건.》

처녀는 무불통달한 박사를 대하듯 경탄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억지에 공감이가는 모양이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교만한 처녀를 놀려놓고나니 요글요글하던 가슴이 좀 내려앉는것 같았다. 이래저래 기분이 떠서 처녀의 자태를 훑음훑음 결눈질해보던 나의 눈은 그의 새하얀 운동화에 못박혔다. 논판을 껴지르느라 감탕매탁질이 된 나의 신발과 운동화에 하얗게 치분가루를 바른 처녀의 신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나는 진감탕이 계발린 신발을 차의 가속답판에서 떼며 탕탕 털었다. 똥은 감탕은 사방으로 튀어났다. 아닐세라 처녀의 새하얀 운동화에 감탕이 튀었다. 처녀는 기겁하여 발을 오무라뜨렸다.

킵- 웃음이 나가는것을 겨우 참으며 나는 탄전을 부렸다. 하지만 심술을 부리고나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름이 뭐요?》

《유진복...》

나를 치떠본 처녀는 공손히 대답했다.

《뭐라구? 유진복?!...》

나의 눈은 저도 모르게 둥그래졌다.

《빌어먹을... 진복이란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제김에 우뚝거리는 나를 알수 없는듯 처녀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참 진자에 복 복자인가?》

《네.》

여전히 처녀는 영문을 몰라하는 눈빛이었다.

《제기랄, 이름을 고치던가 하구 말아야지...》
《예?》

《그저 나 혼자 해본 소리요.》

차가 다리란간을 들이받을번 하자 나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특식을 곱배기로 제긴 나는 잔치날에 큰상을 받은 기분으로 식당앞 버들방천에 앉아 있었다.

그때 《중대모였!》하는 구령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식사를 끝낸 우리모두는 천막옆 공지에 정렬하였다. 중대장은 하루전투를 간단히 총화하였다. 그는 미군장교놈을 요정내고 군용차와 권총 두 자루 그리고 수류탄 세알을 로획한 나를 칭찬하고 나서 대렬 3보앞으로 불러냈다. 감사를 주려는것이 분명했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호기있게 걸어나갔다.

그런데 중대장은 규률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신랄히 지적하더니 주의를 환기시키고 취사근무를 도와줄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결국 처벌이었다.

기가 막혔다. 속이 울근불근하여 고개를 돌렸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는 처벌을 준다는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오만상을 찌프리고 천막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연추라도 매단듯 무거웠다. 흥이 나서 부풀었던 가슴이 물먹은 토마처럼 폭 꺼져내렸다.

나는 시들머들하여 천막옆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비등점으로 치달아올랐던 기분은 일약 빙점으로 곤두박질하였다. 며칠동안 취사복을 입고 취사병의 잔소리를 들으며 구질거릴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내가 썩은 콩을 씹은 표정을 해가지고 먼산만 바라보는데 분대장이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를 힐끔 쳐다본 나는 귀찮은듯 일부러 뺄 돌아서기까지 했다.

《처벌이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구만. 진복인 신대원패를 벗으려면 아직 멀었어.》

분대장의 말에 속이 울근불근했으나 뱀뱀이할수는 없어 꺾 참았다. 다른 전우들은 몰라도 분대장만은 기뻐하며 칭찬해주리라 믿었는데 그한테서까지 아직 멀었다는 말을 듣고보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것 같았다.

《우리 인민군대 규률은 미군장교 100놈이나 군용차 100대하구 바꿀수 없는거요.》

이렇게 말하며 분대장이 천막안으로 들어가자고 등을 떠밀었으나 나는 휙 돌아서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럼 눈앞에서 미군장교놈이 도망치는것을 보구 가만있어야 합니까?》

나는 참을수 없었다.

《갈겨치우고 제각 돌아서야지.》하고 말한 분대장은 집합나팔소리를 듣고도 장교놈을 따라간것은

내가 그놈을 앞세우고 《보무당당히》, 《위신있게》 중대에 나타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서 나에게서는 우쭐대기 좋아하고 자기를 멋대가리없이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따끔하게 꾸짖었다.

《중대장동지가 처벌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보다 더한 벌을 주려구 했소. 동문 군대가 아닌가?!》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다. 바로 군대이기때문에 미제놈을 더 잡아야 하지 않는가.

《규률은 일상생활에서도 잘 지켜야 하지만 전투마당에서는 더 잘 지켜야 하오. 계획된 작전과 전투가 뒤집힐수도 있단 말이요!》

그때 나는 그 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뽀뽀뽀뽀해도 적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나는 쇠물을 꿰이던 용해공답게 불길처럼 뜨겁고 강철처럼 굳센가 하면 너그럽고 대범한 분대장이 쪼쪼쪼쪼진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버들방천에도 천막에도 어둠이 짙 실렸다.

모기떼가 제 세상을 만난듯 사정없이 달려들었다. 해종일 쏟아지는 불벌에 시달리던 나무이파리들이 기지개를 켜는지 한줄기 바람이 불어왔으나 그것은 오히려 더운 기운만 끼얹을뿐 더위를 가셔주지는 못했다.

문득 나에게서는 언제인가 분대장을 처음 만나보던때의 일이 떠올랐다.

...신대원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받아온 날이었다. 우리 중대에서는 중대민청위원장인 분대장이 신대원들을 인솔해가려고 왔었다. 흰칠한 키에 기둥같은 목대와 참나무목침같은 어깨 그리고 복두칼구리같은 큼직한 손, 게다가 주먹같은 코와 부리부리한 눈은 마주서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로 위압감을 주었다. 그런데 그 우등통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목소리는 가늘었다.

《이름이 뭐요?》

분대장은 빙시빙시 웃으며 오래간만에 만난 귀여운 동생을 대하듯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쇠절구공이를 올려놓는것 같았다.

《옛, 전사 마진복.》

그한테 비하면 나는 손마디가 말랑말랑한 책상물림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 나이포레들속에서는 단단한 축으로 꺾히던지라 웃음을 꺾 퍼며 힘차게 대답했다.

《마진복?! 허어, 이것 봐라... 우리 딸애 이름두 진복인데... 참 진자에 복 복자겠지?》

《그렇습니다.》

《동무, 사내가 맞긴 맞아?》

《내가 어째서요. 난 학교에서 손꼽히는 씨름선수였습니다.》

《허어, 모를 소리다...》

《하긴 나두 아버지한테 찍하면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처녀애이름을 지어주었다구...》

《그러니까?...》

《여느날엔 그저 웃어넘기곤 하던 아버지가 내
가 군대 나을 땐 〈야, 진복아, 사내대장부답게 잘
싸우고 돌아오너라. 그때 네 이름을 고쳐짓자.〉
하더군요.》

《고쳐짓긴 왜 고쳐지어, 이름이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 딸은 겨우 다섯살이라고 했다.

《그건 그렇구... 군대엔 왜 나왔소?》

너무도 뻔한 물음에 그가 앞잡아보는것 같은 생
각이 든 나는 같이 어기대고싶어졌다.

《훈장을 타러 나왔습니다. 훈장이 없으면 처녀
들이 싫어한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땀보다 피를 흘리는것이
더 땀뻑하여 전선에 나온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만 훈장을 타고 영웅이 되고싶은 욕망도 그에 못지
않은것이 사실이었던것이다.

《누가 훈장을 주겠대?》

흥미가 동하는지 분대장은 웃으며 이죽거렸다.

《위훈을 세우는데두 안 줘니까?》

《숨주머니가 왔다갔다하는 싸움판에서 위훈 세
우기가 험치 않아.》

여전히 나를 헛병아리로 보는 말투였다.

《죽기를 각오하구 싸우면 위훈을 세울수 있다고
서는 생각합니다.》

《팬찮아. 진복이, 함께 싸우자구.》

이렇게 나는 그의 분대 막명이병사가 되었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분대장에게서 사랑도 사
랑이지만 귀한 자식 매로 키우려는 그의 《매》를
견디어내야 했었다....

처벌취사근무는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읍을 해
방시킨 우리는 여기서 차후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중대식당은 읍에서 좀 떨어진 버들방천에 자리
잡고있었다.

어둑새벽부터 나는 분주탕을 피웠다. 말이 많은
아낙네처럼 잔소리군인 취사병은 설새없이 나를 들
볶아댔다. 나는 연기와 증기가 떠도는 취사장안
에서 땀이돌듯 돌아갔다.

그렇게 아침식사를 보장하고 설것이를 하는데 방
축쪽아래전에서 난데없이 여자들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점점 크게 들려왔다. 밖으로 나가보니 세명
의 처녀들이 취사장을 향해 곧바로 걸어오는것이
아닌가. 나는 엉겁결에 허연 위생모자를 벗어 구겨
쥐었다. 처녀들에게 취사복을 걸친 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것이다. 뒤잔등에 맨 끈을 풀려고 애쓰
는데 처녀들이 어느새 나를 둘러쌌다.

《어마나!》

한 처녀가 손바닥을 마주쳤다. 목소리가 귀에 익
어서 자세히 보니 공교롭게도 어제 차를 태워주었
던 유진복이었다. 하필이면 내가 취사복을 입었을
때 나타날건 뭐란 말인가. 어제 차를 타고오면서
으시대던 나와 물물은 손을 위생복자락에 묻다지는
나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

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어제 만났던 진복동무로구만요.》

여간만 창피스럽지 않았으나 나는 선손을 썼다.
구겨쥐었던 위생모자를 도로 쓴 나는 취사군무를
자발적으로 맡아나섰다는것, 인민군대에서는 취사
군무도 전투와 같다는것, 내가 지은 밥이 처녀들
이 지은 밥보다 더 맛이 있다는 등 생각나는대로
주어설했다.

처녀들은 깔깔거리며 내 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길 다?...》

나는 처녀들에게 의문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세 처녀는 두어말쯤 되게 이고온 낯알자루들을
내려놓으며 보리쌀인데 잡수어보라는것이였다. 반
지 않으려고 몇번이나 사양했으나 처녀들은 막무가
내였다. 흰쌀밥 못지 않다는것이였다. 자기네 고장
을 해방시켜준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소박한 고마
움의 표시였다. 멀어져가는 세 처녀를 바라보는 나
의 마음은 전에없이 파스해졌다.

그런데 춤추듯 달려가던 유진복이가 얼마쯤 가다
가 돌파서는것이 아닌가.

나는 영문을 몰라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어제 삼촌네 집에서 올 때 가지고온 약을 가
져왔어요.》

유진복은 숙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종이봉투를 끄
집어내서 내밀었다.

《약? 무슨 약인데?...》

《풋심에 먹는 약이에요. 요새 여기서선 풋심을 앓
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풋심?... 그게 무슨 병인데?...》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이름이어서 어리둥절
해졌다. 처녀는 그런 병도 모르느냐는듯 눈을 동그
랏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뒤따라온 두 처녀가
모기가 성할 때 앓는 병이라고 해서야 나는 풋심이
란 병이 말라리아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 처
녀가 가져온 약은 금계랍일것이다. 모기가 성한 때
이니 인민군병사들도 말라리아를 앓을수 있을것이
라고 걱정이 되어 가져온것이였다.

《고맙지만 도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군의소엔
약이 많습니다.》

당장 말라리아를 앓는 사람도 없거니와 지휘관들
이 말끝마다 강조하는것이 주둔지역 인민들에게 사
소한 부담도 끼쳐선 안된다는것인데 약을 어떻게
받는단 말인가.

세 처녀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처녀들의 기특한 마음과 발랄한 생기는 취사장안
에 서려있는 증기처럼 흐리터분하던 나의 기분을
말짱 가셔주었다.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고평치고
있는가. 불태우고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는것만이
전쟁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도 모르
게 부풀어올랐다. 전쟁마당에서도 불모의 땅을 적
시는 생명수와도 같은 맑고 그윽한것이 맥맥히 흐

르고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 사이에, 전우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이었다.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자라는 곳이 전쟁이다. 하기에 우리 전사들은 증오를 끓이면서도 사랑을 한껏 떠올리고있지 않는가.

바로 그날 밤 내가 다음날 찬거리를 준비하고있을 때 분대장이 불쑥 취사장으로 들어왔다.

《진복동무, 수고하누만.》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찾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눅이 들지 않았나 걱정되어 온것 같았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 나왔습니까?》

나는 물을 한식기 떠주며 입을 열었다. 말투가 온순지 못했다.

히죽이 웃으며 물그릇을 받아드는 분대장의 손은 어째서인지 경결불처럼 뜨거웠다.

《아직두 속이 내려가지 않았소? 그렇다면 좋아. 나와 함께 취사근무를 서자구.》

이렇게 말한 분대장은 국거리를 써는 나와 마주 앉았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해방후 어느해인가 호박꽃피는 여름이었다. 나에게 5살 터울인 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반디불을 잡아달라고 졸랐다. 나는 그것을 잡아서 호박꽃을 따가지고 그속에 넣어주곤 하였다. 동생이 초롱불같은 호박꽃을 휘저으며 기뻐하는걸 보는데 성수가 난 나는 제 집 호박꽃이 동이 나자 앞집 옆집 할것없이 연방 손을 댔다.

다음날 아침 열매가 맺힌 호박꽃을 따다고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

엄한 아버지는 내 바지를 걷어올리게 한 다음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다. 그러고나서는 호박꽃을 판 집집에 돌아다니며 잘못을 빌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입을 삐죽 내밀고 고개를 외로 꼬자 아버지는 다시금 회초리를 쳐들었다.

어머니가 다급히 다가와서 아버지를 막아서며 자기가 잘못을 빌겠으니 같이 다니기만 하라고 내 손목을 끌었다. 그때 내 생각은 호박꽃이야 또 피겠는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빌기까지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목을 꼭 잡고 호박꽃을 판 집집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아들과양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빌었다....

지금 나와 마주앉아 국거리를 써는 분대장의 모습이야말로 그때 잘못을 빌던 어머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가슴이 찢렸지만 나는 애써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분대장의 얼굴은 속에서 무엇이 활활 타는것처럼 지지벌겔다. 목소리도 갈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다 끓는 물주전자에서 단김이 뿜어나오듯 더운 숨

이 새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말라리아에 걸린것이 틀림없었다.

《분대장동지, 뭇심에 걸렸군요.》

《뭇심?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설명을 하자 분대장은 딱 잡아땀다. 하지만 분대장은 다음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식당에 오지 않았다. 식찬을 특별히 해가지고 천막에 찾아갔으나 고작 서너숟가락도 뜨지 않고 밥그릇을 밀어놓곤 했다. 대대군의가 와서 진찰도 하고 금제 람을 먹였지만 병을 길러서 그런지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몸이 우람지고 박달나무처럼 튼튼하던 분대장이 말라리아에 걸린것은 몸이 약해진탓이라고 생각되었다. 뭉니뭉니해도 몸을 추세워야 할것이다. 그런데 고기라면 네발가진 짐승이건 두발가진 짐승이건 입에 대지 않으니 무엇으로 몸을 추세운단 말인가.

문득 나의 머리에는 전번 전투를 위해 강을 건널 때 다리밑으로 떠다니는 물고기를 내려다보며 하던 분대장의 말이 살아올랐다. 투망이 있으면 저것들을 건져 고추가루를 듬뿍 쳐서 얼벌벌하게 생선국을 끓여먹었으면 그저 그만일것이라고 했던것이다. 옳다, 생선국이다. 나는 환성을 질렀다.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밤새껏 궁식거리며 궁리를 짜보던 다음날 나는 점심식사를 끝내고 취사장을 나섰다. 읍변두리에 있는 집에서 그물을 빌린 나는 역빠르게 생긴 녀석 셋을 달고 그들이 고기가 많다는 늪을 향해 방축길을 걸어갔다.

《인민군대아저씨, 저기에 수류탄이...》

오줌을 싸려고 하던 녀석이 겁에 질려 달려오며 소리쳤다.

수류탄? 이게 웬 떡이야?!

가보니 정말 풀숲에 미국제수류탄이 두개 있었다. 도망치던 놈들이 흘렸거나 아니면 짐스러우니까 내버린 모양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수류탄이 있으면 큰고기를 잡겠는데 하고 아쉬워하던 나는 무릎을 쳤다.

얼른 수류탄을 바깥쓰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풀을 뜯어서 덮었다. 나의 입에서는 흥얼흥얼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논두렁에 납작 엎드리게 한 나는 고기가 많다는 늪 한가운데 수류탄을 터뜨렸다. 한데 떠오른것은 잔고기들뿐이고 큰것들은 한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또 한알 던졌다.

《팡!》

한동안이 지나 희뜩희뜩 큰 고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반두로 큰 고기건 작은 고기건 모조리 건졌다. 잠간사이에 바깥쓰가 무뎠해졌다. 물고기들이 그냥 떠올랐으나 나는 지체없이 조무래기들에게 《칠수명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바깥쓰의

물고기를 절반나마 덜어줘서 보냈다.

물고기바게뜨를 들고 돌아오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봄바람이 회오리치고있었다. 마치도 부모들이 기뻐할 크나큰 자랑을 안고 집으로 달려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경중경중 뛰다싶이 하며 취사장에 들어섰다.

《진복이, 너네 분대장이 여간만 뿔이 나지 않았더라.》

취사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말이였다. 분대장이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왔했다는 것이였다.

어지간히 짐작도 하고 각오도 하고있던차라 꿈만 했다.

나는 위생복도 입을 새 없이 제일 큰놈부터 골라가며 뺨을 따서 볶을것은 꼬득꼬득하게 볶고 끓일것은 따로 고추가루를 듬뿍 쳐서 얼벌벌하게 국을 끓였다. 싸움마당에서 보기 드문 특식이였다.

분대장은 세번째 천막에 혼자 있었다.

《분대장동지, 이걸 좀 잡수어보십시오.》

대패질도 하지 않고 만들어놓은 립상크기만 한 탁을 머리맡에 바싹 붙여놓은 나는 그우에 생선국 쟁개비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분대장은 눈을 질끈 감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분대장동지, 분대장동지.》

몹시 성이 난듯 분대장은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나는 여간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다. 이미 었지른 물이니 맛 받아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대장동지, 수류탄으로 물고기를 잡은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류탄은 놈들이 방축에 내버린걸 주운겁니다. 풀숲에서...》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분대장은 눈을 번쩍떴다. 불달린 도화선처럼 불꽃이 튀는 그의 거치른 시선이 나의 온 몸뚱이를 휘감았다. 그 눈길을 이겨낼수 없어 나는 고개를 푹 꺾었다.

내 얼굴에 맞구멍이라도 낼듯이 쏘아보던 그는 아던정보던정없이 다그어냈다.

《진복이, 동무 조선인민군 전사가 맞긴 맞아? 이걸 싸움판에 나선 병사가 아니라 봄뜰에 놓여난 망아지같은 말이야, 망아지.》

불씨가 펴릴 날리는 눈길에 비해 언성은 높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총알처럼 날아와 박혔다. 인민군전사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미국놈을 잡아야 할 수류탄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병사의 자격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가 수류탄으로 물고기를 잡는것을 보면 인민들이 뭐라고 할것 같애. 응? 진복이, 이런걸 왜 생각 못해?》

몹시 속이 타는듯 분대장은 부르짖고있던 주먹으

로 탁자를 내리쳤다. 양념종지가 한뼘이나 튀어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쏟아지고 쟁개당소리를 내며 생선국 쟁개비뚜껑도 미끄러져 땅바닥에 떨어졌다.

잠시 살이 내릴것 같은 침묵이 가슴을 얼어붙이였다.

분대장은 한참만에야 말을 이었는데 불을 내소는것 같았다.

동문 물속에 수류탄을 던진것이 아니라 이 고장 인민들의 마음속에 수류탄을 던졌으며 물고기를 건져낸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뽑아던졌다고 여간 격분해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나는 적소리도 못하고 마른침만 삼켰다. 분대장을 위한답시고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으로 온몸이 시서늘해졌다.

《뭘, 풀숲에서 주은 수류탄이라구?... 미국놈 수류탄으로 미국놈을 잡으면 못쓴대?!... 그보다 더 좋은 사냥이 어데 있어.》

분대장의 말이 백번 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겐 야속한감이 없지 않았다. 너무하다는 생각이였다. 이러나저러나 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가. 하지만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불만을 애써 눌렀다. 진실이란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때도 있다더니 지금의 내 경우가 바로 그런것 같았다.

《동문 날 섭섭하게 생각하지?! 그쯤한걸 가지구 너무하다구... 진복이,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라고 해두 그것이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면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거야.》

동문 쥐를 잡으려다 쌀독을 깬단 말이야, 쌀독을...》

역시 분대장은 자기 생각이나 립장에 분칠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지휘관앞에서도 전사들앞에서도 마음을 탁 풀어놓곤 하는 그는 놀랄만큼 개방적이었고 사람들의 뒤소리가 두려워 숨박꼭질도 하지 않았다.

《진복동문 위훈을 세워 이름을 날리겠다는 그걸 극복해야 돼. 동무한테선 그걸 이겨내는것이 제일 큰 위훈이야.》

나는 흠칫했다. 내 속을 면바로 들여다보고 하는 정통을 찌른 말이였다. 이 말은 금강석으로 유리를 깨듯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오래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힘은 팔다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시련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도 했고 전사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생각도 그것이 싸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줄줄도 알았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랬다.

어느 한 도시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전야였는데 그날 날이 밝기 전까지 강을 마주하고있는 고지에

도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별들이 빛을 들보는 한밤중에 출발구령을 받자 나는 신참 줄기차게 앞으로 뛰어갔다. 제일 무거운 본체를 아이들 목마를 태우듯 둘러메고 행군할 야심이 생겼던것이다. 이때저래 앞보는 구대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싶었던것이다.

《비켜, 막생이.》

곰같은 부사수가 내 팔을 움켜쥐었는데 손아귀가 어찌나 센지 팔이 얼었다. 썩대신 닭이라고 이번에는 방열통이 붙어있는 총신을 둘러맸다. 본대에서는 행군할 때 해체한 중기부분품들을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둘러메군 했었다.

그런데 총신이 별로 무거워서 보니 방열통에는 물이 그냥 차있었다. 물을 뽑아버릴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대로 두었다. 한 10리쯤 행군해갔을 때 척후로부터 선자리에서 잠시 휴식하라는 전달이 왔다. 이때 본대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진복동문 물을 뽑을줄 몰라?!》

이렇게 말하며 본대장이 방열통의 물을 뽑으려 하자 나는 다급히 만류했다.

《물을 뽑지 마십시오.》

《왜?》

《언제 싸움이 붙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허어, 팬찮아. 진복동무, 하지만 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뽑아버려두 일없어. 공연히 무겁기만 하지. ...》

본대장은 방열통의 물구멍마개를 틀었다.

《무거우면 내가 또 메겠습니다.》

《역시 팬찮아! 그렇다면 뽑지 말자구.》

본대장은 이렇게 말하며 총신을 저가락 다루듯 둘러맸다. 강행군에서는 눈섭도 무겁다는데 방열통의 물을 뽑지 않고 행군한다는것은 어처구니없는 고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정이 가는 잘못도 있다더니 본대장은 나의 고집을 애착이 가는 고집으로 본 모양이었다. 이렇게 그는 나의 고집을 싸움에 리로운 생각이라고 보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으며 존중해주었다. 힘은 들어도 언제나 전투준비상태에 있으려는 나의 생각을 높이 사주었던것이다. 본대장의 그 이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내 마음속에는 더운 눈물이 고였다.

그날 새벽 본대장은 언제나 전투준비상태에 있는 나의 각성된 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본대장의 감사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감사를 시답지 않게 여겼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

나는 이렇듯 본대장의 지극한 정신적포옹속에 한 걸음한걸음 몸과 마음을 단련해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려깊은 본대장의 마음에 수류탄을 던졌으니 그가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으며 가슴이 아프지 않을수 있겠는가. ...

우리는 다음다음날 저녁무렵부터 남으로 진격을

계속했다. 전투끝에 행군, 행군끝에 또 전투를 하며 피를 흘리고 모기한테 뜯기우는 삼복무더위속에서도 차례차례 남녘땅을 해방하는 기쁨에 기분이 흥 떠서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벌레우는 소리가 비발치듯 하는 참대밭이 우거진 어느 한 마을에 배낭을 풀었다. 짙 짙 하늘높이 뻗어오른 대밭만 아니라면 오랜 전설과 잊혀졌던 민요의 가락들이 숨배여있는 내 고향과 다름없는 시골마을이었다.

우리 본대는 밤에 마을앞으로 흐르는 작은 강을 건너가서 저쪽대안에 도사리고있는 놈들을 제압함으로써 중대가 안전하게 강을 건널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기가 충천했다.

우리 본대는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게딱지같은 집들이 널려있는 크지 않은 골짜기에서 참대로 떼를 무었다. 개인용떼와 중기를 실을 떼였다.

난생처음 참대밭을 보는 나는 하도 신기하여 오래도록 참대나무를 쓸어보고 만져보며 아이들처럼 어쩔줄 몰라했다.

그날 저녁 나는 불에 탄 참대나무토막을 가지고 굵은것으로는 통소를 만들고 가는것으로는 단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노래선율을 떠올리며 한가락 불기 시작하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쿠궁— 쿠궁— 멀고 가까운 곳에서 포소리가 들려왔지만 통소소리는 포소리를 조롱이나 하듯 구성지게 울렸다.

삼시에 전우들이 나를 둘러쌌다. 결전을 앞두고 전사들은 고향을 그러보는지 말없이 통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에게도 어머니 생각이 나는가 하면 소꿉동무들과 함께 연을 띄우던 언덕이 밟혀왔고 배움의 글소리 랑랑하던 학교가 떠올랐다. 파르스름한 형광빛의 반디불을 보자 동생의 얼굴이 눈에 사물사물하기도 했다. 그날따라 반디벌레들이 많이도 날아다녔다.

반디불아 반디불아
너는야 무엇이 보고싶어서
이밤에 불켜고 날아다니니
...

이렇게 시작된 내가 썼던 동요도 생각났다.

동요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풍년이 든 그 넓은 벌을 낮에만 보아서는 다 볼수 없어서 이렇게 등불을 켜들고 밤에도 날아다니고있다는것으로 끝냈었다. 그 동요를 읽어보며 기뻐하던 선생님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랐다. 나에게서는 저 반디벌레들이 종횡무진하며 남녘땅을 해방시키는 인민군병사

들을 낮에만 보아서 다 볼수가 없어서 밤에도 저렇게 불을 켜고 날아다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을 쫓던 나는 문득 불던 통소를 툇 그쳤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해도 어머니는 반디불을 가지고노는 동생을 찾아내곤 했는데 그와 같이 저 반디불들이 우리들에게 그 어떤 도움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캄캄한 밤에 은밀히 행동하는데는 그저 그만일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을 은밀히 넘어가는데 저 반디불을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저녁식사가 끝났을 때 중대장은 어떻게 하면 강을 빠른 시간에 감쪽같이 건너겠는가 하는것들을 좀 생각해보라고 했다.

나는 한 대원을 천막뒤로 끌고가서 조용히 내 생각을 비쳐보았다. 그는 반디불을 가지고 어찌고저 찌고 한다는것이 꼭 아이들이 군사놀이를 하는것 같다고 하면서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분대장은 나의 말을 귀담아듣더니 무릎을 탁 쳤다.

《멋있어. 응? 멋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봉대까지 몽땅 꺼내주었다. 내 개인봉대까지 합쳐 자그마한 포충망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여러문마리의 반디벌레를 《포로》했다....

그날 캄캄칠야에 우리는 강으로 나갔다. 저쪽대안에서는 어림짐작으로 쏘아대는 총질소리도 들리고 이따금 박격포탄이 날아오기도 했다.

우리는 만들어가지고온 9개의 떼를 띄웠다. 중기를 실은 큼직한 떼 1들과 개인용떼 8들이었다. 속이 빈 참대로 무은 떼는 가벼워서 강물에 잘 떠다.

비가 쏟아지려는지 시커먼 먹장구름이 확 내리덮여 날씨는 코앞도 가려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포탄이 터질 때마다 눈을 허비는 화광이 번쩍거리 눈뜬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곤 하였다.

나는 반디벌레들중에서 크고 푹푹한것을 골라 명주실로 허리를 매두었었는데 그것을 분대장의 모자에는 두마리를, 중기를 싣고가는 사수의 모자에는 한마리를 매달아주었다.

《야, 이것 봐라. 마치 애녀석들의 인형을 가지고 노는것 같지 않아?!...》

《이건 올데갈데없는 애들의 군사놀이지. 새빠지게 인형은 또 무슨 말라빠진 인형이야.》

전우들이 씩씩거리며 조심스럽게 킁킁거렸다.

우리는 제가끔 떼에 올라 대통을 질반 갈라서 만든 노를 저으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두마리의 반디벌레를 매단 분대장이 씨엄씨엄 걸어가듯 앞서나갔고 그뒤로 1마리의 반디벌레를 매단 중기사수의 떼가 몇메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섰다. 100여메터의 폭으로 널린 7들의 떼는 그 3개의 반디불을 목표로 노를 저었다. 분대장의 반디불은 그대로 예광판이었고 라침판의 지침이었다.

겹에 질린 놈들은 무질서하게 되는데로 총을 쏘

아됐고 포탄도 날려보냈다.

물기둥이 솟구칠 때마다 한두들의 떼가 뒤집어지곤 했지만 그것은 발딱발딱 일어서곤 하는 오토기처럼 인차 떠오르곤 하였다. 물참봉이 된 우리는 세개의 반디불을 향해 은밀하게 재빨리 노를 저었다....

떼를 띄운지 반시간도 못되어 우리는 낮에 점찍어놓았던 물황철이 두그루 나란히 서있는 지점에 가붙었다. 흩어졌던 우리 분대원들은 한마디 찾고 부르는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분대장을 에워쌌다. 얼마나 은밀했던지 놈들은 우리가 제놈들의 코앞에 바싹 엉치를 붙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먼 총질만 했다. 반디불덕이었다.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는 싸움마당에서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어찌면 동화의 세계에서나 어울릴 반디벌레들이 이렇듯 신기할 정도로 길안내를 하리라고는 나로서도 정말 뜻밖이었다. 반디불이 아니었다면 칠혹같은 어둠속에서 숨소리조차 삼가하면서도 룡상선수가 100메터 직선주로를 달리듯 강을 곧바로 단숨에 건너지 못했을것이다.

놈들은 대안에서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야산에서 불질을 하고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속에 우리는 분대장의 손짓에 따라 지체없이 보병삽으로 개인전호들을 파다.

중기를 설치할 립시좌지를 먼저 만들고 저마끔 제 몸 하나 들어갈 점호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반시간이 지나 중대가 마침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우리는 놈들이 도사리고있는 맞은편 산등성이를 향해 중기를 휘둘렀다. 그러자 강쪽에 불질하던 놈들이 우리쪽에 사격을 개시했다. 홀림남시에 걸려든것이였다. 바로 그것을 기다리던 우리는 맞불질을 해댔다. 든든한 방어시설을 갖추어놓은 놈들을 당장 소멸할수는 없지만 놈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유인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전투임무였다. 그래야 중대가 안전하게 강을 건널수 있는것이다.

그날 우리 중대는 어둑새벽에 맞은편 고지를 별로 힘들이지 않고 타고앉았고 그뒤에 있는 자그만 먼소재지를 해방하였다. 우리 분대에서는 경상자가 2명 낫을뿐 전사한 병사는 없었다. 아니,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분대의 길잡이가 되어 강을 건너온 세마리의 반디벌레가 임무를 수행하고 《희생》된것이였다.

타고앉은 야산기슭에서 아침을 지어먹은 우리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병사들에게 차례지는 한가한 시간이였다.

내가 동백나무에 기대어 분대장에게 통소 부는법을 배워주는데 지나가던 대대장이 우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제3중대 1소대 3분대 전사 마진복.》하

고 경례를 하자 대대장은 《음, 동무가 〈반디불병사〉로구만.》하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는 아침식사는 했는가, 밤에 배가 고프지 않던가 하는 것들을 묻던 대대장은 분대장에게 내가 구대원 인가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대대장동지.》

분대장은 서슴없이 이렇게 큰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분대장의 그 대답이 분대장에게서 받은 감사보다 몇 갑절 더 좋았다. 내가 벌써 무슨 구대원이라만 그 말에는 믿음과 동시에 나를 고무격려하는 그의 사려깊은 마음이 진하게 깔려있었기때문이었다. 그토록 들어보고싶던 말이었으나 정작 당해 놓고보니 한번도 입어본적 없는 웃을 입는 것처럼 어쩐지 몸에도 귀에도 익지 않았다.

비로소 나에게서는 위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전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병사로 준비해가는 그 마음이 바로 위훈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위훈을 세울 기회나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투쟁으로 충만된 생활은 곧 위훈으로 충만된 생활이다....

그날 우리 중대에는 위생병이 새로 배치되어 왔다.

뜻밖에도 유진복이었다. 전번 무명고지전투에서 중대위생병이 전사했던 것이다.

그 처녀와 벌써 세번째로 만나니 이제는 구면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어쩐지 서먹서먹한감만 들었다. 두볼을 태워버릴것 같은 홍조가 피어오르는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색이 아련하고 성정이 가냘프게 보였는데 지금은 속에 차돌이 들어찼는지 여간만 강심이 있어보이지 않았다. 고뇌를 겪어야 보다 아름다와질수 있다더니 아닌게아니라 처녀는 그속에서 불을 간직한 아름다움을 한껏 내뿜기고있었다. 게다가 군복도 군모도 나와 똑같은것을 입고 쓴 유진복은 얼마나 단정하고 맵시가 나는지 탄복할 지경이었다. 애리애리하던 녀학생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여간만 어른스러워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신발도 좀 작을뿐 내 신발과 같았다. 하얀 치분가루가 날리던 그의 운동화에 심술사납게 감탕칠을 해주었던 나는 툭 터놓고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언제 입대했소?》

《한달전에 의용군으로 입대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는걸 떼질을 해서 겨우...》

목소리에서도 전에없이 탄력이 느껴졌다.

《같이 싸웁시다, 진복동무.》

동무라고 불러놓고보니 그 처녀와 한발자국 더 가까와진것 같은 기쁨이 온몸을 휘감았다.

《잘왔소. 진복동무, 사실은 내 이름도 진복이요 마진복, 참 진자에 복 복자.》

《어마나!》

처녀의 흑진주같은 눈이 처음에는 놀라는것 같더니 인차 반가운 빛으로 변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마진복동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처녀의 부드러운 말이 귀가 아니라 내 살결에 와닿는것 같았다.

그로부터 이들이 지나 몸이 근질근질하도록 명령을 학습고대하던 우리는 시퍼런 대낮에 락동강이 멀지 않은 한 작은 고지에서 놈들과 치열한 격전을 벌렸다.

놈들은 깊이 파놓은 전호와 두개의 화점 그리고 상록수가 꼭 들어찬 고지정점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리용하여 완강하게 저항해나섰다.

고지는 삼시에 콩볶듯 하는 총소리와 폭음에 잠겼고 타래치는 연기와 날름거리는 불길에 휩싸였다. 태양도 한더위의 절정에서 허덕이는지 제대로 별을 들보지 못했다. 대기조차 푸른 물이 들게 할것 같던 소담한 나무이파리들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놈들은 왼쪽화점의 경기관총과 오른쪽화점의 중기관총으로 탄막을 세워놓곤 했다. 그러니 맞볼질이나 해가지고는 인츰 고지를 타고앉을것 같지 못했다. 우리는 박격포중대의 지원을 받아 놈들을 초벌 다듬이질을 해놓고 돌격을 했다. 고지뒤에는 무연한 벌이 펼쳐져있어서 설사 도망을 친다 해도 목숨을 부지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놈들은 미친듯이 총질을 해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에는 차라리 총질이라도 실컷 해보다가 죽자는 단 말마적발악이었다.

우리는 고지의 정면에 배치한 중기와 로획한 경기로 놈들을 제압하고 고지의 양익측에 붙어서 적들의 불질을 두토막으로 갈라냈다. 뒤미처 힘찬 나팔소리와 《만세!》의 함성을 지르며 돌격이 시작되었다. 고지의 정면에 산개해있던 우리는 한명씩 혹은 두명씩 각개 약진을 하여 고지중턱에 다달았다. 돌격의 함성과 함께 편달아 울리는 나팔소리는 열병광장에 기운차게 울리는 행진곡처럼 우리들에게 폭발적인 용맹을 불려일으켰다. 우리들은 벌떡벌떡 일어서 《만세!》의 함성을 지르며 고지로 치달았다.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 그속에서 터져나오는 돌격의 함성과 피를 끓게 하는 나팔소리는 죽음과 파괴를 즐기는자들을 징벌하고 삶과 창조를 지향하는 의로운 인간들에게는 승리를 예고하는 교향곡과도 같았다.

우리 병사들이 머저리라고 부르는 적의 포지휘기가 뱅뱅 돌아쳤지만 놈들에게 바투 다가붙은 우리를 어찌지 못했다.

경기관총을 휘두르며 앞서달리던 분대장이 《진복이, 빨리!》하고 소리치자 참대에 공화국기를 감아들고 뒤를 따르던 나는 기발을 펴들고 앞서나가라는 명령인줄 알고 냅다 달렸다. 그런데 그가 나의 팔을 움켜잡았다.

《넌 안돼!... 아직은 일러.》

분대장은 왁살스럽게 내 손에서 기발을 앗아들었다. 하는 수없이 나는 기관총을 들고 앞서려고 했다. 분대장은 그것도 막았다.

《지금 저놈들은 총알보다도 이걸 더 무서워해.》

기발을 높이 추켜든 분대장은 덜컥진 사람같이 않게 날렵하게 달렸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기발은 폭풍속에 나뭇기는 만선기처럼 찢어질듯 세차게 퍼덕었다.

《만세!》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함성이 터졌다.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처럼 놈들은 대가리를 구겨 박았는지 총소리가 좀 즘즈름해졌다.

분대장은 용맹을 더해주려는 듯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기운차게 기발을 휘저어주고나서 시상대에 올라서는 자신만만한 권투선수처럼 호기있게 산꼭대기로 달려올라갔다.

그때 한방 얻어맞고 전호턱에 대가리를 처박고 너무러졌던 한놈이 총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것을 띄어본 내가 경기를 휘둘렀을 때는 그놈의 카빈총 총구에서 이미 서너번 불길을 토했을 때였다.

고지 꼭대기까지는 불과 사오십미터밖에 남지 않았는데 분대장은 그만 기발을 움켜쥔채 쓰러졌다. 달려가보니 량쪽허벅다리에 피가 질뻬했다.

내가 봉대로 상처를 동여매는데 위생가방을 멘 유진복이가 달려왔다.

기발을 틀어잡은채 나를 바라보는 분대장의 눈은 기름을 끼얹은 모닥불처럼 황황히 타번지고있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기발을 고지에 쏴오라는 절절한 당부를, 조국이, 인민이 나에게 주는 명령을 읽을수 있었다.

《분대장동지, 내가 기발을 쏴겠습니다.》

기발과 분대장을 바라보며 나는 군인선서를 할때의 심정으로 엄숙하게 맹세했다. 웅당 그럴것이라고 믿고있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속에는 지금까지 조국앞에 몇몇하게 살아온 그의 한생과 앞으로 나 역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비껴있었다.

《팬찮아, 진복이!》

드디어 분대장은 나에게 피가 묻은 기발을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나의 팔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진복이, 이 기발은 내가 아니라 조국이 동무에게 맡기는 기발이다. 휘날리라, 빨리 이 기발을 고지 꼭대기에 휘날리라.》

분대장의 이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귀가 아니라 내 심장에 꺾쇠처럼 들어와 박히었다.

나는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인 공화국기발을 두손이 아니라 피가 뛰는 심장파 불타는 뱃으로 받아

안고 일어났다.

기발은 다시 솟구쳐올랐다. 그리고 병사들의 개인양 세차게 퍼덕었다. 기발은 나팔처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렬들의 피와도 같은 붉은빛과 백두의 눈처럼 하얀빛 그리고 이 땅의 하늘처럼 푸른빛으로 놈들에게 전몰과 공포를 안겨주며 공화국기발이 날렸다. 그 기발에 뱃살이 빠졌는지 놈들은 총질도 못하고 전호속에 틀어박혔다. 고지에는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송이 청초한 진달래가 봄을 약속하듯 밝은 세상을 기약하는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펄펄 휘날렸다....

그날 군의소에 분대장을 후송해갔던 유진복이 돌아와서 나에게 기막힌 소식을 전해주었다. 5살에 잡힌 분대장의 딸 진복이가 한달전에 미국놈들의 폭격에 죽었다는것이였다. 분대장은 안해의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누구도 모른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분대장의 진속을 너무도 모르고있었다는것을 통절하게 느꼈다.

볼타다 남은 상록수가지에서 피꼬리가 구슬프게 울어였다. 아마도 짝을 잃었거나 동지를 잃은 모양이였다.

그때 유진복이 웃주머니에서 내첩으로 접은 종이 쪽지를 꺼내서 내앞으로 내밀었다.

《분대장동지가 문화부중대장동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나한테?》

《문화부중대장동지가 읽어보고 진복동지한테 보여주라고 해서...》

《?...》

어떤 편지일가. 나에 대한 말이 써여있는가.

그래서 나보고 읽어보라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분대장이 나에 대해 어떻게 썼을가?...

나는 쪽지편지를 선뜻 펴지 못했다. 불면 가볍게 날려갈 손바닥만 한 종이쪽지가 그때 나에게 는 어깨에 메고있는 파발총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앞에 서서 꾸지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쪽지편지를 힘겹게 한겹두겹 펼쳤다.

《문화부중대장동지, 나는 공화국기발을 고지에 휘날린 마진복동무가 조선로동당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진복동무가 입당청원을 하면 나는 기꺼이 그의 입당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중대 민청위원장 오창규.》

《아! 분대장동지!》

나는 편지를 겨우 한번밖에 읽지 못했다. 속이 화끈하고 동이 터진듯 눈물이 넘어나서 글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편지라기보다 이글거리는 쇠물처럼 뜨겁고 깊이를 알수 없는 바다처럼 웅심깊은 분대장의 마음이였다.

위대한 년대를 빛내인 조국수호의 노래

김려숙

선군조선의 위용떨치며 람홍색공화국기가 하늘높이 휘날린다. 정녕 주체의 내 조국, 선군조선의 최상의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지금 이 시각 탄환자욱이 승승하고 피에 얼룩진 공화국기발이 어러오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부른 조국수호의 노래, 공화국기발의 노래가 들려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그것이다. 저 기발을 피로써 지켜냈기에 오늘은 가없이 푸른 하늘에 힘있게 나뭇기는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조국수호의 노래,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작품들의 감화력은 매우 크다.

그 시가들에는 미제의 성조기를 통째로 짓밟아 버린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영웅적투쟁정신이 절절하게 반영되어있다.

바로 이 조국수호의 노래들은 위대한 년대를 빛나게 장식하며 그들의 넋인양 후대들에게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여, 선군조선의 아들딸들이여, 피로써 지킨 공화국기발의 노래를 잊지 말라, 그리고 소리높이 부르며 계속되는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쳐온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라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공화국기발을 지켜싸운 조국

수호의 노래가 태어난 때로부터 어언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피끓는 청춘들이었던 당시 창작가들도 적지 않게 우리결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심장으로 부르고 피로 쓴 그때의 시가작품들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있다.

전쟁이 일어나자 영웅한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의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정의의 총칼로써 원수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는 신심드높이 나아갔던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네》 노래높이 빛나는 승리의 기 펄펄 날리며 찬란한 태일의 설계도를 펼치게 되었다. 전승의 광장에 펄펄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승리의 그 기발 날리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는 그날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감격이야말로 우리 함께 터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심정이다.

여기에 그날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시가 있다. 서정시 《승리의 기발을 들고》(**동승태**, 1953)이다.

우리는 이기였다

...

우리가 불길속에서 걸어온 3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낸 시련

우리가 전취한 승리의 기발을

온 세계 자랑으로 휘날리자

이것은 조선의 승리

이것은 목숨바쳐 이긴

조선사람의 불멸의 영광!

...

반미대결전에서 승리의 전통을 마련한 영웅적조

선민민의 긍지와 존엄, 영광과 행복이 한껏 어려있는 시구절들이다. 정녕 공화국기발은 승리한 조선민민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준 승리의 상징,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우리 공화국을 짓밟고 삼키려던 미제침략자들이 이 기발밑에 무릎을 꿇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린 영웅조선의 승리의 기발, 공화국기발이 세계의 하늘가에 자랑높이 휘날렸다.

하기에 이 시기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시가작품들을 대할 때 그 기발을 지켜낸 긍지와 자부심과 더불어 가슴 뭉클해지는것은 그를 위해 목숨바친 우리 선렬들의 애국의 넋이 안겨주는 숭엄한 감정이다.

우리의 승리와 영예, 우리의 존엄과 긍지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공화국기발에는 유명무명의 수많은 영웅들, 평범하고 소박한 이 나라 인민들의 피가 스며있다.

피로써 지켜낸 공화국기발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며 그 속에 조국의 운명, 자기 개인의 운명, 자기 가정의 운명이 모두 있기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지켜낸 영웅조선민민의 불굴의 노래, 신념의 노래, 영광의 노래이다. 어찌하여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목숨바쳐 피로써 이 공화국기발을 지켜냈는가, 바로 이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담고있는것은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모든 시가들에 공통된 사상정서적특성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수호전, 공화국기발을 지켜내기 위한 성전이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인민은 조국의 푸른 하늘에 높이 휘날리던 공화국기발을 잊을수가 없었고 그 귀중함을 더욱 절절히 체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평범한 땡크소대장이였던 병사시인 한찬보의 시 《공화국기발》(1950)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있다.

나는 몰랐네
람홍색공화국기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
나의 무죄철갑에
그 기발 나뭇기며

서울로 대전으로
남진하는 길에서
나는 알았네 알았네
...

나는 알았네
불뿔는 화구 몸으로 막은
전사의 령전에 그 기발 없을 때
승리한 고지에 그 기발 휘날리며
전사들 만세를 소리높이 부를 때
아, 공화국기발
나는 알았네 그속에
조국의 운명
나의 운명
그 모든것이 비껴있다는것을

병사시인의 절절한 체험은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이다. 어머니에게 밥투정을 하고 선생님의 속을 태우던 그 시절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미처 몰랐었다. 그리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날리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때도 다는 몰랐었다. 그것이 응당한것이고 떼사로운것인줄만 알았었다.

허나 공화국기발이 목숨보다 귀중함을 안것은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에서였다. 남진의 길에서 나뭇기던 기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긴 사랑하는 전우의 령전에 없혀진 기발, 원수들을 소탕하고 만세소리 높이 승리한 고지우에 휘날린 기발, 바로 그 기발이 나의 운명이요 조국의 운명이였다.

시는 《몰랐네》와 《알았네》라는 대조되는 시적표현을 통해 심오한 생활철학을 밝히고있다. 무엇을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 무엇을 알았는가, 어떻게 되어 알았는가. 시는 이에 대한 심오한 대답을 주고있다. 아니,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피로써 새겨넣은 억척같은 신념이 그대로 튀어나와 시구절들에 박혀졌다.

시는 《몰랐네》의 시적표현을 통하여 《알았네》의 의미를 형상적으로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그리고 《알았네》가 여러번 반복되면서 그것도 시행마다에서 다르게, 어느 한 편에서는 첫 행에서,

그 다음련들에서는 마지막행에서 혹은 두번째 행에서 쓰이면서 그 내용도 점차 심화되고있다. 공화국기발에 대한 심오한 시적의미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의 세계가 전투정황과 전쟁환경과 밀착되어 더욱 깊이있게 전개되면서 축적된 감정정서의 폭발로 밝혀지고있다.

시에서는 공화국기발에서 조국을 보고 그 기발에서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에 새겨안았기에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 그 기발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애국의 걱정이 신념과 의지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시인이 어떻게 조국을 지켜 용감하게 싸웠고 전쟁을 겪고난 후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와 같은 명가사로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에 선 시인으로 성장할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사상정서적혈맥이 통하는 두 시작품, 《공화국기발》과 함께 《생명》이라는 또 하나의 시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

그는 썼다. 피로써, 심장으로써 《생명》(1953)을 썼다.

전쟁!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노예로 되느냐
그 두길중에
어느 하나만이 차례지는 전쟁!
나는 그것을 겪은 사람
...

내 긴말을 하지 않으려다
전쟁에 피흘린 사람으로서
땀땀한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서
하고싶은 그 말

생명은
한때이고
조국은
영원하다

그렇다. 생명은 한때이고 조국은 영원하다. 전쟁은 바로 이 철리를 낳았다. 그 철리를 심어주었다. 스스로 찾게 했고 위훈으로 빛내이게 했다. 인간에

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그러기에 생명은 아껴야 한다. 그렇지만 아끼지 말아야 하는것이 또한 생명이기도 하다. 아끼지 말아야 하는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은 오직 조국을 위해서이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자기 생명보다 조국이 더 귀중하다는것을 인식했을 때 참다운 인생관이 흘러나오게 된다. 한때인 생명은 오직 조국과 더불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된다.

시인은 이렇게 전쟁과정에 느끼고 찾은 철의 진리로부터 바로 조국의 운명, 나의 운명 그 모든것이 비낀 공화국기발에 대한 심오한 시적형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공화국기발의 귀중함을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서 심장으로 체득했기에 조국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는 철학을 시화할수 있었다. 공화국기발은 곧 조국이였고 조국을 잃으면 공화국기발도 없다. 공화국기발을 피로써 지킨것은 곧 조국을 목숨으로 지켜낸것을 의미한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겠는가고 한 리수복영웅의 심장의 토로는 이러한 전인민적사상감정의 집약화된 표현으로 된다.

공화국기발에 비낀 조국의 운명, 개인의 운명은 곧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승리의 기발, 승리의 상징으로 휘날리게 하신분은 조국의 영예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이시다. 그이 계시여 힘이 솟고 그이의 명령이 기치가 되여 승리의 고지우에 공화국기발을 꽂은 영웅전사들.

처녀시절 총권 병사로 1211고지에서 싸운 리계심은 자기의 직접적인 전투체험에 기초하여 쓴 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1953)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는 승리의 기발을 꽂았다

마음속에 언제나
화불로 타오르던
우리의 기발을!

...

몸이 그대로 지뢰가 되고
포탄이 되어 탈취한
까칠봉상상봉에 날리던
피로 얼룩진 기발
탄환자욱 승승한 이 기발을
우리 오늘 승리한 영웅의 고지에 휘날리며

이 기발을 지켜
마지막으로 조국땅을 안고간
사랑하는 전우들의 뒤편까지 합쳐
노래를 부른다
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시에서 노래하고있는것처럼 영웅전사들은 몸이 그대로 지뢰가 되고 포탄이 되어 까칠봉을 탈취하였고 그 상상봉에, 승리한 고지에 기발을 휘날렸다, 사랑하는 전우들의 피로 얼룩진 기발, 탄환자욱이 승승한 기발을. 그 기발은 마음속에 언제나 승리의 화불로 타오르던 기발이다. 그 기발은 이제 멀지 않아 축포의 오색화광 빛나는 열병식장에서 위대한 수령님 뵈을 그날을 그려보는 인민군전사들의 심장속에 승리의 기발로 새겨져있다. 하루에도 수만발의 폭탄, 포탄이 쏟아지는 1211고지에서 오직 수령님이시고 조국인 공화국기발을 우리를 때 인민군용사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피로 얼룩진 기발》, 《탄환자욱 승승한 이 기발》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전쟁을 력사에서만 알고있는 새 세대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만 볼수 있는 기발이다. 미제가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친 세계사적승리를 세 세년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여갈 전승의 기념관에 어찌하여 이 기발, 피로 얼룩지고 탄환자욱 승승한 이 기발이 자랑스럽게, 영웅의 기상으로 숭엄하게 자리잡고있는것인가. 이 기발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조선인민의 승리의 상징이며 그 백전백승의 밀바탕에 놓인 값비싼 피의 상징이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어떻게 만신창이 되었고 인류력

사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인류앞에, 세계앞에 똑똑히 실증해주는것이다.

하기에 조국해방전쟁시기 창작된 시들에서는 전선으로 나가는 아들딸들에게 공화국기발을 안겨준 부모들과 그 기발을 품에 안고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

밤새 한뼘한뼘 어두운 눈을 비비며
어머님이 마련해준 공화국기발
기발을 품은 가슴이 자꾸 뜨거워
두주먹 부르짖고 앞으로 나는 달렸다...

(《가무재고개》, 정서춘 1950)

이 한편에만도 얼마나 많은 사연과 말 못할 이야기들이 담겨져있는가.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밤새 수를 놓아 공화국기발을 마련해준 어머니, 그 기발에 어머니의 마음이 통채로 실려있다. 우리 구태여 어머니의 속깊은 마음을 까밝혀서는 무엇하랴. 어머니의 당부, 조국의 당부가 아들의 가슴에 뜨겁게 살아 어려웠기에 아들—인민군전사는 그 어디서나 수령님의 전사로 조국을 지켜 한목숨 아끼지 않았다. 공화국기발을 품은, 조국을 안은 병사는 《눈물어린 눈으로 가무재고개에서/고향의 어머니가 우러러보게/가슴속 고통치는 공화국기발을/훨훨 날리리라》 굳은 맹세 다지며 앞으로 앞으로 내닫는다.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적후에서 투쟁하는 빨찌산대원들의 배낭에도 공화국기발이 있기에 공화국은 불멸하리라는 승리의 노래를 엮은 박산운의 시 《배낭》(1951), 감방안의 애국자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주고 카빈총 둘러멘 양키보초놈은 무서워 벌벌 떨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마우룡의 시 《기발》(1951) 등을 비롯하여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시들은 그 기발이 전쟁의 운명을 걸고 생사판가리전에 나선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뿌리내린 승리할 조국, 승리한 조국이였음을 감동깊이 시화하였다.

공화국기발을 노래한 시들에서는 그 기발이 어찌하여 조국의 운명, 개인의 운명과 결합된 것처럼 귀중한것인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토로하고 있다.

해방된 조국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참된 삶을 누린 우리 인민, 지난날의 뼈저린 생활체험과 해방 후 5년간의 사람다운 자주적인 삶의 극적대조는 우리 인민의 운명선택에서 뚜렷한 길을 제시해주었으며 그 숭고한 자각은 인민의 진정한 나라,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게 하였다.

시 《영웅》(리병철, 1951), 《조국》(김초민, 1950) 등에는 그러한 애국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피로써 지킨 공화국기발의 노래는 총대를 틀어쥐고 조국수호의 결사전에서 언제나 기수가 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영웅적인민군대의 투쟁모습과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더욱 생동하게 안겨온다.

시 《256고지》(한명천, 1951), 《기수》(김순석, 1950), 《우리 소대장》(리원우, 1951) 등 여러 시작품들에서는 고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하고 공화국기발을 휘날리게 한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시적화폭으로 펼치고있다.

《앞고지를 피로써 점령할것》, 명령자체가 피로써, 육탄으로써 앞고지, 256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이다. 남은 사람은 네사람, 앞에서는 적화점이 불을 토한다. 그러나 한결음도 물러설수 없는 그들이었다. 가슴속에 품은 로동당의 당원증과 영예로운 군인증에 손을 대이며 서로 마주치는 눈길, 그것은 서로 죽음을 같이할 말없는 맹세였다.

...

오, 공화국기 나뭇기는 아래
아군의 진격로를 피로써 열어준
조국의 씩씩한 아들

영웅 리용완!

영웅 김치윤!

영웅 유만중!

영웅 정규홍!

이것은 시 《256고지》의 한대목이다. 어찌 이뿐이라. 시들에는 진공 수백리 싸움마다 적진에 기발을 꽂아왔으며 솟구쳐오르는 피가 옷깃을 적시고 총대에 날리는 기발을 붉게 물들인 최후의 순간에도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바치며 신성한 조국을 지키라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생각하며 끝내 적의 포대에 그 피묻은 기발을 꽂은 기수 특무상사의 모습도 있고 소대장이 목숨과 바꾼 공화국기발, 승리의 기발을 꽂으러 나가는 전사들의 총천한 모습도 보인다.

조국을 그토록 사랑한 인민군전사들이였기에 그들은 언제나 기발들고 나가는 기수, 조국수호의 기수가 되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너무도 잘 알려진 시구절을 생각해보자. 《내 최후의 돌격전에서/기발들고 나가다 쓰러져/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조국이며/부디 나를 잊지 마시라/그리고 용서하시라》

바로 이런 사상과 신념으로 싸워 승리한 우리 인민군대이다.

원썬들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공화국기를 고지마다 휘날릴 맹세를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고 목숨바쳐 판철한 인민군대이다.

조국을 목숨바쳐 지켜싸운 영웅조선의 노래는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세계에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과 더불어 선군조선의 영원불멸할 노래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피흘려 싸우다 희생된 인민군전사들과 애국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르고부르고싶었던 노래, 그들이 다 부르지 못한 노래를 오늘 우리들이, 선군조선의 아들딸들이 이어불러야 한다.

영웅조선, 선군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노래,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노래를!

영웅들의 넋, 애국자들의 넋이 살아일어나 함께 부를것이다.

담시조

전쟁이야기

김 광 호

소코뚜레 이야기

전투의 설참이면
재령벌 농민출신 아바이병사
허리춤에서 척 소코뚜레 꺼내들고
이야기판 벌리곤 했다네

해방된 이듬해 난생처음
대대로 소원이던 내 소를 가지게 되었다네
그래서 소코뚜레도 물푸레나무줄기로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껴였지

그 소는 정말
두눈도 크고 발통도 크고
눈이 큰만큼 순하기도 했다네
발통도 큰만큼 힘줄도 쫘다네

그래서 그 소를 부릴 땐
코뚜레는 별로 잡지 않아도 됐다네
고삐만 척 잡고서 이라 길길...
노래처럼 한마디면 됐다네

그런데 제 집 쓰고 제땅에서 제 소 부리며
지주놈이 울다 가게 잘살만 하니까
1950년 6월에
저 코큰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켰지

나는
내 집 내 땅 내 소를 두고
쉬이 떠날수 없어
사흘밤을 뜬눈으로 바재이는데

다음날 미국놈 썩새기 몰사격에
우리 집도 타고 외양간도 타고
그렇게도 애지중지 정붙였던
누렁소도 그만 죽고말았지

아차—
그때에야 소스라쳐 정신이 버쩍 들더군
이 미국놈들이 오늘은 내 소를 죽이고
래일은 나에게 소코뚜레를 썩우려 하는군!

그날에야
내 비로소 심장을 치며 깨달았지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없으면
집도 땅도 소도 다 없다는걸 말일세

그래서 내 이렇게 소코뚜레 뽐아들고
그날로 전선으로 나왔지
그러니 옷지들 말라구
내 늘 이 소코뚜레를 장구류처럼 차고다닌다구

전쟁에선 우연이란 없다네

사실 나도 처음엔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네
첫 전투에서 맞다든 피뢰군 중대장놈이
다름아닌 해방전 우리 마을에 살던
그 지주아들놈임을 알고는
전쟁에서 흔히 체험하게 되는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네

그런데 1211고지전투때
이놈과 또 맞다들리지 않았겠나
어쨌든 세상이란 참
넓으면서도 좁은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또 우연이라고만 여겼지

헌데
가렬한 전투의 날과 달이 흐를수록
이놈이 어찌나 생악을 쓰던지
그때엔 불현듯 깨닫게 되더군
이놈과 우연히 맞다든게 아니라고
이놈이 우연히 날뛰는게 아니라고

그렇네!
정말로 우연이 아니었네
무상으로 분여받은 내 땅이
날마다 웃음넘치는 내 집이
해방후 꿈갈던 5년간의 행복한 삶이
결코 우연히 차례진것이 아니었기에
쉽게 우연히 지켜지는것이 아니었기에

피맺힌 원쑤 지주아들놈과
첫 전투에서부터 맞다들린것도
이 원쑤놈들과 한치 땅을 두고
목숨걸고 사생결단하는것도
참으로 우연이 아니었네

정말 그렇게!
전쟁에선 언제나 우연이란 없다네
원쑤와의 대결은

운명적인 필연!
반드시 무자비한 총대로
삶과 죽음으로써만 판가리되는것!

자, 내 우연히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지난 1950년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진리일세!

병사와 나무

방금 격전이 끝난 고지우엔
매캐한 포연이 감도는네
전호를 내려서던 분대장
웬일인지 문득 멈춰섰네
팔에 감은 피배인 봉대를 푸네

포연서린 전투장 오가며
부상병들 살뜰히 돌보던
련대의 피꼴새 처녀간호원
어느새 보았는지 달려와
상냥한 목소리로 조심히 묻네

—분대장동지
상처가 더 아픈게지요?
—아니 일없소
내 상처야 무슨 큰게라구
자, 이 봉대나 마저 풀어주오

조심조심 봉대를 다 푼 간호원
시퍼렇게 독쓰기 시작한
총상자리 보는 순간 깜짝 놀랐네
—어마나? 어서 봉대를 다시 감구
후송해야겠어요

허나 분대장은 대수롭지 않은듯
흔연히 웃으며 말했네
—이제 전쟁이 끝나면 후송되겠소
그러나 지금은 이 봉대를
여기 이 나무에 감아줍시다!
—예?!

간호원은 다시한번 깜짝 놀랐네
눈앞엔 파편에 아지 부러져
맑은 송진 눈물인듯 줄줄이 흘러고있는
애어린 다박술 한그루
파아란 다박술 한그루...

간호원은 끝내
눈물을 터치고야말았네
강잉히 참던 그 눈물
다박술포기우에 쏟고야말았네

붉은 피 스민 봉대
나무에 정히 감싸매주는
분대장과 처녀간호원
그들의 마음속엔 벌써
좌-좌- 설레이고있었네
승리한 조국의 푸르른 산들이!

갱도속의 랑만

전설속의 거인마냥
불속에서도 포화속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조국의 고지 1211고지
또다시 공격 앞둔 적들의 맹폭격에
온통 불천지가 되어 바위마저 녹아내리는데

고지의 천연요새 갱도안에선
배심종계 척 틀고앉아
적들을 기다리는 인민군용사들
떠들썩 앞날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판 펼쳐놓았네

—나야 그저 농사꾼이 제격이라니
첫새벽에 소를 몰아 한배미 갈아빈진 뒤
밭둑에 앉아 한대 피우는 맛이란 참...
농민출신 박아바이 이야기 끝내고선
구수하게 한대 말아 입에 무는데

이번엔 제철소 다녔다는
중기사수 최동무가 한마디 하네

—나는 전쟁전처럼 용해공이 되겠네
한데 고향에서가 아니라
여기 1211고지 용해공이 되겠네

—아니 1211고지 용해공?
여기 무슨 쇠돌밭이라도 있나?
전우들 영문 몰라 다시 묻는데
최동무 갱도밖을 가리키며
호기있게 하는 말

—아, 미국놈들이 여기 1211고지에
얼마나 많은 폭탄과 포탄을 퍼부었나
여기에 용광로를 세우고 그걸 녹이면
아파 한 3년쯤은

실컷 녹여쓸거네!

—그렇지! 정말 옳구만
그럼 미국놈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전후복구건설때 쓸
쇠물끓일 파철들을 싸주고있구만
하하하...

고지우엔 적들의 줄폭탄 터지는 소리
갱도안엔 용사들의 랑만에 찬 웃음소리
이런 병사들이 전쟁의 승리자로 되었네
이런 병사들이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미제에게 다시 한번 통장훈을 불렀네!

담배쌈지 이야기

대대로 나무리벌에 태를 묻었다는
말수더구 적은
구레나룻 아바이병사에겐
류달리 정성껏 만든
담배쌈지가 있었다네
전선에 나온 후
한번도 품에서 떼어놓은적 없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건
전쟁의 그 나날에
언제한번 척 풀어서
담배를 말아피우는걸
병사들은 본적이 없었다네

다만
행군의 실참에나
전투의 실참에나
전우들 담배를 구수히 피울 때면
그 담배쌈지 꺼내여선
냄새만 달게 맡곤 했다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젊은 병사들
아바이병사에게 성화도 먹이곤 했다네
—아바이!
혼자만 좋은 담배냄새 말지 말구
우리도 속 시원히 한대씩 말아피웁시다

그럴 때면
아바이병사 웃으며 말했다네
—이제 전쟁이 끝나는 날
내 이 담배쌈지를 풀어
임자네들에게 한대씩 말아주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나!

이렇게
전쟁의 한해 두해 보내고
마침내 이룩한 승리의 7월 27일
람홍색공화국기 펄펄 나뉘는 고지우엔
만세소리 만세소리 우렁찬데

그제사 문득 생각난듯
전우들 아바이 빙 둘러쌌다네
—자, 이젠 약속대로
그 담배쌈지를 푸시우
전승의 경축담배로
한대씩 뜻깊게 피웁시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 머금고
전쟁 3년세월 이야기도 많이 남기며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그 담배쌈지
아바이병사 조심히 풀어헤치는데
어깨성 쌓고 둘러선 전우들
그만 두눈이 휘둥그래

담배쌈지안엔
향긋한 씨레기있담배가 아닌
기름기도는 검스레한 흙
분명 흙 한웅큼이 들어있었네
—자, 이게 내 담배쌈지안의 《담배》일세
해방후 분여받은 목숨같은 내 땅의 그 흙일세!

승리한 병사들은 보았네
담배쌈지안의 그 흙을
그리고 손에손에 들려가며
저마다 구수하게 냄새를 맡아보았네
아니, 한대씩 말아 가슴뜨겁게 피워보았네
이 세상 담배중에 가장 소중한 그 《담배》를!

전사들—아버지들

조 인 영

나에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7월이 오면 떠올리게 되는 류다른 인생체험이 있다.

그것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다.

전승의 축포성이 울리었던 해 가을.

나와 애어린 동생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방금 포연이 가시여진 1211고지에 오르게 되었다.

금강산마을에서 신의주까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1211고지에서 미제와 싸워이긴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던 것이다.

준엄한 전화의 3년세월 손톱 하나 다치지 않은 아들들을 아버지앞에 내세워주고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 먼길을 떠나게 했던지도 모른다. 하여튼 어머니는 그 머나먼 길에 걸음마다 칭얼거리는 거치장스러운 철부지들을 데리고 철령을 넘고 직동령을 넘어 1211고지에 올랐다.

하여 우리는 전승후 1211고지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민으로 되었다.

련대후방참모의 안내를 받게 된 우리는 아버지가 복무한다는 피복수리소로 가고있었다.

어느 한 갱도앞을 지날 때였다.

우리를 먼저 띄여본 직일병이 《사민이다, 꼬맹이다!》하고 웨쳤다. 그러자 갱입구가까이에 있던 수염터가 거뿔한 전사들—아버지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다.

《영남아!》

《창길아!》

《명철아!》

...

그들은 겨끔내기로 서로 다른 이름들을 부르며 나와 동생을 공중으로 안아올리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를 찾아가던 길에 전사들—아버지들에게 《랍치》 되고말았다.

나는 어머니가 뒤쪽에서 전사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애들을 인차 돌려보내주세요..》

《어련할라구요. 울리지 않을테니 넘려마시우.》

우리 형제는 갈라졌다. 나는 이쪽소대 병실쪽으로, 동생은 저쪽소대 병실쪽으로.

아버지들은 우불구불 구부러진 갱도안으로 자꾸

자꾸 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무엇하러 우리를 안고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어 무척 당황해지고 무섭증이 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기도 하고 두볼에 입을 맞추어도 주고 엉덩이를 가볍게 다독이기도 하자 이내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탄피등빛이 환히 비치는 소대병실에 들어서니 정면벽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가 정히 모셔져있었다.

나를 안고온 전사들중에서 나이든직한 아바이전사가 병실쪽에 대고 익살스레 웨쳤다.

《동무들, 누구를 모시고왔나 보게들.》

그러자 갱도병실에 있던 전사들이 나를 향해 두팔을 벌리고 다가들었다.

또다시 사내애들의 이름사태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전사들이 부르는 이름들가운데 내 이름만은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 아버지들은 각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있었던것이다.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듯 한 전사들은 덤벼들지 않고 히물히물 웃고있었는데 그들 역시 기뻐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인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와락 덤벼들지 않던 그들의 감정 또한 진실한것이라고 생각된다. 딸애가 아닌 사내애를 《옥이야!》 혹은 《영애야!》라고 부르며 달려들어 불안기는 아무래도 어색했을것이니.

나를 데려다 한껏 애무해주고난 전사들은 노상 싱글벙글거렸으며 또 다른 전사들은 명절맞은 기분이 되어 저마다 기념품을 주기에 바빴다. 어떤이는 내 주머니에 탄피금을 넣어주었고 또 다른이는 《화선기념》이라는 글자를 새긴 손칼을 주었으며 그밖의 다른이들은 무언가 기념으로 될만 한것을 주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기도 했다. 그중의 어느 한 아버지전사는 자기가 손수 만든 채바퀴를 굴리는 다람쥐장을 통채로 안겨주기도 했다.

철이 들어 1211고지용사들의 전투와 생활을 찍은 기록영화에서 나는 전화의 나날 전사들의 품속에 뛰어들었다는 다람쥐가 갱도속에서 열심히 채바퀴를 돌리는것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져오지 못한 다람쥐장일수 있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전사들은 나를 일으켜세우더니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나는 랑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전기

리 연 희

전기는
기대열에 제 품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대들 밤새워 생산한 전기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아마도 쌓았다면
그대들 퍼올린 석탄은 크낙한 산이 되었으리
펼치었다면
그대들 생산한 전기는 바다가 되었으리

하나 그대들은
차판마다 실려오는 석탄을 태워
보다 압축된 증기로 타빈을 돌려
전기를 보내고 또 보낸다
아낌도 없이 남김도 없이

어떻게 하면
같은 설비 같은 조건에서도
손실없이 깡그리 보낼 것인가
문득 멈춰설 타빈의 1분을 아껴
탐구와 고심으로 지새운 밤은 그 얼마
떨어지는 압력계의 한눈금을 위해
때로는 육탄이 되어
자기의 한생을 들여세울수도 있는 사람들

전기여 너는 간다
이들의 열정을 안고 줄기차게
저 하늘 이 땅 우주에 내뿜는 빛의 속도로
그 빛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수천척지하막장 끝까지
눈보라 지동치는 채광장 산정의 메부리까지

가고있다
번개치듯 내닫는 열차와 함께
눈부신 현대화된 공장마다
창조와 위훈의 기념비마다
천줄기 만줄기
약동하는 조국의 피줄기로 뻗어가는 전기여

그 어떤 색도 없이 모양도 없이
흐르는것이 전기라더라
하나 이 전기를 위해
한생을 전기와도 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사는 우리의 거리
만사람의 흐름속에 나는 본다
눈에 띄는 모습도 없이
소리쳐 자랑하는 소문도 없이
묵묵히 함께 가는 사람들
조국이 사랑하는 애국자들의 모습을!

그때 부른 노래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처음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는 전사들의 재청에 의하여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 빛으로...》라고 시작되는 노래를 불렀던것 같다.

나는 하루밤 전사들—아버지들의 품에서 잤다. 그들은 번갈아가면서 나를 껴안고 잠들지 못했다. 수염볼로 내 볼을 쓸어주다가는 기다리는 옆의 전사에게 넘겨주곤 했다. 나는 졸면서 전사들의 품에서 품으로 옮겨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날의 일을 추억하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때가 적지 않다.

전화의 3년세월 부모처자와 헤어졌던 전사들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애무의 감정,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을듯싶던 사랑과 환희의 정서—그것이 곧 애국의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렇다! 그것이 바로 두고온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사랑, 조국에였을것이다.

론단하기에 앞서 《조국찬가》의 첫 구절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
뜨락인 조국! 거기엔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다 있고
서정시 《나의 조국》이 읊조린 모든 정서와 사상
감정이 다 깃들어있는것이다.

3년세월 포연속을 누비고 전호가에서 날과 날을 보내며 미제를 타승한 인민군전사—아버지들의 그 리움과 애국의 대상이었던 아들(어떤 전사들은 나를 《좁쌀친구》라고도 불렀다.)이 방금 포연이 가라앉은 고지에 문득 조국의 현실적인 한 부분으로 나타났으니 어이 환희롭지 않으랴.

그리하여 그때 나는 수많은 낯선 아버지전사들과 먼저 만난 뒤 나중에야 나의 진짜 아버지품에 안기었던것이다.

결국 나는 이런 훌륭한 아버지전사들의 아들이었으며 고향이었고 조국이였다!

시 초

351고지에서 부르는 노래

영웅의 고지에 올라

아, 영웅의 고지
351고지여
지난 50년대
우리의 인민군전사들
내 나라의 이름없던 351고지를
어떻게 세상에 빛내였던가

아, 그날의
병사들의 넋을 불러
그날의
병사들의 목소리로
내 오늘 소리높이 노래하노라

351고지와 15분

심 재 훈

빛나는 삶의 높이
순간과 영생
그 숭엄한 세계의 상징인가
351고지와 15분

한생을 오르고올라도
그 높이에 닿을수 있으라
한생에 비길수 없이 짧아도
그날의 15분은
한생보다 더 길구나

우박처럼 쏟아지는 탄우속을 뚫고
불뿔은 적화점 몸으로 막아
병사들 터친 승리의 만세소리
오늘도 이 강산에 메아리친다

15분 그 순간에
미국놈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해발고로만 알려진 내 나라 351고지가
승리의 메부리로
아득히 높이 솟았거니

미제가 이 땅우에 또다시 불질한다면
악마의 소굴 백악관을 송두리채 뽑아버리리라
15분이 아니라 단숨에... 단숨에...
예나 지금이나 필승의 신념 안겨주는 351고지

아, 병사들 피와 넋이 스며인 영웅의 고지
이 시각도 조국통일성전으로 나를 부르고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부르는
오, 351고지와 15분이여!

명령과 량심

문 선 건

—내려가시오
내려가 치료를 받으시오
명령이요...

허나 전사는 날아들었더라
피흐르는 가슴에 수류탄을 안고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높이 웨치며
이리떼처럼 기여오르는 적들속으로

요란한 폭음—
승리의 메아리인가 전사의 웨침인가
하늘땅 뒤흔드는 만세소리

죽어도 꺾이지 않을 불굴의 기상인듯
포연을 헤치고 거연히 머리쳐드는 351고지

지휘관의 명령은 뜨겁고도 엄격했으나
전우들 피로 찾은 고지 내어줄수 없어
원췌를 앞에 두고서는 한치도 떠날수 없어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들속에 뛰어들 전사

아, 피로써 고지를 사수한 전사
목숨으로 조국을 수호한 전사
지휘관의 명령 조국의 명령을
깨끗한 전사의 량심으로 집행했더라

전선위문편지

문 선 건

산과 들을 지나 천리
포화속을 뚫고 또 천리
싸우는 고지 전사들을 찾아 날아온
처녀의 전선위문편지

전호속에서 펼쳐보니
어깨우에 위장망 두르고
장군님 주신 땅에 불씨앗 뿌려
가을이 오면 알알이 영근 낱알

싸우는 고지에 보낸다는 처녀의 이야기

어제는 미국놈비행기 폭격에
마을이 불타 재가 되고
어린 동생 목숨을 잃었다는
눈물이 방울진 글밭에 복수와 증오가 불타는듯

히나 후방은 걱정말라고
한자두자 쪼아박은 글밭
병사들 가슴가슴을
조국수호의 결사전으로 부르는
처녀의 전선위문편지

후방도 전선이라는
장군님말씀 받들어
포탄과 식량을 이고지고
밤이 오면 고지로 오른다는
처녀의 전선위문편지

아, 싸우는 고지에 날아온 전선위문편지
꼭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처녀의 당부가 새겨진 전선위문편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싸운 전사의 심장을
그 어떤 총탄도 뚫지 못했더라

대 결

심 재 훈

철과 철이 부딪치는 소리에
하늘과 땅이 몸부림치고
삶과 죽음이 절정에 오른
치열한 대결장 351고지

싸움의 승패가
경각에 오른 고지
빼앗긴 고지를 다시 빼앗으려고
최후탈악하는 미제

머리우엔 비행기로
땅에선 탱크포로
바다에선 함포사격으로
고지우에 바위마져 불탈 때

파도식 공격
결사돌격
패전을 모른다는
제놈들의 전법을
총동원한 미제

산중의 제왕처럼 날뛰며
피를 즐기는 맹수마냥 달려들 때

포수가 범을 잡듯이
통쾌하게 잡아치운 병사들

그래도
351고지가 서울보다 귀중하다고
이리떼처럼 밀려들수록
조국수호의 불타는 마음 백배해
수령님품속에서 누리는 삶이 소중한
한치의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

진정
천만의 대적도
강대성의 《신화》도
정의의 싸움엔 맥을 못 춘다는
천하의 진리가 별처럼 새겨진
아, 351고지

만신창이 된 성조기에 코를 박고
놈들은 패배의 항복도장을 찍었다
오, 우리앞에서...
이것이 세상을 놀래운 50년대
조선과 미국과의 대결이었다

전선마을 감나무

문 선 건

너도 원한의 복수를 당부하는가
알알이 서리발 증오로 맺혔는가
너를 바라보니
가슴에 피가 끓는구나
전선마을 감나무야

원췌의 폭격에 집은 불타 재가 되고
인적마저 사라진 마당가에 홀로 서있는 감나무
한알두알 감알을 세여보며
노랗게 익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쁨속에 뛰놀던 애들도 있었으련만...

어머니대지에 뿌리 깊이 박고
불비속에서도 곳곳이 서있는 감나무야
무겁게 드리운 아지 창공높이 펼치라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원췌놈도
너의 아지 한가지도 다치지 못한다

그날의 복수자들이
오늘도 대를 이어 너를 지키는 한



박 성 진

락엽이 흩날리는 1950년의 준엄한 가을이었다.
형형색색의 군인과 사민, 남녀로소들의 크고작은
보폭들이 험준한 산을 넘고 범람하는 강하를 헤치
며 끝없이 북으로만 이어지고있었다.

그때 그 흐름을 거슬러 남으로 나가는 두명의 사
나이가 있었다.

한사람은 몸이 체소한 조선인민군 대위였다. 대
위는 군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전혀 군인티가 없고
선비같은 인상을 주는 30대의 온화한 표정의 사
람이었다. 도수높은 안경알속에 영민하게 반짝이
는 사색질은 두눈이 그가 범상치 않은 지성인임
을 느낄수 있게 하였다. 그 대위는 종군기자 김석
영이었다.

그옆에 따라선 사람은 홍안의 총각으로 경충한
키에 허름한 학생복을 입고있었다. 그가 바로 당
년 17살로서 오대산에서부터 종군기자와 동행해온
나였다.

나는 그 종군기자와 함께 연륙질던 잎새들이 황이
들어 하나, 둘 떨어지던 수림속을 힘겹게 뚫아온 그
길을 되돌아가던 준엄한 그 시절을 잊을수 없다.

1

내가 종군기자인 김석영을 알게 된것은 령산계
선에서였다.

령산계선에서는 한개 중대가 사단의 후퇴를 엄호
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전투에서 역량
의 반수이상을 잃어버린 그 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한개 중대가 강행도보하여 령산으로 가고있었
다. 중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험한 날벼랑을
가로질렀는데 그때 길잡이를 한것이 그 아군의 산
간오지에서 살던 나였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드디어 병풍자락같
은 날벼랑을 돌파했다.

키가 경충한 중대장은 나에게 사의를 표시하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는 집
에 돌아갈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나는 펍 버
티고서서 목적지까지 가자면 아직도 길안내자가 필
요하다고 그에게 우겨댔다. 길쭉한 철색얼굴에 성
격이 좀 데설긋어보이는 중대장은 매우 감심한 표
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으나 사실 나의 진짜 속궁리
는 모르고있었다.

나는 령산에 도착해서야 인민군대에 입대하려는
속마음을 중대장에게 털어놓았다. 은폐호천정에 거
의 군모가 닿은 중대장은 입을 딱 벌리고 멀거니
나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기 시작하
였다.

《좋아! 아주 좋아! 음, 네 마음은 알겠다.》

거듭 치하해주는게 왜서인지 미타했다. 아닌게
아니라 잠시후 중대장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통나

무의자에 앉더니 《그런데 말이다.》 하면서 가지 담배 한대를 꺼내문다.

《중대는 여기서 결사전을 해야 한다. 죽고살고 하는 싸움이지. 헌데 신병훈련도 받지 못한 한 소년의 생명을 내가 이 싸움판에서 어떻게 담보할수 있는가. 응?》

《소년일게 뭐예요?》

내가 맞았지 않게 내쏘자 그가 시무룩이 웃었다.

《그럼 총각이라치자. 중요한건 네가 총을 쏠 줄 모른다는데 있다. 작대기 들구 나서겠니? 허허.》

결국 조용히 돌아가라는 소리였다. 뺨이 울퉁거리는것을 겨우 누르고있던 나는 아끼던 마지막주폐장을 내들었다.

《저... 총은 쏠줄 몰라도 나에게두 한가지 재간이 있어요. 돌팔매질만은 기가 막힙니다. 중대장동지와 내기를 걸어도 됩니다.》

그 순간엔 은폐호박으로 나가 당장 숨씨를 보이 고싶은 생각이 불처럼 일어났다.

내가 돌팔매질재간을 장담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재력이 있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은 돌팔매질싸움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둘에 엉덩이를 되게 한번 얻어맞은 후부터 하루에 100개씩 돌던지기런습을 하였다.

그 덕에 날아가는 참새도 떨군다 할만큼 숨씨가 늘어 마을아이들속에서 팔매질대장으로 받들리 었었다.

그런데 중대장은 《팔매질?!》하고는 은폐호가 들썩하게 양천대소를 했다.

왜요? 입대하면 수류탄장수가 될수도 있는데... 하는 말이 허끝에 묻어나오는걸 겨우 참으며 머리를 외로 꺾는데 중대장은 량해를 구하는듯 한 어조로 한마디 덧붙였다.

《입대를 하자면 대렬부승인도 받아야겠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도 안되구... 자, 이젠 가면서 먹을 도중식사다.》

그는 마디굵은 커다란 손으로 먼천에 싼 건빵꾸레미를 가져다 통나무탁우에 놓아주었다.

나는 그걸 밀어놓으며 허뻘뻘해진 소릴 내질렀다.

《됐어요. 내가 병사두 아닌데 군량을 다치면 돼요? 그리구... 체, 별은 두알씩 달구두 그만한 권 한도 없어요?》

《응?! 어허-》

중대장은 작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멀뚱거리다가 어이없이 웃었다.

이때 꺾꺾 웃음소리와 함께 안경끈 다른 군관이 은폐호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처절한 격전을 치른듯 그의 군복은 찢겨지고 포연에 그슬려있었다.

《그녀석이 제법이요!》

중대장은 그 군관에게 돌아서며 부채같이 큰 손을 버쩍 쳐들어보였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길안내해준 값을 이렇게 계산하자고 할줄은... 허허.》

그 군관이 웃으며 응수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군은 애국중에 애국이지요.》

중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남진의 길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지만... 기자동지! 지금같은 형편에선 쉽게 결심할수가 없군요.》

나는 기자라는 군관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얼핏 눈여겨보았다. 군관기자도 있는가?!... 별은 중대장보다 두알이나 더 많으나 몸집은 비할바 없이 체소한 이 군관의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가싶어 나는 자못 긴장해졌다.

대위견장을 단 기자는 미소어린 눈길로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름이 뭐요?》

《선우순철입니다.》

《선우순철?!... 음.》

그는 미소짓고 한동안 나를 지켜보더니 돌아섰다.

《중대장동무, 결심을 크게 먹구 따라온것 같은데 도와줬으면 좋겠군요.》

중대장은 은폐호천정을 들이받을듯 머리를 번쩍 쳐들더니 뜨아해서 기자를 마주보았다.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같은 때 말입니까?》

《때가 어려운만큼 우리가 책임져줍시다. 당장은 입대시킬 형편이 못되지만 철수할 땐 데리고 떠납시다.》

중대장은 못미더운 눈길로 나를 올리훑고 내리훑고 하며 미타한 표정을 지었다.

기자가 우선우선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뭘 주저합니까. 글쎄 당분간은 좀 짐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구 밀려오는 미국놈들에게 떠밀

아버리구 가겠습니까?)》

기자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한 말이었는지 그때는 알수 없었다.

인민군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으며 내가 길안내를 한 이 중대가 사단의 후퇴를 엄호하여 이 계선에서 48시간동안 싸워야 한다는것을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다만 되돌려보내지는 않겠구나 하며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뿐이었다. 그 기자가 바로 운명이 나에게 보낸 귀인같아 나는 저도 모르게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래 어떻게 돼서 인민군대에 탄원할 생각을 했나?》

기자가 온화한 미소를 짓고 묻는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얼굴을 빨구었다. 눈앞이 뿌옇해왔던것이다. 총과 더불어 피로 얼룩지며 흘러온 우리 가정의 만단사연을 어떻게 몇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2

우리 가정에서 처음 총을 잡은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삼도왜적에게 이 땅이 강탈당한 어수선한 세월에 아버지는 의병이 되었다.

하나 아버지네들이 추켜든 기치창검은 스러져가는 저녁노을속에 선혈에 젖어 맥없이 광야에 나뒹굴었다. 약자의 서글픈 패배를 아프게 느끼며 전장에서 짓이겨진 몸을 끌고 고향에 내려온 아버지는 은둔자가 되어 흘러가는 긴긴밤을 탄식으로 보냈다. 그후 뒤늦게 장가든 아버지는 아들 3형제를 보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체구를 닮아서인지 모두 굼직굼직한 몸집들이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어려서부터 생업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학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훈계하며 자식들의 정신적인 수양에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 어느때든지 왜놈들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포수노릇하며 번 꽃돈으로 만형이 사립학교문턱을 넘게 했고 면에 있는 중학교까지 억척스레 떠밀었다.

그러나 당시 태평양전쟁의 미공속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일제는 조선청년들이 책장을 번지며 두뇌를 잉크색으로 물들이는것을 허용치 않

았다.

어느날 청천벽력파도 같이 빨건 관청도장이 박힌 《황군》 초모령장이 우리 집의 삼작문을 넘어 날아들어왔다. 《반도수호성전》의 명분으로 만형이 학도병에 걸려든것이다.

왜놈군대가 되다니? 자식들중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중학공부까지 시키던 만이가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자 아버지는 범같은 기상으로 대노하여 길길이 뛰었다.

그러자 구장이 허겁지겁 우리 집에 찾아왔다.

세상에 빠져져나올 때 땅에다 머리받기를 했는지 눈두덩이며 코등이 몽땅 아래로 처져내려와붙은 구장이 보살같은 얼굴을 하고 주절됐다.

《임자, 지금은 〈비상시국〉 이야. 양키들이 어떤 놈들인줄 아나? 사람가죽 벗기는 놈들이야. 인디안을 그렇게 멸족시켰단 말이야. 바로 대양건너의 그 양키들이 우리 반돌 먹자 한단 말일세.》

왜놈들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받아외우는 구장에서 아버지도 세상일에 둔감한 사람이 아닌지라 맞받아 침방울을 튀기었다.

《얼빠진 소리 작작해! 이리한테 물리나 늑대한테 물리나 우린 먹힌 몸뚱이야.》

하나 아버지는 《불온분자》로 몰려 경찰서에 끌려가 시달림을 받았고 만형은 눈물을 머금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식민지청년의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이었던가를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동리청년들의 서글픔이 비낀 눈물젖은 눈길의 바래움을 받으며 떠나는 만형이 판세상 사람처럼 낯설게 보여 뒤쫓무니에 줄줄 따라다니었을뿐이었다.

머리를 박박 깎은 만형은 운명에 모든걸 맡긴듯 한 침울한 눈길로 음산한 마가을바람에 부대끼는 앞산을 응시하더니 동리사람들에게 깊이 머리숙여 작별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조짚이 어지럽게 널리고 달구지바퀴자리가 깊숙이 패인 거친 길우에 검은 운동화 신은 큰 발을 무겁게 옮겨디디었다.

그렇게 떠나간 만형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때 함께 왜놈군대에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온 동리청년이 우리 만형이 중국전선에서 죽었다는 흉보를 안고왔다. 그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가 하늘을 우러러 통탄한건 두말할것 없다. 해방이 된 후에 둘째형이 또다시 군대에 징집되었다.

그때는 아버지도 둘째형이 《국군》에 가는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제 나라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던것이다.

조선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하고 의병대의 화승총이 이국의 황야에서 낯질당한 풀대처럼 꺾이는것을 보며, 이 나라 수많은 청년들이 제 운명을 지킬 총대가 없어 왜놈의 총알받이로 폐죽을 당하는걸 보며 아버지가 세운 정신적지주는 제 나라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우리 동포가 살자면 뭐니뭐니해도 기강이 있는 군사가 있어야 돼!》

그렇게 둘째형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후에 휴가받고은 그앞에서 집보장이 울리도록 대노하였다.

《이놈! 이놈! 제 나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국군〉끼리 골육상잔을 해? 이놈…》

그때 둘째형은 려수군인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하고 장교가 되어 《표창휴가》를 온것이였다.

아버지의 수복한 장미가 무섭게 꿈틀거리고 손에 쥔 대통이 후들후들 떨리였다. 둘째형이 며칠 묵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며 시들부들한 어조로 뇌이였다.

《군은 명령을 수행합니다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소연해졌다. 북의 《공산마귀》를 징벌하자는 《국군》의 당돌한 목소리가 전연의 산발에 계속 메아리치더니 미제놈들과의 작당 끝에 종내 전란이 터지였다. 분노한 아버지의 흰수염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휴, 언젠가는 저 백두산 김장군님부대와 하나가 되는가 했더니… 동족상쟁을 하다니?!…》

그러더니 《이놈! 이 미친놈!》하며 누구를 욕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둘째형을 욕한것 같다. 그런데 어느날 그 둘째형이 처참한 송장직전의 몸풀이 되어 사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기상은 자못 험악해졌다.

《이놈아! 맛이 어때? 감히 김장군님부대와 맞서? 열간이같은 놈들… 손을 맞잡고 이 땅을 지켜야지 감히 백두산호랑이에게 행악질이냐? 이 쇠아들같은 놈아!》

결죽한 욕을 소나기 퍼붓듯 했다.

둘째형의 머이 들고 짓이겨진 볼을 타고 눈물이 락수물처럼 둘둘 굴러떨어졌다.

《아버님, 내 인민군대포란에 얻어맞고 이 꼴이 되였어도 이렇게까진 억울하진 않겠습니까요.》

같이 온 사병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친다는듯 입술을 어—어— 떨며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군의 뒤반침밀에 강행된 《국군》의 《장엄한 복진》은 몇걸음 옮겨보지도 못하고 삼십륙계 줄행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인민군대의 노도같은 진격앞에 추풍락엽의 신세가 된 《국군》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슭》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길들과 다리들은 너무나도 비좁았다.

이 나라 장강의 하나인 한강의 거무튀튀한 세멘트다리도 시퍼런 물속에 뿌리박고 놓여진이래 수용능력의 최대수치를 기록해야 했다.

《화랑도정신》을 용감하게 다 땀개친 《국군》장병들의 군화발들이 다리우의 포석우에서 저마끔 발등밟을내기를 하고 짐을 대충 싸맨 어중이떠중이들이 란간쪽으로 밀리어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아부재기를 치고있었다. 군대와 사민, 승용차와 화물차, 포차들이 바늘꽃을 뜯듯 없이 다리우에 올라서서 굼벵이처럼 한치한치 기여갔다.

그속에 애매하게 끼여든 가라말이며 하늘소들이 이게 웬 번이냐 하는듯 순박한 큰 눈을 데룩거리며 발통디딜 자리가 없어 좌우로 허청거렸다.

그속에서 강한 놈은 역시 어떻게 도금한 별이라도 어깨에 께단 놈인가부다.

이 란리통에서도 아직 군력살이 빠지지 않은 한 장교가 군용차 앞창틀을 짹 붙잡고 엉거주춤 서서 죄없는 하늘에다 권총을 갈겨대며 길을 내라고 쪼 먹던 힘까지 다해 고아대고있었다.

그 순간 다리밀경간에서 때아닌 우뢰소리가 짹하고 울리고 시퍼런 섬팡이 번쩍 일더니 술한 차량과 사람을 거느린 두개의 경간이 경총 높이뛰기를 했다. 그와 동시에 수백명의 《국군》장병들과 차량들이 마치 사태라도 난것처럼 시퍼런 물속으로 쓸어들어갔다.

그래도 아직 배를 못 채운듯 악마의 혀바닥처럼 시퍼런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물속으로 달려오던 형형색색의 승용차와 군용차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지옥행에 합세했다.

《와—와—우—》

처절한 울부짖음과 비명소리로 폭파된 다리부근은 그야말로 지옥의 악마구리 끓듯 했다. 말

로만 들어오던 지옥의 세계가 여기에 펼쳐진 듯 싶었다.

그 와중에는 물귀신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벗어나 시퍼런 강물위에 얼굴을 내밀었다들이밀었다하며 허우적거리는 용맹한 사병들도 보이였다. 허나 그들의 머리위로 육중한 포차가 내리덮치며 정확한 골반이로 그들의 생을 맵시있게 마무리해주었다.

그 지옥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숨이 붙어 간신히 기어나온 둘째형을 비롯한 몇몇 사병들은 그 다음 날에야 이 《거사》를 연출한 비상한 모사들이 다른 아닌 미국놈과 작당한 《국군》총참모부의 《어르신》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눈물림신경이 마비된듯 한동안 동자가 굳어져있다가 채머리를 열심히 흔들어들었다.

《가들이 눈썹이 썩었다구 제 패거리 넘어오는데 다리를 똑파한단 말이냐?》

그러자 같이 온 몸이 버쩍 마른 사병이 버릇없이 담배를 뽕뽕 빨아 연기를 뿜어대며 씹어빨듯 뇌까렸다.

《행, 저두 후에 들었는데요. 군부어르신님들 말이지요, 공산군공격로를 차단한다는데쇼. 〈국군〉아이 몇백명쯤 물귀신에게 진상해도 공산군공격은 지연시켜야 한다 그거죠. 정말 대범들 하시지요.》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러 통탄했다.

《말세로구나. 아! 이 나라의 총재님들은 왜 이리도 불쌍한지냐?》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둘째형이 운명하였다. 림종의 그 시각 둘째형은 모지름을 쓰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나를 땅에 넣을 땐... 군복을 입히지 말고 물어주어요.》

내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둘째형의 장교복이 피젖은 그대로 무덤앞에서 재가 되어 흩날렸다. 그 재가루가 향방없는 바람에 휘말려 내 얼굴을 스칠 때 그때의 쓸쓸하던 심회를 어떻게 다 말할것인가.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보면 아버지로부터 형들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군복을 걸치고 소연한 이 세상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서글픈것이였다.

그후 나는 아버지를 따라 산간벽지로 피난을 왔다.

내가 거기 그냥 있으면 《국군》에 징집되든지 부역에 끌려나갈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 골안에도 미군과 《국군》패잔병들이 장마에 홍수 밀려오듯 쓸어들어오고 포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구하여 이 아군에서 전선이 고착된듯 밤낮 지심을 울리며 폭음이 울려왔다.

아버지는 수복한 장미를 쫓긋거리며 그쪽을 응시하다가 중얼거리곤 하였다.

《백두산군사들을 한번 만나보구싶구나. 내 한생의 소망이 있다면 너라도 김장군님휘하의 군사가 되었으면...》

나는 세상풍난 다 겪은 아버지의 한생을 철없는 마음으로나마 뜨겁게 체감해보며 싱숭생숭한 생각으로 가슴을 옥죄이곤 하였다.

인민군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먼길 떠난 랑군을 기다리는 새아기의 애틋한 심정 그대로였고 샛별이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험벗은 어린애의 동심 그대로였다.

기다리던 그 기회는 며칠후 운명이런듯 우리 집에 찾아들었다. 인민군대의 한개 중대가 이 작은 산간오지마을에 나타났던것이다.

《내 드디어 조선의 진짜군대를 만나보는구나.》

그들을 만난 아버지는 주글주글한 얼굴을 축축히 적시며 꺾꺾 소리내어 울었다.

인민군대는 령산계선으로 진출하던 길이었다. 그들은 그 계선으로 바로 질러가기 위해 병풍처럼 둘러친 벼랑을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산세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문의하였다. 아버지는 마치 그러기를 기다리고나 있은듯 나를 길잡이로 내세웠다.

아버지는 이 기회에 어떻게 하든 나를 인민군대에 입대시키려고 속공리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미물 아닌 사람이 새처럼 좋은 가지만 골라가며 앓을수는 없지만 선을 따름은 인간의 본도이다. 이 땅에서 사람구실하자면 다른게 없다. 그저 김장군님부하가 되는거야.》

그 말은 아버지 한생의 총화이기도 하였다. 해방전 그 암담한 시절과 파괴정부의 악정속에서도 오직 백두산 **김일성**장군님만을 흠모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당부를 마음속깊이 새긴것은 결코 아니였다. 다만 여기 계속 눌러앉아있다가는 둘째형처럼 치욕스러운 《국군》살이를 강요당

할수 있다는 위구심에 조바심쳤을뿐이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민군대탄원의 용단을 내리게 했다.

3

결사적인 싸움으로 48시간동안 이 계선을 사수한 중대는 곧 철수준비를 서둘렀다.

태양의 잔광이 포연으로 흐려진 서산의 나무우듬지들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중대가 출발을 위해 정렬하고있을 때 갑자기 아찔러운 동음이 울리며 적기편대가 덮쳐들었다.

《엎드렷-》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한채 내달리기 시작했다.

폭음이 귀를 멍멍하게 하고 기총탄이 맹수의 울부짖음같은 휘파람소리를 내며 나의 앞뒤에서 먼지를 일구었다.

한순간 열이 나가 벼랑에 몰린 산양처럼 오도가지 못하고 섰는데 누군가 나를 덮쳤다. 순간 주위에서 《파르릉.》하는 폭음이 울리며 폭풍이 휘몰아쳐왔다.

잠시후 내가 뒤집어쓴 먼지를 털며 비척비척 일어서보니 종군기자 김석영이 한옆에서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

그의 왼쪽군복바지에 피가 질게 내배여있었다.

중대장과 전사들이 달려와 기자를 급히 은폐호로 안아갔다. 여기저기에서 검은 포연이 타래쳐오르고있었다. 나는 허청허청 따라가며 정신없이 외었다.

《나때문에... 나때문에... 선생님이...》

위생병이 종군기자를 구급처치하는 은폐호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있었다.

중대장이 나를 보더니 금시 얼굴이 험상스러워졌다.

《왜 불에 덴 소 날치듯 하며 그래? 엉? 그래가지고도 뭐 군대가 되겠다구?...》

날 당장 쫓아보낼것만 같아 간이 콩알만 해있는데 처치받던 기자가 얼굴에 애써 너그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 무사하지 않았습니까. 너 다친데 없니?》

《난 일없어요... 선생님만...》

나는 급작스레 들이닥친 이 현실앞에 너무도 속이 상해 눈물이 다 찢금 나왔다.

《사내가 울긴... 약간 스쳤으니 걱정할건 없어.》

그러더니 침통한 얼굴로 서있는 중대장에게 뇌었다.

《출발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난 전방군의소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중대의 짐박에 될게 없지요.》

중대장이 한동안 말없이 얼굴이 흐려져있다가 종군기자의 손을 짝 틀어잡았다.

《이렇게... 헤어져야겠군요.》

종군기자가 힘겹게 일어나앉아 기름종이에 쓴 원고묶음을 전투가방에서 꺼내더니 중대장에게 내밀었다.

《도착하는 즉시 상급문화부를 통해 〈전선신문〉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중대장이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이건 기자동지가 전사하지 않구?!...》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맡기는겁니다. 난 취재수첩이 있으니 다시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원고묶음을 배낭속에 넣으며 주위를 일별했다.

《1소대장! 호송병 두명 준비시키시오.》

기자가 손을 내저었다.

《그러지 마시오. 중대는 시작부터 힘겨운 전투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전투원들을 때면 안됩니다. 나에겐 이 선우동무를 붙여주십시오.》

중대장이 못미덥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서둘러 기 짝이 없는 동작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시오. 내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겠어요.》

중대장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내 손을 으스스리게 쥐었다.

《그럼 좋아! 그러나 다시 안 와도 돼. 강계에서 만나자구. 군의소차를 타고 종군기자동지와 함께 움직이라구. 그리구 참, 저... 입대는?...》

중대장이 돌아보자 기자가 머털 끄덕였다.

《강계에 가게 되면 제가 힘쓰지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시오.》

그리하여 나는 령산에서 중대와 헤어져 종군기자와 함께 전방군의소로 가게 되었다.

기자를 부축해가는 길에 나는 우리가 간다는 강

계에 대해 물어보았다.

《강계는 자강도의 소재지요. 조국의 복단이 지.》

《저… 먼가요?》

《한 천오백리 될거요.》

《네?!》

강계가 고작해서 몇십리안에 있는 어디 먼소재 지인가 생각했던 나는 흠칫 굳어지며 우뚝 서버렸다.

《왜 거기 갑니까? 부산을 코앞에 두고 왜 물러섭니까?》

기자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급변한 정세에 대하여, 그에 대처한 현단계 인민군대의 전략적방침에 대하여 요약해서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왔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이었다.

15개 나라 추종국가 대군이 밀려온다?!… 왜? 뭇때메?!…

몇날안팎으로 얼음판에 박밀듯 밀고나가 전쟁이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물러서다니?!…

그렇게 입대를 갈망하며 따라온 인민군대가 전전선에 걸쳐 이 나라 복단까지 물러선다는 사실은 나에게 정신적허탈감을 안겨주며 당황케 했다.

길안내를 하며 중대의 앞장에서 벼랑을 뚫아오르던 나의 억센 두다리는 부상당한 기자의 다리보다 더 허청거리는것 같았다.

전방군의소가 자리잡고있다는 밤골이 가까와올수록 나의 심중은 더욱 착잡했다.

이 나라 복단의 초면강산에서 나를 기다리는것은 무엇일까.

진정 인민군대가 거기서 다시 버티어내어 형세를 돌릴수 있단 말인가.

밤골은 고요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태양의 잔광도 곰같이 자리잡은 우중충한 서산봉우리에 다 빨리위들어간듯 가뭇없이 사라지고 밤의 사신들인듯 한 어둠의 장막들이 등굽은 소나무밑이며 짝 벌어진 바위밑창에 도사리고 서서히 세력을 합세하고있었다. 고적에 애태우는 산새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전방군의소는 없었다.

여기저기 파헤쳐진 천막자리가 보이고 쓰고버린 주사약병들과 봉대쪼각들이 나뒹굴뿐이었다.

이지리진 차바퀴자리들이 싱싱했다.

령산계선에서 마지막중대가 철수했으니 전방군의소도 담가대가 온 후 곧 철수한게 분명하였다.

《?!…》

가을바람이 우— 불어오며 락엽들이 흩날렸다.

어디선가 간단없이 포성이 울려왔다.

서서히 피여올라 감도는 자오룩한 안개속에서 나와 종군기자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

《?…》

무엇인가 서로서로 묻고있었다.

그러나 가야 할 멀고먼 길에 절벽강산이 마주선듯 한 이 좌절감앞에서 그 누구도 먼저 제 속마음을 헤쳐보이기 저어하는듯 했다.

기자가 베어버린 나무밑등에 천천히 앉아 가치담배 한대를 꺼내물었다.

한모금… 또 한모금 안타까울 정도로 말이 없고 가슴조이는 침묵이 흘러갔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그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그 원고들이 꼭 가야겠는데…》

순간 나는 아연해졌다. 귀를 의심했다.

절해고도에 휘부러진듯 한 이 좌절앞에서 중대장에게 보낸 원고를 생각하다니?!… 허, 그럴 여유가 있는가.

그게 그렇게도 중하단 말인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민군군인도 아니고 공화국국민도 아니다.

차까지 놓쳐버린 정황에서 기근에 허리며 조이고 한밤에는 가을날 선기에 몸을 웅송그리며 천여리 먼길을 부디 고행해야 할 리유가 있단 말인가.

나의 마음이 태풍속의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 종군기자는 물을것이다.

명령도 요구도 아닌, 천근같은 무게를 담아 나에게 물을것이다.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끝까지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뜻을 버리고 나의 작은 초가집 수수바자안으로 되돌아가겠는가.

이 길은 유람객의 등산길도, 살발은 친척집의 나들이길도 아니거늘 나는 나의 운명을 걸고 대답해야 한다.

어디선가 무리지어 날아가는 계절조들의 찾고 화답하는 정다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들이 깃을 펼 요람을
찾아 날고 또 날아가는 계절조!

아, 내 안겨살 품, 나의 요람은 정녕 어드메
냐?

줄담배 석대를 태우고난 종군기자는 지팽이에 의
지해서 천천히 일어섰다.

《자! 선우동무, 떠나봐야지.》

흔연스레 말하는 품이 이웃집 마실방이라도 다녀
오려는 사람갈아 난 의아해서 그를 마주보았다.

《어디로요?》

《어디로라니?》

기자가 오히려 의아해하며 나에게 되물었다.

《강계가 이웃동네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 멀고먼 길이지.》

내가 주눅이 든 표정으로 잠자코 있자 종군기자
가 낯선 사람보듯 주의깊은 시선으로 한동안 지켜
보았다.

《동무는 인민군대에 입대할 응지를 품고 큰걸음
을 땀줄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어데 있어요? 총총히 다 사라지고 어디
있나 말이에요? 강계에서 다시 일어설 군대라면 애
당초 여기서 왜 물러서는가 말입니다.》

나는 리성을 잃고 부르짖었다. 좌절과 상실의 아
픔을 이렇게라도 터치지 않는다면 부글부글 끓어오
르는 속이 터질것만 같았다.

《뭐라구?...》

종군기자의 안경알이 서늘한 빛을 뿌렸다.

나는 한순간 그 눈길과 마주치며 주춤했다가 목
이 멘 소리로 계속했다.

《선생님의 신상을 놓고봐도 방조자가 가장 필
요한것도 알구있구... 사람도리할 준비는 되어있어
요. 다만 내가 살 곳은... 내가 안길 품은 아! 없
어요. 없어!》

순간 나의 머리우에서 벼락치듯 하는 소리가 들
렸다.

《넌두리는 그만해!》

나는 꿈쩍 놀라 기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손에 파악 쥐고 땅에 박고있는 오동나무지
팽이가 가볍게 떨고있었다. 온화하던 얼굴은 어느
새 엄엄한 얼굴로 변해있었다.

나는 그를 두려운 눈길로 마주보았다.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저력있게 입
을 열었다.

《순철이! 이 길은 그 어떤 의협심으로나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야! 운명의 동행자들만이
함께 갈수 있는 신념의 길이야. 나에겐 일곱발의
권총탄알이 있지만 너에겐 군복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안길 품이 다 깨여졌다고 생각한다
면 여기서 돌아서라구!》

그는 모든걸 각오하고있는듯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순간이 천년인듯 길어보였다.

나는 인민군대군복을 입고저 했다. 이 연약한 몸
을 그 군복으로 감옷처럼 감싸려 했다.

하지만 그 인민군복장도 아버지나 형들이 걸쳤던
군복과 같이 속절없이 헛된 피로 적서지고만다면
운명은 얼마나 야속하고 가혹한것이나.

하다면 나의 작은 초가집, 수수바자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그 곰삭은 울바자가 풍난을
막아줄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한순간 운명의 갈림길에서 방황했다.

《제 좀 생각을...》

종군기자가 무겁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하긴 운명적인 결심이니깐...》

그는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대범히 말하
였다.

《끝까지 가지 못할바엔 애당초 물러서는게 낫
지.》

그는 절록거리며 다가와 지금껏 내가 메고온 자
기의 초연스민 배낭을 오른쪽어깨로부터 천천히 벗
기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더는 기대를 거는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왁살스럽게 벗기었다면 내 마음이 좀 편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배낭을 벗기우고보니
몸이 홀가분해진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걸머진
듯 다리가 허청거렸다. 한순간 삶의 의미를 자각
케 하던 귀중한 그 무엇이 뭉청 뜯기워져나간것 같
았다.

배낭을 너럭바위우에 올려놓은 종군기자는 풀이
죽어있는 나를 보며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갈 땐 가더래두 알고 가라구. 이 길이 고난에
찬 길인줄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너를 이끈것은 내
일신상의 방조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이 길이 너에겐 후회없는 길이기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예 난 너를 이끌고가는것을 한순
간도 주저해본적 없고 마음꺼린적 없어. 난 네앞
에서 무엇보다 성실한 만형이 되자고 생각했을뿐
이야.》

그가 배낭을 뒤적거리더니 준비해온 건빵 한봉지

를 바위우에 꺼내놓았다.

《가면서 요기하라구.》

《선생님!》

선선한 마가을바람이 우— 불어오며 진땀이 배기 시작한 나의 이마를 성가시게 활아주었다.

그가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잘 가라구. 선우순철이…》

그가 한손을 가볍게 들어보이며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자그마한 미련도 없이 강인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내가 그를 버린게 아니라 그가 나를 버리었다.

나의 마음은 번거롭고 착잡했다. 그리고 서글퍼졌다.

나의 참군의지를 그리도 값높이 쳐주며 서슴없이 손을 내민 사람! 위급한 순간엔 한몸 내대며 나를 구원해준 은인.

저런 참인간이 가는 길에 의혹을 품을수 있으며 저런 참인간이 입고있는 군복에 비애의 음영이 비쳤다고 치부할수 있단 말인가.

바위우에 땡그러니 놓인 빵봉지가 나를 조롱하는것 같았다.

가자! 따라서자! 앞날은 가히 기약할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각엔 참인간으로 망막에 비껴든 중군기자 그 한사람을 따라서고싶었다.

드디어 추석달이 교묘히 비치는 밤골안에 찌르려대는 풀벌레소리를 한순간에 눌러버리며 다급하면서도 집에 질린듯 한 목소리가 드렁드렁 울려퍼졌다.

《선— 생— 님—》

4

밤골에서 떠나온지도 일주일이 지나갔다.

산악지대를 돌파해온 나의 발바닥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큰형이 입던 검은 학생복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다. 고난은 예상보다 더 참혹했다.

한끼분의 건빵은 행군 두번째 날에 없어지고 입에 넣는것은 산열매와 간이 없는 산나물국이었다.

그러나 기근보다 더 나의 심신을 괴롭힌것은 적지에서 살포되는 삐라의 내용이었다.

마치 꽃보라처럼 빨강고 노랑고 파란 삐라장들이 뿌려졌는데 그것은 이 나라에 밀려든 15개 추종국

가들의 국기였다. 그 각양각색인 국기색갈을 바탕으로 하여 완전전투복장을 하고 살기가 철철 흐르는 그 나라 병사들의 모습과 신형화된 전투장비들이 찍혀져있었다.

심리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떤 삐라에는 제놈들이 인천에 상륙했으며 인민군주력부대는 몽땅 포위되고 《유엔군》은 압록강을 향해 질주한다는것과 귀순하는 인민군대가 《자유세계》로 찾아올 략도까지 그려져있었다.

적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전《공세》를 벌리고있을 때 나는 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중군기자로부터 《정치상학》을 받았다.

나는 이 《정치상학》을 받을 때마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그의 식견과 리론전개의 심오성보다 문제해명에 립하는 략관적인 어조, 해학적인 표현에 더 심취되곤 하였다.

《선생님! 미국놈과 작당해서 15개 나라가 밀려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긴다고 하지만 악의 무리가 이처럼 어마어마할진대 어떻게 선이 이길수 있어요?》

어느 한 수림속에서 숙영할 때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별로 깊이 생각하는것도 없이 대답했다.

《이봐, 하루살이도 폐를 지어 날 땡 큰소리를 낸다는 말이 있어. 그렇다구 하루살이운명이야 어디 가겠나. 이제 보라구. 어제는 좁은 전선에서 미군이 녹아났다면 오늘은 조선이라는 넓은 전선에서 미군이 녹아날걸세. 한마디로 적들은 함정으로 밀려오고있어. 우리 장군님 가리키신 그 길은 틀림없는 승리의 지름길이야!》

《정말 이길수 있을까요?》

《이기지. 그런데 문제거던, 큰 문제야.》

그 말을 할 때 그는 왜서인지 능청스럽게 미소지었다.

《뭐가요?》

《그 술한 놈 송장처리가 말일세. 어쨌든 이 땅에 그냥 널어놓을순 없잖소.》

나는 얼뵈해 듣고있다가 얼결에 응수했다.

《하긴 가만 생각하니 그렇구만요. 짜식들 죽을데가 없어 여기로 죽으러 온단 말이에요?》

《허허…》

《하하하…》

그와 대화할 때마다 나는 때없이 시름없는 미소를 지었고 양천대소하곤 하였다.

그러나 나의 복행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종군기자와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날 종군기자에게 편지를 써서 겨우 승낙을 받고 식량구입을 위해 산을 내려갔던 나는 어느 한 산간 마을에서 싸다니던 불한당들에게 걸려들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자들에게 내가 피난다니던 방랑객이라고 우겨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자들은 나를 고삭은 벼짚이영을 썬 어느 한 창고에 밀어넣었다.

자칭 《멸공구국회》라고 하는 그자들은 밀려들어난 미국놈들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 《불온분자》가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 창고엔 연령이 각이한 스물댓명가량의 사람들이 갇혀있었는데 대개가 토배기들이었고 혹 후퇴해 들어오던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 갇힌 토배기들은 인민군대가 들어오며 실시한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들을 앞장에서 받들었고 후퇴하는 인민군대를 도와 밥을 지어주고 식량을 대주었다는 죄로 반동들에게 끌려왔다고 했다.

반동들은 이미 아들을 의용군에 내보낸 두세대 가족전부를 초가집과 함께 불속에 물어버리고 살기가 등등해있었다.

해방전부터 면에 들어오는 쌀과 담배, 목화와 약초를 비롯한 공출물들을 건사했다는 그 창고는 널마루가 깔려있고 꽤 널찍했다. 빠질 구멍을 찾으며 탈출을 시도해보았지만 감시가 엄격했다.

나의 속은 빠질빠질 타들어갔다. 지금 산속 동굴에선 종군기자가 눈이 빠지게 나를 기다리고있을 것이다.

창고에 갇힌지 3일째 되는 날 반동들은 우리들 중 몇사람을 군에 압송하고 나머지는 면에 들어온 《국방군》군수품운반에 내몰았다.

그때에야 나는 기회를 얻어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날 저녁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떠나와서 3일이 지난것이다.

종군기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있겠는지...

십중팔구 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갔을것이다.

때가 때니만치 이 준엄한 적후에서 썸평 좋게 지체할수는 없는것이다.

나의 눈가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피어올랐다.

누구를 원망하랴. 우리를 갈라놓은 그 운명이 야속할뿐이었다.

내가 떠나온 20리 떨어진 산정이 뿌연 운무속에 아슴푸레 올려다보이였다.

주위의 잡관목들에선 빨강던 단풍잎들이 누렇게 퇴색되어가며 마가울바람이 우- 불어올 때마다 자기를 키워온 앙상한 나무에게 하직인사를 나풀나풀 하며 정처없이 훑날려갔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독감이 엄습해왔다.

번민끝에 나는 힘이 들어도 내가 떠나온 산정의 동굴까지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종군기자가 떠나가며 혹시 그 무슨 편지라도 남길수 있지 않는가.

날이 어두워서야 허위허위 낭떠러지밑의 동굴에 당도한 나는 한순간 숨이 딱 막히는것 같았다.

알싸한 내내와 함께 가벼운 기침소리가 동굴안에서 울리지 않는가. 아, 운명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선생님!》

내가 허청이며 달려들어가자 불무지앞에 마주앉아 다리상처에 무슨 약을 붙이던 종군기자가 벌떡 일어섰다.

《선우동무!》

나는 종군기자의 허리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듯 짹 부둥켜쥐고 오래도록 몸을 떨었다.

그가 늦게 온 사연도 묻지 않고 나를 불가에 끌어앉히며 다심하게 말을 이었다.

《뭘 변변히 요기도 못했는지.》

그는 군용물통과 함께 건사했던 보자기를 풀어놓았다.

보자기안에는 뜻밖에도 누런 건빵들이 가지런히 쌓여있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내가 어안이 병병해있자 그가 빙그레 미소지었다.

잠시후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종군기자는 내가 산을 내려간지 이틀째 되는 날 후퇴해들어오는 한 인민군중대를 만나게 되었다.

적후에 부상당한 몸으로 홀로 남은 그가 그때 어떤 심정이였겠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허나 그는 것처럼 함께 떠날것을 권고하는 인민군전우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찾아왔다가 빈 동굴을 보며 락심천만

해할 나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얼른거렸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럴수 있을까. ... 나는 반신반의하며 중뿔 보듯 물었다.

《만약... 내가 끝내 못 온다면요?》

《그뎐... 내가 동무를 찾아 떠나야지.》

혼연스런 대답이었다.

《!...》

나는 잉결불빛이 너울거리며 춤추는 안경 낀 그의 온화한 얼굴을 났을 잃고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인정이 두텁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도 있는가.

그가 나의 속생각을 읽은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선우동무! 운명의 동행자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게 아니지. ...》

나의 혈끔해진 두볼을 타고 어느새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목이 메어 부르짖었다.

《선생님!— 난 선생님과 의형제를 맺고 싶습니다. 세상이 열두번 변해도 선생님만 만형처럼 믿고 의지해살고 싶습니다.》

그가 너그럽게 미소지었다.

《허허, 의형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 동지가 되자구.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가 되잔 말이요.

이제 선우동무가 총을 잡고 장군님군대가 되어 싸우느라하면 우리 운명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장군님의 그 심원한 동지애의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거요.》

나는 그때 물론 그 말의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며 그 어떤 안정감을 느끼었을뿐이다.

천신만고하여 한치한치 길을 뚫아온 우리는 북한 강지류인 홍천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북으로 향하는 30여명의 인민군부상병대렬과 100여명의 사민대렬을 만나게 되었다.

사민들은 도중에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비록 전투능력을 상실한 부상병들이고 비 전투원들이었지만 한길을 가는 동행자의 대부대를 만난것으로 하여 우리의 얼굴은 안개걸린 가을하늘

처럼 환하여졌다.

중위령장을 단 얼굴이 가름하고 쌍까풀진 눈을 가진 군의처녀가 대렬을 지휘하고있었다.

중군기자는 여기서 마취약도 없이 끊기 시작한 허벅다리에서 파편을 끄집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는 홍천강도하를 위한 정찰조가 파견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하기재인 때목을 못기 위해 통나무를 준비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메고온 소나무에 걸터앉아 땀을 들이는데 그새 정찰나갔던 경상자들이 돌아와 군의처녀에게 뭐라고 보고하였다.

중군기자도 그옆에서 그들의 보고를 청취하는데 매우 흥분된 얼굴이었다.

잠시후 통나무준비를 중지하고 모두 모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내가 의아해 모여든 사람들속으로 다가가 외투를 걸친 키 큰 중년사나이뒤에 섰는데 군의처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몹시 흥분되어 울려나왔다.

《여러분! 도하기재는 여기서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기슭엔 적지 않은 통나무들이 밀려나와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나무들인가? 하늘이 우릴 돕는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속에 군의처녀가 숙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 나무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서울시민들의 땀감용으로 설악산에서부터 띄워보낸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

모두들 제 귀를 의심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운명이 경각을 다투는 이 준엄한 후퇴의 나날에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장군님께서 서울시민들의 겨울용땀감문제까지 마음쓰실 여유가 있단 말인가.

군의처녀가 걱정예 휩싸여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전채 가볍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군의처녀를 대신하여 중군기자가 흥분된 얼굴로 한결을 나섰다.

《여러분!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한여름에 벌써 서울시민들의 겨울용땀감을 걱정하시여 설악산에서 화목을 미리 준비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세가 급변하여 우린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채벌장일군들은 모두가 피눈물을 쏟으며 애써 장만한 수십만립방의 통나무를 뭉땅 불살라버릴 비

장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급변한 정세로 일각이 천추같은 그 긴박한 나날에도 몸소 전화로 채별장일군을 찾으시어 그러면 안된다고, 미국놈들이 들어와도 서울시민들은 겨울을 나아 한다고 하시면서 인원을 보충해줄터이니 나무를 동강내어 강물에 띄우라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건져 겨울을 날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정녕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보살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이 준엄한 나날에도 수십만립방의 통나무가 화목용으로 홀러내려왔습니다!》

그 누군가 두손을 버쩍 쳐들며 목메인 소리로 웨쳤다.

《만세 — **김일성**장군 만세! —》

모두가 일제히 호응했다. 군중들의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골안을 드렁드렁 울리었다.

종군기자가 두눈을 습벅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힘을 뱉시다! 조금만 더 가면 아군 제2전선련합부대가 활동하는 근거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홍천강일대에서는 계속 북으로 들어오는 후퇴대렬을 엄호하기 위해 아군소부대들이 맹렬한 적후교란작전을 벌리고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갑시다.》

또다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나도 그 흥분의 도가니속에 빠져들어갔다.

가자! 어서 나가자! 이제부터는 더는 주춤거리지 않으리, 돌아다보지 않으리. 한걸음도 뒤지지 말고 발맞추어 어서 가자!

수정같이 정갈한 실개천물이 이따금 빨간 단풍잎을 떠싹고 주절주절 무엇인가 속삭이며 흘러가고있었다.

가는 길에 천길벼랑이 있고 깊은 소가 있고 너럭바위가 막아나서도 강으로, 바다로 어서 나가자고 끝없이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허나 우리는 북으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 대렬과 동행하지 못하였다.

5

그때 나는 대렬과 함께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준비라야 북철에 개허바다처럼 너덜거리는 신발

밑창을 끈으로 비끄러매고 종군기자의 배낭을 전사하면 된다.

내가 대렬뒤로 다가가 군의처녀가 이야기하는 행군주의사항을 듣고있는데 종군기자가 나를 대렬뒤 공지로 이끌었다.

주위에선 락엽이 스프럭소리를 내며 텅굴고있었다.

종군기자는 메고있던 밤색가죽전투가방에서 등글게 말아 밀봉한 원고를 꺼내들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어느때없이 진중했다.

《선우동무, 이제 근거지에 들어가면 곧 문화부를 찾아 이걸 꼭 전해주오.》

얼결에 받아들고보니 《전선신문》편집부에 보내는 원고였다.

밑에는 민주조선사 종군기자 김석영이라는 글자가 활달한 필체로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행군도중 달빛아래서 째짤이 쓰던 그 원고가 분명했다.

나는 의아해 머리를 버쩍 들었다.

《헌데 이걸 왜 제가 전해요? 선생님은...》

종군기자는 우리가 톡아온 남쪽산마루를 한번 보고는 혼연스레 입을 열었다.

《난 어디 좀 갔다올테가 있소.》

《예? 무슨 말씀인지?...》

《한 70리 된다는데... 여기서 되돌아서야 할것 같애.》

난 어안이 병병해 군관혁띠를 짜악 조이고 위장망을 걸치고선 그의 침착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어떻게 한치한치 톡아온 길이라고 다시 돌아서다니니?!...

나는 금시 서운해지는 마음을 감출수 없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잔 말씀인가요?》

《다시 만나게 되겠지. 동무에 대해서는 거기 편지로 썼소.》

《비밀이 아니라면... 말해줄수 없어요? 도대체 왜 다시?!...》

종군기자가 한참만에 사연을 이야기했다.

...130여명의 후퇴대렬에는 적후습격의 길에 나갔다가 뒤늦게 귀로에 오른 다섯명의 아군습격조원들이 동행하고있었다.

그 후퇴대렬이 쌍봉계선에서 피멸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적들은 50여명의 특공대놈들을 락하산으로 투하시켜 쌍봉계선을 장악하고 끝없이 북으로 들어가는 후퇴대렬을 짓밟개려고 꾀하고

있었다.

불의에 조성된 정황앞에서 다섯명의 전투원들은 작별인사도 미처 나누지 못하고 싸움터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습격조를 책임진 분대장은 체대가 거울지고 온 순해보이는 젊은이였는데 갑자기 적탄알이 비발치자 대렬을 옆으로 뺏으라고 군의에게 사납게 소리치고는 제일먼저 전투에 돌입하였다. 치열한 총격전은 20분동안 계속되다가 잠잠해졌는데 마지막으로 메아리쳐온것은 수류탄 터지는 폭음이었다.

그들의 결사적인 싸움으로 후퇴대렬은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그 다섯명의 아군전사들은 이름도 생사도 알 길이 없다....

나는 떠날 준비를 하는 기사를 한사코 막아섰다.

《안돼요. 그 일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도로 간단 말이에요? 안돼요. 그 몸으론 못 가요!》

《선우동무, 이 일은... 누구도 대신 못해!》

《글쎄 취재가 기자의 임무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개개 전사들의 행적을 일일이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전쟁인데 그렇게 싸우는 이름 없는 전사가 한둘이겠어요?》

종군기자의 검은 테 두른 도수안경알속에 불타는 태양이 그대로 비껴들며 눈부신 은백색반사광을 발산했다.

그 은백색반사광이 나의 온몸과 땀도 따뜻이 어루쓸고있었다.

《선우동무... 그 무명전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앞에 내세우는것은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의 높은 뜻이요. ...》

그가 은은한 눈길을 들어 햇숨같은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북녘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우리가 전선으로 파견되어나올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종군기자, 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었소.》

《그럼 장군님을 만나뵈웠어요?》

《뵈웠소. ...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친필존함이 새겨진 신임장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소.

우리 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우리 전사들이 세운 위훈을 다 알아야 한다고, 설사 남모르는 오솔길에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 전사

는 있을수 있어도 무명전사란 있을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소. 그러시면서 우리의 병사 한사람 한사람은 인민이 우리에게 맡긴 귀중한 아들딸들이라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 끝까지 알아보고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소.

그 자리에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울 때 우리는 쓰러진 한명의 전우를 찾아 100여리 눈보라 속도 뚫고 적후에도 들어갔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나라 인민과 전사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지켜주기 위해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소. ...》

《!...》

《선우동무, 내가 가는 이 길은 결코 명령과 의무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남모르는 곳에 쓰러진 이름없는 전사도 모두 한 품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되어가는 길이요.

선우동무, 우리 전사들은 바로 이 위대한 품에 안겨있소. 그래서 자기들의 운명파도 같은 그 품을 지켜 우리 전사들이 것처럼 강한것이고 천만군민이 천겁만겁으로 지켜선 그 품은 그 어떤 대적도 깨지 못하오.》

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내 가고있는 조국의 북단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뛰던 이 작은 심장이 승엄한 그 무엇에 의해 세차게 태동하는것 같았다.

나의 만형과 둘째형의 운명이 느닷없이 나의 눈앞에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나라가 없는탓에 왜놈들의 총알받이로 청춘의 꿈도 향학열도 이국의 황야에 맥없이 물어버린 나의 만형.

둘째형 역시 그래도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하여 한가닥 기대를 안고 군복을 입었건만 병사들의 목숨같은것은 파리나 짐승따위의 생명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제와 그 괴뢰하수인들은 수많은 《국군》병졸들을 눈섭 한번 깜박않고 한강에 제물로 바치었다.

통치자들의 시야에 비긴 병졸들은 녹슨 총창처럼 감정이 없는 한갓 전쟁수단일뿐이었다. 황야에 쓰러져 림종의 고통에 몸부림쳐도, 포로가 되어 철조망속에서 반생을 보내도 부서져나가 쓸모없는 방패로 여긴것이다.

아,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신 **김일성장군님!**

정녕 운명을 맡기고 한목숨 아낌없이 바칠 그 품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

나의 눈귀는 어느덧 맑은 눈물에 축축히 젖어들었다.

나는 지금껏 후회없을 길을 왔다. 그 품을 찾아가고가다 숨진대도 후회없을 길, 열백번 고쳐 죽어도 달리될수 없는 내 운명의 길!

그리하여 나는 온 세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있던 가장 엄혹한 그때 적후에서 남모르게 쓰러진 전사들을 찾아 결연히 발길을 돌린 종군기자를 따라 다시 남으로 내려가게 되었던것이다.

×

그후 병사들이 마지막결사전을 벌린 쌍봉을 찾아 아슬아슬한 사선의 고비를 넘으며 헤쳐간 그 이야기는 더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영명하신 장군님의 품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처절한 결사전을 벌린 다섯명의 인민군전투원들은 이미 그곳 산간오지 마을사람들에 의하여 양지바른 곳에 합장되어있었다.

다행히도 그 마을 좌상로인이 희생된 전사들의 군인증과 소지품을 간수하고있었다.

밤이 새도록 그 좌상로인의 집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원고지에 만년필을 달리던 종군기자는 새벽녘에 마당에서 마을동정을 살피던 나에게 다가와 이런 사연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선우라는 성을 가진 분대장이 있었다는데 들어보오.》

…전투가 끝난 후 포연질은 봉우리우엔 《선우》 성을 가진 분대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숨이 붙어 간신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마을로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였다고 한다.

《내 고향은 여기 남조선의 ××군입니다. 왜놈군대에 학도병으로 끌려나갔다가 겨우 살아돌아왔습니다. 압록강쪽으로 귀국해오며 보니 북이 사람세상이여서 거기에 떨어졌구 소망대로 **김일성장군**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늙은 부모님들에게 전하고싶어 편지를 썼는데 나라가 갈라지고 전란이여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후에라도 이 주소에 알아보구 꼭 전해주시시오. 그리고 내가 **김일성장군**님의 군사로 눈을

감았다는것도…》

기자가 보여준 밀봉한 그 편지봉투를 받아보는 순간 나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선우봉서아버님 전. 아들 선우금철 상서.》

국한문이 뒤섞여진 눈에 익은 필체에서 아버지의 성함과 만형의 성명을 알아보며 나는 한순간 숨이 딱 막히는듯 하였다.

눈굽이 파가와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일은 잘 생각나지 않았다.

다섯명용사들의 합장묘에 엎드려 오래동안 오열을 터친것 같다.

그때 내가 터친 눈물은 단순히 형을 잃은데서 오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였다.

형은 왜놈군대가 되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부되어있으니 부모님들과 나에게서 이미 슬픔을 자아낼만큼 자아낸 사람이다.

내가 흘린 눈물은 우리 만형이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의 군사였다는 자랑과 함께 형이 다시 환생한듯 한 기쁨에서 오는 눈물이였다.

아, 형님은 영명하신 장군님의 그 품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고 위대한 운명의 품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치욕스런 왜놈군복을 걸치고 이국타향의 최전방에서 총알받이로 떠밀리우며 운명을 맡길 그 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안았을 형님이였다.

하기에 준엄한 그 후퇴길에서 고향길을 옆에 두고도 북으로만 줄달음쳤고 그 품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진으로 날아갔다.

그후 쌍봉에서 벌어진 다섯용사의 격전은 《전선신문》에 크게 소개되였고 그들에게 전사의 영예훈장들이 내신되였다.

지금도 우리 집에 걸려있는 만형의 렬사증을 때없이 이윽도록 바라보느라면 남모르는 오솔길에서 생을 마친 한사람한사람의 전사들을 찾아 영생의 언덕에 값높이 내세워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이 뜨겁게 안겨오고 그 사랑의 빛발이 되어 준엄한 적후의 밤길을 누비던 종군기자 김석영의 안경끈 모습이 세월의 안개속을 헤치며 조용히 다가오군 한다.

또한 위대한 사랑의 그 품을 지켜 조국보위초소에서 30여년간 흘러간 나의 군사복무나날들이 류다룬 감회를 자아내군 한다.

들의 서정

리 은 향

봄들관의 서정

새봄을 노래하는 봄노래소리
농장벌에 푸른 주단 펼쳐가는데
저 하늘의 종다리도 벌을 못 떠나
이 눈 저 눈 날아이며 고운 청 합치누나

아서라 종다리야 네 노래 그쳐라
종다리봄처녀의 노래 들어봐
아침저녁 벌에 살며 다듬고다듬어온
고향의 노래란다 봄노래란다

그 노래소리에
이편에선 농장원들 기계손에 불달렸고
저편에선 지원나온 병사들이 신바람나
어느새 또 한배미 척 타고앉았구나

이번에는 설참이라 군민오락회
중대의 랑불 붉은 막내가병사
푸른 수건 곱게 쓴 종다리누나
기어이 불러내어 봄노래 합치잔다
파란 풀잎 돌아난 봄노래무대우에

군민의 랑만을 봄바람에 신자누나

어느새라 합쳐지는 《군민아리랑》
너인들은 소곤소곤 안삼불타령
병사들의 재청은 들판에 차고넘쳐
푸르른 봄의 정서 한껏 돋구누나

이 노래 어찌 봄노래만이라
하늘의 종다리야 너 보아라
저 보배로운 손들이 펼쳐가는
열두배미 푸른 오선지에
군민이 함께 부를 풍요한 가을노래
아지마다 구슬처럼 그려질게다

봄이 와서 봄노래나
가을 불러 봄노래지
종다리처녀야 또 불러라
하늘의 종다리 부러웁게
맑고 푸른 저 하늘을
네 노래로 덮어라

여름풍경

한여름의 피약별은
사래긴 이랑우에 아지랑이 피우는데
줄대같이 실한 강냉이바다
그아래선 네벌김 마주한 땀젖은 손들에
불이 달렸네 불이 달렸네

순애야
이러다간 1분조에 뒤질라
이악쟁이 영희네가 바깥 따라온다
어느새 선녀팔을 다 조긴 철이 엄마
어벌크게 우리와 어깨를 겨루잔다

그런데 이 무슨 웃음소리나
새며느리 갓 맞은 옥이 아버지
분조 다른 며느리 시아버지 앞섰다고
웃음섞인 푸념을 늘어놓아 핫하하
이 바람에 강냉이는 와플 놀라서
또 한바탕 기지개를 부쩍 켜누나

웃음집이 흔들려도 손끝에선 번개불
제대군인 별이 삼촌 병글웃음 남겨두곤

앞으로 썩 — 부리나케 앞섰구나
결승선에 붉은기는 제가 먼저 쏜다나

포기마다 듬뿍 복을 울려라
살점과도 같은 흙
손에 넣고 부스러뜨려 불에 비비면
그대로 어머니의 젖땀같이
포근하고 따스한 흙

그 흙에 우리
농민의 성실한 땀을 묻고 랑심묻어
땀땀이 가을과
두손 맞잡으려니

가자 그 가을을 향하여
한이랑한이랑 누벼가는 이 길에
가을에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애들아 앞을 좀 봐
이랑끝머리에서 풍요한 가을이
행복을 가득히 매어달고
손저으며 우릴 마중오고있는걸

반장아바이

한낮에도 탈곡장을 못 떠나더니
이밤엔 등근달을 날가리에 걸어놓고
가을맞은 반장아바이
뜨락또리지휘에 여념이 없네
1분조는 이쪽 3분조는 저 마당에

옆구리에 꼭 찌른 반장수첩엔
홍그러운 가을수자 춤을 추는데
창자마다 가득찬 강냉이 보면서도
성차지 않는가봐 말장감을 고르는걸
가을 새집 늘굴 자리 이리저리 살피누나

얼마나 좋은가 이 가을은
우리 흘린 땀방울 거두는 이 계절은
온 한해 별바람에 그슬린 반장아바이
산갈은 가을을 다 안았는가
병글썩 웃음대문 닫길줄 모르네

하면서 창자앞의 흘린 이삭 짓고서는
애국심을 흘렸다고 무뎠한 눈 흘기누나
하기야 벼단을 다 꺼들인 벌에서
쭈벌개 벼이삭을 주어왔는걸

아바이 그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땅과 함께 늙어온 우리 반장아바이
누구보다 가을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가을을 잘 알기에

파도치는 강냉이숲 물결치는 벼바다
내 고향의 가을은 그뿐이던가
홀릴번 한 애국심 바로 세워준
우리 반장아바이 그 마음에서
가을은 거인처럼 걸어오고있었네

봄을 깨우는 처녀

두터운 흰눈을 덮은 벌판은
아름다운 봄의 꿈을 꾸고있는데
거름진 처녀의 어깨우에선
봄 봄이 웃고있어요

새해의 첫 대문은
이제 방금 열렸는데
농장벌의 처녀는 이렇게 남먼저
봄을 불러왔어요
등에 진 거름에선 움터날 봄의 향취
별써 풍기는것 아닌가요

처녀가 무쳐놓은 거름더미에서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저 흰 김은

거름밥에 살이 오른 넓은 대지가
처녀의 품에서 기지개를 켜며
잠을 깨며 일어서는 모습은 아닐가요

처녀가 기다린 봄이에요
아니, 처녀가 불러온 봄 봄이에요
처녀가 뿌려놓는 아름다운 봄미소로
넓은 벌은 그리도 환해진게 아닌가요

들이 웃고있어요
벌과 마주 웃는 처녀의 품안에서
봄도 어리광을 부리고있어요
겨우내 거름무지 벌에 낸 처녀의 손이
봄을 깨웠어요 봄을 안아일으켰어요

상 식

7월 27일에 나라의 전역에 패배자의 조기를 게양한 미국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7월 27일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경축의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노래와 춤바다를 펼쳐놓는 우리의 전승절과는 달리 미국의 전지역에는 조기가 걸리고 침울한 분위기가 흐르고있었다.

지난 력사속에서 늘 《승전》의 패감을 맛보며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어오던 미국이 조선과의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56년이 되는 2009년 7월 27일에 드디어 자기들의 패전을 인정하였다. 이날 미국

의 백악관은 물론 국회의사당과 국무성을 비롯하여 정부기관들과 주요건물의 곳곳에도 조기가 걸렸다. 특히 미국전역에 일제히 조기가 내걸린것자체가 이례적인것이다.

이것은 7월 27일을 국가패전일로 선포한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미군을 추모할것을 지시했기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미국회도 이와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감상문》을 본 감상

최진혁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와 더불어 우리 독자들의 예술적소양과 문화수준은 나이와 직종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새로운 문학작품들에 대한 그들의 독후감도 그저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전문가 못지 않은 분석을 가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지난날의 공인된 형상수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롭고 효과적인 형상수법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요구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형상창조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나가야 한다.》

올해 《조선문학》 1호에 실린 단편소설 《감상문》(리희찬)이 그 류다른 제목처럼 독자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줄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해 따져가며 론하기보다는 단편소설 《감상문》을 읽은 독자들의 감상을 그대로 들어보는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하며 좀 례외적이지만 그 일부를 아래에 언급한다.

전문가의 감상

다년간 대학교단에서 문학을 가르쳐오는 과정에 많은 단편소설을 보고 그 사상예술성과 형상의 독특성에 많은 감동을 받아왔지만 단편소설 《감상문》은 그 형식에서 또 새로운 면모를 느끼게 한다.

이미전에 창작된 많은 단편소설들에서 편지체나 일기체 등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들을 볼수 있지만 이 소설처럼 감상문체로 씌여진, 소설전체가 감상문의 아담한 형태를 이룬 작품은 실로 처음이다.

그 제목부터 남달라서 독자들의 흥미를 바짝 끌어당기기엔 충분하다.

소설은 감상대상인 가요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도간도간 인용하면서 그 시작과 마감을 감상문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맞물려놓았다.

새로 나온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에 대한 깊은 감명이 그 구절구절에 담긴 가사적의미에 대한 감상으로만이 아니라 그 진드러진 선률속에 태운 생활의 진실한 형상으로 펼쳐지고있다.

《…

이렇게 시작된 새로 나온 그 노래 〈세월이야 가

보라지〉는 꼭 나를 두고 지은 노래같습니다.》라고 서술한 뒤에 노래 1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노래의 3절 가사를 그대로 인용한 뒤에 《이 구절이 우리 늙은이들의 가슴을 그토록 찌릿하게 해준것도 바로 그때문인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도 이 말의 참의미를 미리 다 알고 집으로 들어왔던것은 아니였습니다. 그 리치를 다 알기까지에는 일을 놓고 집에 들어온 후에 아직 여려날이 더 걸려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가사속에 생활을, 생활속에 가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고있는것이다.

한편의 가요에 대한 감상문속에 하나의 흥미있는 생활담을 재치있게 담아 가요의 의미는 물론 우리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우려나오도록 한데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근본비결이 있는것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소설에 펼쳐진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조성하는 재치있는 줄거리조직이나 어떤 충격적이고 극적인 뒤바뀜이 없이 평탄한 생활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마냥 아담한 정서로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실지로 작품에는 주인공의 년로보장후 한두달사이의 생활이 순차적으로 흘러가고있다.

이렇게 평이한 줄거리에서도 극적긴장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와 흥미는 다른 소설 못지 않다.

그 전체로 주인공 《나》와 며느리사이의 관계를 며느리로 삼는것을 한사코 반대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지지로 들어온 며느리사이의 관계로 설정하였고 수산물상점 판매원과 《나》간의 사제관계도, 또 판매원과 딸간의 동창관계도 맺어지게 된것이다.

생활의 타당성도 충분하고 또 오랜 교육일군으로서의 내면세계도 진실하다.

감상문다운 담담한 어조와 그에 어울리는 로인다운 호흡이 내용에서도 문체에서도 느껴진다.

소설에는 기묘한 인물관계설정이나 줄거리구성, 또 아무러한 갈등도 없고 우리 제도와 생활에 대한 느낌의 서술로 모든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바로 소설이 다름아닌 감상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도입으로 씌여졌으며 그것이 평범한 생활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시대에 대한 긍정과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구가할수 있게 한 독특한 수단으로 되였기때문이다.

하기에 작품은 마감을 이렇게 맺고있다.

《나는 처음 써보는 이 감상문을 내가 젊어지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있는 우리 시대, 우리 고마운 제도에 삼가 바치고싶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에서 고래치는 격동을 안을 수도 있지만 잔잔한 호수가를 바라보며 체험하는 그윽한 정서도 그에 못지 않게 강렬한것이다.

단편소설 《감상문》은 60객로인이 터놓은 진실한 느낌에서 묵직한 생활의 의미와 정서적충격을 받아안게 한 좋은 소설이라고 본다.

특히 소설창작에 구현된 감상문형식의 자연스런 도입은 단편소설의 새로운 형식창조에서 또 하나의 발견으로, 또 한걸음의 전진으로 될것이다.

한 로인의 감상

단편소설 《감상문》의 주인공도 그렇지만 소설을 쓴 작가도 생활의 많은 굵이들을 걸어온 나이 지긋한 체험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소설에 반영된 생활세부들이 감탄할 정도로 진실하고 생동합니다.

많은 시아버지들과 며느리들이 이 소설을 흥미있게 읽는것은 그들이 밝은 웃음속에, 소설의 글줄들에 자기들의 생활을 비추어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세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생활그대로 옮겨다놓은듯 그 화폭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속에 애뜻한 부러움마저도 느껴보게 합니다.

소설에서 보게 되는 낚시질세부나 신문배포세부나 다 그러합니다.

낚시질을 하는 로인치고 며느리나 손자들앞에 빈손으로 들어가는것처럼 빳한 일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수좋은 낚시군친구의 고기를 《꾸어》가거나 돌아가는 길에 슬며시 물고기를 사넣어가지고 호기있게 집문을 두드리는 낚시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본의아닌 《거짓말》들이 가정들의 문턱이나 식탁에 가져오는 생활의 정서는 또 얼마나 이채롭고 흐뭇한것인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에 알 길이 없는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늘 볼수 있으면서도 낚시군로인들이 아니고서는 쉬이 알수 없는 생동한 이야기를 아주 감칠맛이 나게, 또 소설의 내용에 맞게 잘 그려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배포이야기 또한 그것대로 실감있습니다.

우편통신원인 며느리가 묵직한 신문통구리를 메고 아파트에 오르내리는것이 마음에 걸려 다른 현

관의것은 자기한테 맡기고 올라가라고 한 주인공이 출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제 손으로 신문을 나눠주는 모습, 그것을 먼발치에서 본 아들은 퇴근해들어온 저녁에 대뜸 안해에게 역증을 냅니다. 시아버지를 부러먹는다고...

기실 생활에서는 서로가 도우려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이 어색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혹 낮을 불힐 때도 있는것입니다.

그러고보면 소설에서는 그 어느 가정들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생활이 이야기마다에 폭 배여있습니다.

아버지가 년로보장을 받은 첫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버지의 밥상을 슬쩍 열어보는 아들의 모습도, 며느리의 손에서 《눈치밥》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딸의 모습도, 시아버지의 《거짓말》을 알고도 속는척 혼자 웃음짓는 며느리의 모습도 우리 집안 아니면 어디선가 꼭 본듯 한 모습, 낮익은 군상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재미에 독자들은 소설에 끌려들며 그속에서 많은것을 느끼고 배우게도 되는것입니다.

물론 한창나이의 젊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시부모된 사람들이나 며느리된 사람들처럼 깊은 감명을 받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흔히 볼수 있고 또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시부모와 며느리간, 시누이와 형님간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작품에 형상한다는것이 보건대 결코 쉬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런 세부들을 다루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관계로만 그렸습니다.

그러나 단편소설 《감상문》은 아주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세부들을 작품에 용이하게 옮겨놓았고 그 생활화폭속에서 뜻깊은 사상에술적해답을 이끌어내고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깊은 체험과 탐구만이 이런 감동깊은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고 봅니다.

작가의 체험과 독자의 체험이 일치되어 공감을 불러오는 작품!

우리 독자들은 이런 소설들을 좋아하고 또 기다립니다.

나와 같은 나이많은 독자들도 말입니다.

평자의 감상

나 역시 평범한 독자들중의 한사람으로서 우와 같은 견해에 대체로 동감이다.

구태여 덧붙인다면 이 소설에는 역시 아무런 갈등성이 없다.

긍정적인인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연한 오해를 가져오고 그 사건토막들이 하나의 구수한 이야

기를 이루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설에는 독자들의 예상을 깨뜨리거나 뒤집어 극적충격을 주는 대목은 비록 없다.

그렇다고 단순한 하나의 미담으로 엮어진것도 아니다.

독특한 형식에 비추어볼 때 내용은 매우 평이하게 구성되어있다.

인물들사이의 오해도 한 사건들에서 다 풀리고 해결된다.

그러면서도 극적긴장감이 일관하게 보장되는것은 바로 그 생활자체가 안고있는 사회적문제성이 소설의 내용전반에 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작품이 담고있는 사회적문제는 사상사업도 아니고 생산기술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수 도덕문제도 아니다.

인생의 한시절을 조국을 위해 다 바치고 이제는 일터에서 물러난 우리의 많은 로세대들이 남은 여생을 사회적인간으로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로 빛내여가는것은몇몇 자식들의 도덕의리모만 실현될 수 없으며 곧 사회제도의 성격과 혜택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누구나 인생에 꼭 있게 될 황혼기를 락판에 넘쳐마중해갈 때 조국위해 바쳐온 한생을 긍지롭게 여기게 되고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세월이야 가겠으면 가라고 하며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되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며 그 뜻이 현실로 꽃피나는 내 나라 사회주의제도이다.

하기에 소설이 제기한 사회적문제는 결코 평범하고 단순한것이 아니다.

소설은 한편의 가요에 대한 감상문의 형식으로 한가정의 자그마한 이야기를 엮었지만 거기서 울려나오는 사상정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인민의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기적과 전설이 나날이 꽃피나는 오늘의 우리 시대, 당정책적요구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데 작품이 성공하게 된 근본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편소설은 이렇게 되여야 한다.

작은 이야기에서 큰 사상을, 소박한 형상에서 묵직한 정서적감화력을, 평범한 내용에서 독특한 매력울!

물론 작품에는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다.

감상문형식에 치우치면서 소설로서의 특성을 더 잘 살리지 못한것이 그중의 하나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소설은 묘사문학인 동시에 성격문학이다.

소설에서는 1인칭소설로서도 능히 해낼수 있는 생활에 대한 구체적묘사가 매우 미약하다.

이 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인 《나》와 아

들, 머느리, 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체적용모와 성격에 대해 제 나름대로 그려보지 않을수 없다.

아다싶이 독자들은 작가가 원형에 기초하거나 또는 상상으로 그려낸 주인공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듯이 눈앞에 그려보면서 함께 울고웃으며 그 형상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인물과 생활에 대한 묘사가 매우 미약한 나머지 소설의 첫 부분에서 나오는 동사무장이나 호담당의사는 성별도 잘 알수 없다.

특히 소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머느리는 이름도 용모도 그리고 성격도 독자스스로 그려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나니 작품에서 머느리는 그야말로 《완성》된 머느리로 형상되어 소설의 진실성과 생동성에 적지 않은 손해를 주게 되는것이다.

시아버지와 남편공대, 집안살림살이에 바쁜데다가 우편통신원이라는 험치 않은 직업까지 가진 여성으로서 자기를 반대했던 시아버지를 섭사리 리해하고 남편의 《울둑뺨》도 부드럽게 풀어주며 시누이의 《촉새질》도 너그러이 웃음으로 넘기는 머느리!

그런 만점짜리 머느리가 과연 몇이나 될가?

물론 여기에 지나친 과장은 없지만 그런 현숙한 머느리의 성격형상에 힘을 넣었더라면 작품이 안고있는 주제사상해결에서도 보다 좋았을것이다.

가령 머느리도 우리 제도의 혜택속에 성장한 세대이기에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회주의제도가 이런 효도깊은 아들딸들을 키워낸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황혼기는 이 제도의 덕분이라고 웨치기도 좋았을것이다.

이것은 물론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파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소설이 주는 형상적매력이나 정서적충격이 클수록 아쉬움도 크기 마련이다.

이런 아쉬움들을 극복하며 앞으로는 더더욱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창작해내기를 필자와 더불어 모든 작가들에게 호소하고싶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온 나라 가는 곳마다에서 눈부신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의 전설이 꽃피나는 오늘의 시대는 보다 벅찬 생활과 랑만으로 우리 문단을 부르고있다.

단편소설 《감상문》 역시 아름다운 우리 사회, 세월은 흘러도 더더욱 젊어지는 우리 시대가 낳은 귀중한 열매인것이다.

소설을 보면 볼수록 내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이 더더욱 크나큰 정서로 안겨온다.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좋은 책을 읽었거나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고 나서는 꼭 감상문을 써라, 그러면 느낌이 더 커진다.》

대조로 특색있는 구성미

서 경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마다 구성은 특색이 있게 되어야 한다. 작품마다 종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 주제사상이 같지 않으며 반영하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에 구성이 같아질수 있는 근거는 없는것이다.》

매 작품에 고유한 구성은 오직 하나뿐이다.

《조선문학》(2014년 7호)에 실렸던 단편소설 《생활의 수업》(김성운 작)은 자기식의 독특한 구성으로 이채로운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중의 하나이다.

작품은 오늘의 시대 선군시대의 인간들은 과연 어떠한 인생관, 생활관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작품의 전반구성을 대조로 일관시켜 주제해명에 이바지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성장출신의 한 제대군인청년이 고향땅에 제대배당을 풀어놓은 이후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우리 새 세대가 느껴야 할 진정한 삶의 향기, 인생의 묘는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켜나가고있다.

여기서 특색있는것이 작품의 전과정에 일관되고 있는 대조적인 성격형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공에게 생활적인 고민을 안겨줄수 있는 특색있는 대조적인 인물관계를 설정하고있다.

부모만큼 자식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렇기때문에 주인공의 배치문제를 두고 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오가는것은 십분 있을수 있는 아니, 응당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바로 그로부터 출발하여 작품의 구성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사이에 맺어지는 혈연적인 인물관계로 안받침시킨것은 형상적으로 타당하며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다면 작품의 인물관계를 왜 특색이 있다고 하는가.

작품에서 인물관계는 사건뿐아니라 감정조직과 세부, 일화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의 주제사상해명에 이바지하도록 묶어세우는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관건적인 고리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인물관계가 세워졌다는 그자체가 벌써 작품의 기본등장인물의 성격적색이 규정되고 작품의

기본적인 틀거리가 내다보인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손자를 둘러싸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대조적인 인생관속에 깊이 맞물려주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작품의 전반형상체계에 관통시켜 주제해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독자적인 하나의 구성형식으로 승화시키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소설의 인물관계가 대조적이면서도 특색있는 설정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것이다.

단순한 의견상이나 대립이 아닌 인생관에 의하여 대조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사이의 《충돌》과 모순은 작품의 시작부터 주인공에게 운명적이며 심각한 극을 안겨주고있으며 이야기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주인공을 부단히 괴롭혀오던 집안의 모순과 갈등의 근원을 드러냄으로써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속에서 자기가 찾아야 할 인생의 묘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깨닫도록 구성을 세워나간것이다.

작품에서는 모든 형상의 요소들이 대조적인 인생관을 지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격적색을 바탕지어주며 주인공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확증하는데로 집중되고있다.

소설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서로 다른 인생관을 부각시켜주는 생활세부와 일화들이 여러 계기에서 집중적으로 묘사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공장대학입학을 축하하여 아버지가 선물한 컴퓨터와 손전화기에 대한 세부라든가, 주인공의 인민군대입대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앉은 생일날에 있던 이야기 등은 서로 다른 인생관을 지니고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격적바탕을 특징지어주며 주인공의 인생관형성과정을 형상적으로 안받침해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주체철시험용해를 앞두고 직접 로밀로 들어가 주체철성공의 암적존재와도 같은 로록발원인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은 주인공의 결심을 놓고 벌어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립과 갈등은 작품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한생을 오로지 수령님 바라시던 강철만을 위해 살아온 할아버지를 닮느냐 아니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안일하게 동면하며 살아온 아버지를 닮느냐 하는 심각한 마당이 바로 주체철시험용해이다.

《...무슨 일이나 투신하기 싫어하고 먹을일이 있으면 얼굴을 들이밀고. 그렇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속에 바로 내가 있었다. 그래 내가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누구를 위해 할것 같으나? 또 일군이 되어 한개 단위를 책임진다면 어떻게 될것 같애? 바로 너같은 사람들때문에 집단이 녹아나!》

《날 아무렇게나 타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술직히 우리 집안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 철준이를 그 위험한 로밑에 꼭 들여보내야만 됩니까?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인데... 아버지 모질어도 너무 모진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체철시험용해를 앞두고 손자의 위험천만한 로시험참가를 놓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의 한 대목이다.

한생을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지향하여 걸어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조되는 인생관은 후대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바통을 넘겨주는가 하는 계기점에 이르러 이처럼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며 서로마다 그 어떤 양보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당에서 바로 주인공은 강철과 더불어 흘러온 할아버지의 한생과 그에 비추어진 아버지의 대조되는 생활의 여운속에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것, 자기자신이 그토록 찾고찾던 진정한 생활의 리정표, 인생의 묶은 어디에 있었던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한가정에서 대조되는 인생관속에 맺어지는 독특한 인물관계를 설정해주고 그에 기초하여 작품의 전과정이 대조로 일관되도록 특색있는 구성형식을 탐구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계기점과 성격발전단계들을 정확히 규정하여주고있으며 형상적으로 짜인 구성형식의 면모들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작가가 바라던 형상의 결과가 웅당한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한바와 같이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명을 위하여 독특하고 짜인 구성형식을 탐구한 작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만 소설의 전반구성에서 놓고 볼 때 형상의 빈구석들이 완벽하게 메꾸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실례로 작품에서 일욕심이 대단한 할아버지의 성격적측면을 부각시켜주는 세부로서 탐구된 《쇠물남비사건》을 들수 있다.

언제인가 3호전기로장인 할아버지가 용해공정을 단축한 결과로 먼저 쇠물을 준비한 5호전기로와 출강시간이 같아진적이 있었을 때 현장지휘실에서 내린 지령을 어기고 쇠물남비안에 들어가 3호전기로

의 쇠물을 받을 때까지 버틸내기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작품에서는 명백히 작업장에는 쇠물남비가 한개뿐이어서 부득불 한개의 전기로는 세워야 하며 그렇게 되면 다음번 출강시간까지 한시간남짓한 사이에 천수백도의 온도로 이글거리는 쇠물때문에 로벽이 패이고 로바닥까지 울러뜰수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쇠물이 못쓰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로상태도 엉망진창으로 되고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할아버지는 3호전기로를 살리기 위해 쇠물남비안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어가 여차직하면 당장에 쇠물이 쏟아져내릴 남비안에 울방자를 틀고앉아 버틸내기를 한것이다.

물론 할아버지의 일욕심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주려는 작가의 의도는 리해가 간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부의 예술적진실성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할아버지의 유명썩한 버틸내기로 3호전기로의 쇠물은 구원되었지만 그대신 5호전기로가 당한 뜻하지 않은 봉변에 대한 이 《쇠물남비사건》세부는 실로 좋지 않은 여운을 주고있다.

생활에는 실지로 이러한 이야기도 있을수 있고 또 저러한 이야기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면우로 옮겨질수는 없는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소재를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우는 과정에 반드시 있게 되는 형상의 진실성때문이다.

형상의 진실성문제는 결국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이다.

작품의 구성은 물론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설계되지만 그의 흐름자체는 철저한 객관의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형상의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결국 작품에서 할아버지는 일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남의 전기로까지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인물로밖에 그려질수 없었던것이다.

독특한 구성형식의 탐구를 위한 작가의 고심어린 노력이 이런 문제들에서까지 심화되었더라면 보다 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당이 바라는 훌륭한 시대적명작들을 내놓자면 반드시 자기식의 고심어린 탐구가 비끼게 독특하게 설계하고 특색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독특한 구성이 이채로운 형상을 낳는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날이 그 면모를 일신해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특색있고 다채로운 화폭속에 담아내기 위하여서도 오늘날 창작실천에서 독특한 구성형식의 탐구문제는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리랑천 이야기



최 홍 록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평안도 녕변땅에는 고을 백성들로부터 명관으로 떠받들리는 한 부사가 있었다. 헌데 놀라운것은 그의 나이가 겨우 열댓살밖에 안된다는것이였다. 짜개바지 입고 코흘리며 다닐 쪼꼬마한 아이는 아니라 해도 기껏 잡아야 열댓살정도이니 아이라고밖에는 볼수 없는데 정3품 부사라는것도 놀랍지만 명관으로 소문이 찻했다니 이게 어디 있을번 한 일인가. 허나 아직도 그곳 사람들은 녕변땅의 유구한 력사와 옛 사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사또에 대해 옛말처럼 이야기하고있으니 이제 우리 수백년전 그 시절로 되돌아가 그의 행적을 더듬어볼가 한다.

《정주생원》의 갓값을 물어주다

신관사또가 부임되어온지 열닷새가 지난 밤이다. 녕변고을의 구렁이로 소문이 난 권좌수는 한밤이 지새도록 궁식거리며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자리를 털고일어나 앉은 권좌수는 옆에서 입을 하 벌리고 정신없이 꿈나라에서 헤매는 마누라를 부럽게 바라보며 생각을 굴렸다.

(어떻게 해야 코흘리개부사를 손안에 든 물건처럼 마음대로 주무룰수 있을까?)

이전날의 부사들을 제 줄안에 넣고 마음대로 휘젓던 좌수였다. 부사라고 하면 현이나 군보다도 더 큰 고을의 판장으로서 당당한 당상관이라 그의 말 한마디에 온 고을이 기울어지는 세월이였다. 녕변은 삼남의 전라도나 충청도, 경상도의 고을들에 비하면 그닥 시세나는 고을이 아니여서 외직에 나가는 한양량반들이 벼슬살이하기를 꺼리는 지방이였다. 허지만 서북의 중요요충지인지라 조정에서는 녕변을 중시하여 어느 고을처럼 군이나 현이 아니라 대도호부라 일컫고 고을판장도 3품관에 해당되

는 부사를 두고있었다. 그런 녕변고을의 부사들을 지금껏 자기 의사대로 좌우지해온 권좌수였다. 이전번의 부사도 세도가 당당한 한양의 권문세가의 자손이라지만 두어달만에 좌수의 계책에 걸려들어 그가 하자는대로 움직였다.

콩을 보고 팔이라고 하면 음 그렇지, 겉보기엔 콩같아보여도 그놈이 사실은 팔이로구나 했고 곡식 두되를 닷되라고 해도 음, 좌수가 닷되라면 닷되인 거지 하며 그의 말을 믿었던것이다. 진짜로 믿었지는 알수 없으나 하여튼간 권좌수의 말에 가타부타 딴 의견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좌수라는 벼슬이 보잘것 없는 토반직이여도 이 녕변땅에서는 부사 다음가는 권세를 쓴다고들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부사도 모르게 권좌수 혼자서 처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진상품으로 바치는 토산물중에서 골자는 제가 처리하고나서야 부사에게 올리였건만 모르는지, 아는지 부사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러고보면 한양량반들은 소리만 컸지 어리석기란 담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벽창호같은 위인들이였다. 사람들앞에서는 청백리요, 성인도덕군자요 하지만 금은재물과 고운 계집앞에서는 오금을 쓰지 못하였다. 그런 한양출신 부사들을 권좌수는 잡아놓은 쥐를 앞에 두고 희롱하는 고양이처럼 재미나게 다루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신임사또는 뜻밖에도 열댓살나는 아이였다. 열댓살이면 아직도 잠자리에서 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자기 집의 철부지 막내아들뜨래가 아닌가.

듣자니 한양태생이 아니라 저기 남쪽의 전라도 어디선가 어린 나이에 과거급제하여 벼슬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간내기가 아니라는것이였다. 하긴 열댓살에 한개 도호부의 장관이 되었다는것자체가 상

상도 못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

신관사또는 부임되자마자 첫새벽이면 혼자서 고을을 한바퀴 돌아보곤 하는데 여직껏 쓰다달다 한마디 말이 없었다. 고을을 한바퀴 돌고는 동헌대청에 들어앉아 고을의 장부를 뒤진다고 한다.

조정의 지시문과 고을에서 올린 장계문초안 그리고 진상품목록과 조세목록, 호구대장과 군적대장을 뒤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 없었다. 간혹 통인을 시켜 리방을 데려오라, 호방을 찾으라, 비장을 대령시켜라 한하는데 좌수가 박아넣은 사환군들의 말을 들으니 부사에게 들어갈 때에는 범잡은 포수마냥 의기양양하던 그들이 나올 때에는 데쳐낸 시래기마냥 어깨가 축 처져있다는 것이었다. 몰래 사람을 띄워 사연을 알아보았으나 사또가 어찌나 엄포를 놓았는지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알만 떴룩거리며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었다. 신임부사가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내기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였다.

(어떻게 해야 저 햇병아리같은 사또를 꺾달까 못하게 할수 있을까?)

좌수는 이마뺨을 문지르며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불쑥 무릎을 쳤다....

이튿날이었다.

리덕천이 동헌에서 구룡강나루가에 사는 백성들이 상선을 타고 강을 오고가는 장사군들이 물건을 비싼 값으로 팔면서 백성들의 등허리를 분지른다고 신고했다는 보고를 청취하고있었다. 그 보고에는 장사군들이 값을 흥정하다가 어느 한 파수대에게 달려들어 란동을 부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창 호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있는데 갑자기 삼문밖에서 떠들썩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비장이 허겁지겁 달려들어왔다.

《무슨 일이나?》

리덕천이 억실억실한 두눈을 들어 비장을 바라보았다.

《저, 저기 정주고을에 산다는 한 량반이 불쑥 뛰어들어왔는데 다짜고짜로 사또어른을 뺨쳤다고 하옵니다.》

비장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갓이 없는 맨 상투차림의 기생오래비같이 해반주그레한 사내가 삼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뒤로 여라문명의 군졸들이 따라들어왔다. 삼문안으로 들어선 사나이는 곧장 부사가 앉아있는 동헌대청을 향해 돌진해들어오는 것이었다.

하더니 부사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아뢰이는

것이였다.

《사또님께 아뢰나이다. 소인은 정주에 사는 생원이온데 녕변에 있는 친척집으로 오던중에 그만 강을 건느다 바람에 갓을 잃었소이다.》

그의 말에 둘러선 사람들의 눈이 켜해졌다.

바람에 갓이 날려간것이 무슨 대수냐 하는 눈치였다.

허참, 별 빌어먹을 놈도 다 있지. 제 불찰로 갓을 잃었는데 언감생심 부사어른이 있는 동헌으로 뛰어들다니 하고 생각하던 관속들은 아차 하고 혀를 깨물었다.

이는 분명 나 어린 사또를 골려주자는 량반들의 속임수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았던것이다.

열댓살난 아이가 녕변같이 큰 고을의 부사라니 어디 한번 그 일처리를 시험해보자는 수작이 분명했다.

모두가 부사가 어찌나 하고 숨을 조이는데 정주생원의 뉘양푼을 굶는듯 한 아츠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녕변땅은 부사나리가 다스리는 고을이고 사또님은 이 고을의 모든 정사를 주관하는 어른이시라 지나가는 바람도 사또어른의 관할이 아니겠소이까. 그러니 갓을 잃은 소인의 억하심정을 헤아려 갓을 찾아주소이다.》

리덕천은 한참이나 정주생원이라는 량반자를 주시해보더니 나직하나 위엄있게 형방을 찾았다.

《형방!》

형방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각이한 눈길 이 형방에게로 쏠렸다.

《동헌을 지킨다는 파수군들이 임무를 홀시해 판야에 타고장사람이 서슴없이 뛰어들어왔은즉 그 죄가 뉘인지 알겠느냐?》

순간 사람들의 호기심이 대번에 공포로 번져졌다.

《예- 헌데...》

《사정을 두지 말고 파수군들을 당장 교대하고 형장 삼십대를 안겨라! 만일 저 사람이 자객이라든가 흉심을 품은 악한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겠느냐?》

부사가 있는 판야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사들이 일단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고을을 지킬수 있더냐?》

부사의 사리정연한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갓을 잃었다던 정주생원의 낯색이 시꺼멓게 죽기 시작하였다.

리덕천은 수수떡처럼 얼굴이 시뻘개지는 정주생원을 바라보며 형방에게 한마디 더 령을 내렸다.

《난 이제 구룡강으로 나갈테니 형방이 형을 집행하고 보고하라!》

이어 리덕천은 정주량반을 앞세우고 갓을 잃었다는 구룡강나루터로 나갔다.

갓을 잃었다는것은 구실이고 사실은 이번 기회에 나uer린 부사를 골탕먹이려고 권좌수와 짜고 이 일을 꾸며낸 정주생원이라는 작자는 동헌에서 파수군들에게 형을 내리는 부사의 일처리를 목격한지라 한풀 꺾인 자세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가 아무리 부사라고 해도 없는 갓을 어데 가서 찾으며 또 어떻게 판결할수 있더냐.)하는 배심으로 씨엉씨엉 앞장에 서서 걸었다. 오늘따라 바람 한점 없는 드넓은 구룡강으로는 돛을 띄운 산갈이 큰 배들과 짙싹처럼 생긴 자그마한 배들이 한가로이 오르내리고있었다.

구룡강나루에 이른 리덕천은 정주생원에게 머리를 돌렸다.

《그때 그대가 갓을 잃었다는 곳이 어디쯤인가?》

정주생원이 손을 들어 강이 합치는 합수목을 가리켰다.

《저기올시다. 소인이 나루를 건느는데 글썽 바람이 휩 불더니 제 갓을 앗아가는게 아니겠소이까. 이놈의 녁변땅은 바람까지도 어쩌나 고약한지...》

바람에 빗대고 공연히 녁변지방을 혈뜰는 정주생원의 뒤틀린 심사가 그 말에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그 량반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는지 부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하였다.

《당신이 찾아온다는 친척은 그 고약한 바람에 정들어 이곳을 뜨지 못한다오. 그러니 당신이 갓을 잃으면서까지 찾아올수밖에 있겠소.》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한마디 했다가 코를 때운 생원이 메사해 서있는데 부사의 담찬 목소리가 울렸다.

《저기 큰 돛을 띄우고 올라가는 배와 내려오는 배의 주인들을 데려오라!》

잠시후 배주인들이 불리워왔다.

부사가 배주인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때 그대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 오늘같은 날씨에 어떻게 배를 끌고왔는고?》

강을 거슬러올라가던 봉산수수대갈이 멋없이 꺾두룩한 배주인이 허리를 굽적이며 대답하였다.

《오늘은 비록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바람이 울

리부는 날에는 배가 가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소인은 바람아 제발 올리불어라 하고 속으로 빌었더니 하늘이 감심했는지 바람이 올리불었소이다. 그랬더니 보리밥 한술 짓기 전에 이곳에 와닿았나이다.》

《음, 그랬단 말이지. 그럼 그대는?》

부사가 강을 따라 내려오던 배주인을 가리키며 한마디 물었다.

구레나룻이 보기 좋게 흘러내린 몸집이 다부진 배주인이 나섰다.

《여느때는 내리불던 바람이 오늘따라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영 불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소인은 하늘에 대고 어서 바람이 내리불소사 하고 속으로 기원했소이다.》

리덕천은 두 배주인의 말을 다 듣더니 옆에 서있는 정주생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 갓값은 이 배주인들이 물어야겠군. 서로가 저의 배가 빨리 가라고 바람을 불렀으니 결국 그 바람들이 맞붙어 싸워 종당에는 갓을 날려보냈군.》

이어 배주인들을 향해 위엄있게 소리쳤다.

《내 오늘은 너희들의 죄를 더 따지진 않겠다. 물건을 실어와 비싼 값을 불러 이 주변 백성들의 등허리를 벗긴 죄는 앞으로 따로 계산할셈치고 오늘은 이 정주사람의 갓을 하늘로 날려보냈으니 그 갓값을 물어야겠다.》

부사의 위엄어린 말에 두 배주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두눈만 꺾벅거렸다.

하더니 키다리배주인이 정주생원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 이 량반이 정주생원일게 뭐요? 하, 녁변 좌수대의 처남된다는 리생이 아닌가.》

키다리배주인이 정주생원이라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자 똥배주인이 통방울눈을 부라리며 그 편을 들었다.

《맞아, 당신이 뭐 정주에 산다구?! 아까 당신이 내 배를 타고오면서 이 고을 판장이 어떻다느니, 자기는 부사도 다치지 못하는 권좌수의 처남이라고 한바탕 자랑을 하지 않았소?!》

연방 들이서 정주생원이라는 작자를 몰아대자 기생오래비같이 번지르르한 정주생원의 낯색이 단박에 굴뚝속같이 시꺼멓게 질렸다.

허나 부사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배주인들에게 사정을 두지 않고 다몰아세웠다.

《그때 갓값을 물지 않았텐가?! 정 물지 않겠다

면 할수 없지. 여봐라!》

부사의 호령에 수행하던 비장이 한걸음 나섰다.

《녕변고을백성들에게 곤욕을 주며 폭리를 얻던 이 협잡군놈들에게 나라법이 어떠한지 보여주어야 할가부다!》

순간에 배주인들의 태도가 일변하지 않을수 없었다. 생똥같이 남의 갓값을 물라는 부사의 그 령이 억울하였으나 제 입으로 바람을 불러왔다고 토설한뒤이고 또 바람탓에 남의 갓을 잃었다고 정주생원이라는 사람이 실토했으니 더는 어찌는수 없었다. 더구나 속에 켜기는것은 장사질을 하며 나루가 주변 백성들의 원한을 산것이였다. 케를 보니 이제 더 뻔뻔다가는 어떤 큰 봉변을 당할지 어찌 알라. 차라리 정주생원의 갓값을 물어주고 급한 고비를 넘기는것이 땅수라고 생각한 두 배주인들은 부사의 령에 삐죽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공손히 갓값을 나누어 물어주었다.

잃어버리지도 않은 갓을 트집잡아 리덕천을 떠보자던 정주생원이라는 작자는 두 배주인들이 자기의 정체를 폭로시키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싶었다. 진드기에게도 낯짝이 있다는데 《정주생원》이라고 거짓말을 한것이 탄로되였으니 이제는 판장을 속인 죄로 형이 차례질판이였다.

안절부절 못하며 갓값을 받아든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연히 서있는 좌수의 처남이라는 작자를 홀깃 결눈질하고난 리덕천은 쓰거운듯 다른 말을 더 하지 않고 돌아섰다. 몇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선 리덕천이 그 생원을 불렀다.

혼이 쑥 빠진듯 멍청히 서있던 정주생원이라는 작자가 땅에 넋적 엎드렸다.

《오늘일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가보오. 당신의 그 갓때문에 고을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저놈들을 혼내웠으니 말이요. 이런것을 두고 일석이조라고 하지.》

하더니 리덕천은 두눈에 웃음을 머금고 땅에 엎드린채로 후들후들 온몸을 떨고있는 정주생원을 내려다보는것이였다.

《황공한 말씀이옵니다. 과연 사또어른은 세상에 더없는 명판이옵시다. 어리석은 소인을 용서하소이다.》

리덕천은 그러는 생원에게 한마디 더 하고는 두말없이 돌아서 가는것이였다.

한참후에 머리를 쳐든 생원의 귀전에 나어진 부사가 던지고간 그 마지막말이 공명되어 울렸다.

《당신들이 고을을 위해서 그런다고 내 생각하겠

소. 나어진 부사의 일을 못미더워하는 그 심정이 고맙소. 당신들이 진심으로 고을과 백성을 위해서 이런다면 내 아무런 의협도 없소. 그러나 저들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다신 용서 못하오.》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다

부사 리덕천에 대한 소문은 한입두입 건너 차츰 온 녕변고을에 퍼져나갔다. 고을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판가로 찾아와 저들의 원한을 하소연하였다.

물건을 훔친자, 부너를 강간한자, 부모를 학대한자, 남을 속여 폭리를 버는자, 계약을 뒤집는자, 완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자, 권세와 재력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법밖에서 놀아대는자, 하여튼 온갖 부정행위, 절도행위, 폭력행위를 하던자들이 부사의 명철한 판결에 따라 형을 받게 되였고 차츰 그런 행위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백성들이 부사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처음엔 나어진 부사를 시룻이 대하던 고을의 룽방관속들이 임금의 칙사 모시듯 리덕천을 공경스레 대하기 시작하였고 리덕천의 의도대로 고을정사가 바로잡혀나갔다.

이듬해 어느 겨울날이였다.

고을의 제일 산간벽지에 산다는 한 로파가 찾아왔다.

통인으로부터 기별을 받은 리덕천이 동헌대청에 나앉았는데 파파늑은 한 로파가 다 꺾진 짚신감발을 하고 꼬부랑막대기를 들고 부사앞에 엎드리는 것이였다.

하루 한끼나 때식을 예웠을지 빈곤의 자취가 그 차림새에 력력히 비껴있었다.

《무슨 일로 늙은이가 찾아오셨소?》

부사의 물음에 로파는 부들부들 떨기만 할뿐 대답을 못하였다. 가슴속에 맺힌 억울한 사연이 치밀어오르는지 로파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데 강파른 연약한 두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마음을 늦추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소.》

부사의 옆자리에 서있던 형방이 한마디 하였다.

《저— 너무 억울해 그러나이다. 사또님!—》

로파는 얼굴을 들어 부사를 쳐다보았다. 발고랑같은 주름살을 타고 메마른 얼굴에서 눈물이 샘솟듯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리덕천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아래로 곧장 내려가 로파의 두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세웠다.

《부사가 일을 쓰게 못해서 늙은이에게 원형을 덧지게 한것 같은데 그만 고정하고 어서 말해보소.》

부사의 두손에 온몸을 맡긴채 로파는 울먹이며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사연인즉은 이러하였다.

일찌기 남편을 전장에서 잃고 외아들을 키우며 살던 로파는 삼년전에 그만 외아들과 머느리마저 몹쓸 전염병으로 다 잃고 열살난 손자와 함께 살고있었다.

남편없는 집에서 외아들 하나에게 운명을 걸고있던 녀인인지라 이를 악물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어느해인가 본가집에서 송아지 한마리 구해온것이 이젠 힘꼴이나 쓰는 황소가 되고 홀녀인의 일매진 손끝에서 그러저럭 밭술이나 뜨게 되어 살아가는 재미를 좀 볼가 하는데 덜컥 아들과 머느리가 한날한시에 전염병에 걸려 불귀의 객이 되고말았다.

그런 속에서도 하늘도 무심치 않아 손주녀석이 하나 있어 로파는 그 손자애를 기둥삼아 세상을 살아가고있었다.

그러던 며칠전 갑자기 밖에서 닭이 똥치는 소리와 소란스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글썽 매란 놈이 병아리를 덮쳐가는것이 아닌가. 손자애에게 닭알이라도 먹여볼가 해서 몇마리 가져다 놓은 병아리인데 요며칠전에는 독수리란 놈이 한마리 물어가더니 오늘은 매가 와서 덮쳐가려고 하는 것이였다. 더 생각할 새없이 로파는 방안에 세워놓은 다듬이방망이를 집어 매라는 놈을 향해 던졌다. 병아리를 물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던 매가 그만 에야 박달나무방망이에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매의 발톱에서 벗어난 병아리가 뻘뻘뻘 울며 달아났다.

로파가 속으로 염병맛을 매새끼 잘코사니지, 병아리를 물어가니 죽을수밖에 더 없지 하며 다가가 매란 놈을 집어서 보는데 별안간 삼작문이 벌컥 열리며 웬 거무튀튀한 수염쟁이가 썩썩거리며 뛰어들어오는것이였다.

수염쟁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직방 로파에게로 다가와 로파의 손에서 죽은 매를 와락 빼앗더니 매의 눈을 가뒤집어보고는 지랄중에 걸린 놈처럼 아부재기를 쳤다.

《아니, 남의 사냥매를 죽이다니. 이놈의 할망구가 눈깔이 있긴 있소?》

제 어머니벌이 되는 늙은이에게 대뜸 쌍말을 퍼붓는 수염쟁이에게 로파가 시비를 따졌다.

《이 매가 우리 집 병아리를 물어가기에 내 다듬이방망이를 던졌더니 그만에야 맞아 즉사했네. 그런데 님잔 누구인데 이 늙은이에게 해라인가?》

《이 매가 할망구의 병아리를 물어?》

수염쟁이가 통방울눈을 부라리며 땃마리 되는 병아리들을 휘둘러보았다.

《어디 내 매가 이 집 병아리를 물어간것이 있어? 어서 대답해! 염병맛을 이 로친네야!》

이 때는 여느 매가 아니라 사냥매란 말이야! 소열 짝을 주고도 어데 가서 구할수 없단 말이야!

내 매를 죽였으니 할망구가 그만한 값을 물던가 아니면 내 매를 당장 살려내라!》

수염쟁이의 그 말에 로파는 더 할말을 찾을수 없었다. 알고보니 수염쟁이는 매장사군이였다.

매란 놈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는 몰라도 소열 짝과 바꾼다고 하니 로파는 눈앞이 새까매졌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정신이 뒤집어져 까무라칠 소리였다.

(우리 집 형편에 어데 가서 그 많은 값을 물어준단 말인가.)

이때 외양간에서 음메- 하는 소열각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외양간을 돌아보는 수염쟁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흥물스러운 얼굴에 소름끼치게 시꺼먼 이발을 드러내며 수염쟁이가 로파를 돌아보며 시카슬렀다.

《음- 이자 보니 매값을 물것이 영 없진 않군. 저놈의 소라도 대신 끌어가야지.》

수염쟁이가 외양간을 향해 돌아섰다. 멍청히 서있던 로파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의 팔목을 붙잡았다.

《안되네. 저것만은 못 끌어가네. 남정네가 없는 우리 집안이 저걸 하나 믿고 살아가는데. 저것만은 못 가져가네.》

허나 수염쟁이는 막무가내였다. 연약한 늙은이가 억대우같은 사내의 완력에 어찌 견디랴. 더구나 수염쟁이를 따라왔던 부락의 아전들도 매장사군과 한동아리라 어쩔수가 없었다.

하루사이에 령강때부터 키우던 소를 잃고난 로파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모태기다가 이튿날 아침 원(현감)에게 상소하려고 동헌대문을 두드렸다.

밤새 열두어살밖에 안되는 애기기생을 끼고 재미를 보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귀잠이 들었던 원은 로파의 하소를 귀등으로 들으며 하품만 연신 해냈다.

로파가 아무리 울며 하소연해야 마이동풍격이었다. 이미전에 매장사군에게서 퇴물을 받은 원이라 로파의 애절한 상소가 지나가는 개가 짖는것만큼도 들리지 않았다.

판아문을 정처없이 나오는 로파의 정상이 하도 가궁하여 어느 장정이 귀뜸해주었다.

《할머니! 여기서 아무리 그래야 소용이 없수다. 부사어른을 찾아가보시우다. 그 사또님이 비록 나이는 어려도 궁냥이랑 또 일처리랑 하는것을 보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합디다.》

하여 로파는 만사불구하고 허위단심 부사가 있다는 념변읍으로 찾아왔던것이다.

로파의 이야기를 들은 리덕천은 공방을 불러 늙은이를 잘 대해주라고 이르고는 그길로 비장을 찾았다.

《넌 이제 군졸들을 데리고 곧바로 그곳에 가서 그 매장사군의 행처를 알아보고 그 고을의 현감과 함께 당장 여기로 끌고오라!》

신임부사가 정사를 하는것을 보아오면서 탐판오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행위를 제일 질시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비장은 군말없이 군졸들을 데리고 산간벽지로 떠나갔다.

이튿날이었다.

동헌대청앞에 어마어마한 형틀이 쪽 늘어서있고 고을의 현감과 매장사군이 부복하고섰다.

리덕천부사가 룽방관속들을 대동하고 대청우에 올라섰다.

먼저 매장사군에게 부사가 물었다.

《네가 새에 대해 잘 안다는데 어디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법이니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소이다.》

매장사군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 매와 독수리가 어떻게 다르냐? 난 암만 봐도 어느놈이 매이고 어느놈이 독수리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

부사의 그 물음에 매장사군이 대답하였다.

《그건 그닥 힘든것이 아니옵니다.

흔히 평사냥에 쓰는것이 매이웁고 병아리나 어린 집짐승을 채가는것이 독수리라 하웁니다.》

매장사군의 대답에 부사가 다시 물었다.

《그게 그렇게도 단순하단 말이나? 그런데 내가 왜 여직껏 그 단순한 리치를 몰랐을가?》

부사가 머리를 기우뚱거리며 중얼거리자 매장사

군이 사기가 나서 한마디 더 하였다.

《매나 독수리는 결모양도 차이가 납니다. 흔히 사냥에 쓰는 매는 그닥 크지 않지만 날래고 민첩하기란 이루 말할수 없나이다. 독수리란 놈은 보기에도 흉물스러워 민가에 달려들어 병아리나 새끼짐승을 채가지만 매란 놈은 주로 평사냥에 쓰는 것으로서 민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소이다. 소인은 그런 매를 사고 파는 사람이라 이것만은 잘 알고 있나이다.》

영특하다고 소문이 난 부사도 분간 못하는 매와 독수리를 제사 잘 안다는 사실에 으쓱해진 매장사군이 신바람이 나서 덧붙여 설명까지 하였다.

《음— 정녕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 그 말을 네가 책임질수 있느냐?》

부사가 눈을 쪼프리며 매장사군에게 다짐을 두듯 물었다.

《한입 가지고 뉘앞이라고 두말을 하겠소이까. 다른 새들은 잘 몰라도 소인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만은 목숨을 내걸고 장담할수 있소이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하고 되뇌이던 부사의 얼굴에 갑자기 노기가 어렸다.

《여봐라!》

부사의 호령에 비장이 한걸음 나섰다.

《예잇! 비장 대령하였소이다.》

《저놈에게 당장 오라를 지우라!》

억대우같은 군졸들이 달려들어 매장사군을 묶었다.

뜻밖의 봉변에 어리둥절해진 매장사군의 두눈이 휘짝 번져졌다.

《사또님! 이 무슨 일이옵니까?》

부사가 파력을 겨눈 화살마냥 매장사군을 쏘아보며 땀나게 물었다.

《네 이놈! 네 죄를 정녕 모르겠느냐?》

《죄라니요?》

매장사군이 어안이 병병해서 부사를 뵈히 쳐다보았다.

《모른단 말이지— 그럼 좋다! 네놈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 밝혀보자.》

하고난 부사가 고을현감을 향해 몸을 돌렸다.

《너는 한개 현의 관장인데 어이하여 공과 사를 가려보지 못하고 이놈의 간계와 퇴물에 넘어가 매한 백성의 상소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저놈은 돈밖에 모르는 놈뎡이여서 그렇다쳐도 너야 한 고을을 돌보는 중임을 맡은 벼슬판인데 그리도 사리를 모른단 말이나?》

현감의 얼굴이 불이 달린것처럼 시뻘개졌다. 한겨울인데도 자그마한 낮짜에서 줄줄 땀이 흐르고있었다. 부사의 동헌대청으로 끌려올 때 그리고 부사가 매장사군에게 매와 독수리에 대해 물을 때 벌써 케가 틀렸음을 짐작한 현감이였다. 게다가 제 죽을 함정에 빠지는줄 모르고 쫓잡는데 쓰는 새가 매이고 병아리를 채가는것이 독수리라고 주어섬기는 매장사군을 보면서 저런 미련한 놈인줄 모르고 그놈의 행위를 눈감아준 자기의 처사를 두고 후회하는 한편 부사의 수에 빠져들어가는 매장사군놈을 죽이라 하고 욕질하고있던 현감이였다.

이제는 부사에게 더는 거짓말을 하거나 얕은 수로 이 고비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더 큰 벼락이 떨어진다는것을 다년간의 벼슬길을 걸은 현감은 어렴풋이 깨닫고있었다. 하여 그는 매장사군이 매값으로 로파의 소를 끌어오고 자기에게 은전을 꿰쳐주며 눈감아달라고 한 일까지 그대로 아뢰일수밖에 없었다.

현감이 채머리를 떨며 중언부언하는 고소에 부사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매장사군을 다그어댔다.

《아직도 네놈의 죄를 모르겠느냐? 네놈은 병아리를 채가려는 독수리를 할미가 몽둥이로 던져 죽였는데 난데없이 뛰어들어 자기의 매를 죽였다고 우기면서 그 집의 황소를 끌어갔으니 세상에 이런 날도독놈이 어데 또 있단 말이나?!

그리고 네놈은 부모도 없느냐? 네놈의 몸통아리는 부모가 만든것이 아니라 어디 시궁창에서 주어왔다더냐? 제 부모와 같은 늑은이에게 야료를 부리고 무지막지하게 놀아댄 그 죄는 또 어찌한단 말이나!》

분명 로파가 죽인것이 자기의 매가 옳건만 방금 전까지 제 입으로 매와 독수리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으니 병아리를 채려던것이 매라고 우길수도 없게 된 매장사군이였다. 매값으로 황소를 끌어간것도, 늑은이에게 행패질을 한것도 엄연한 사실이라 부사앞에서 이제 자기가 더 변명을 하다가는 무슨 엄청난 욕이 차폐질지 알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현감이라는 량반이 부사가 무슨 염라대왕이라고 자기와 있었던 일까지 미주알고주알 토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토설했으니 죽어날것은 자기 하나 뿐이라는것을 매장사군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었다. 웬간한 량반들은 제 생각대로 골려먹던 자기였지만 이 나어진 부사앞에서는 용빼는 수가 없었다.

《소인이 그만 재물에 혹해서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사또님께서 부디 넓은 도량으로 소인을 용서

하시오이다.》

리덕천은 삼시에 태도가 나긋해진 매장사군을 굽어보았다.

《네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니 형벌은 주지 않으려다. 그러니 이제 당장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 알겠느냐?》

《알겠소이다.》

매장사군이 얼른 대답하였다.

리덕천은 통인을 시켜 로파를 데려오게 하였다. 로파가 당도하자 리덕천은 고을의 현감과 매장사군을 향해 다짐을 두었다.

《현감은 앞으로 자기 고을안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며 고을안의 모든 일을 공정하고 사리에 맞게 처결하라! 만약에 다시 한번 공정성을 잃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백성들의 상소를 허술히 대한다면 그때엔 나라법이 용서치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매장사군을 보며) 장사를 해도 정정당당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네가 진짜 매를 잃었다면 그 매가 어느 백성에게든 리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아니겠느냐?!

세상만사가 어찌 다 너의 뜻대로 된다더냐?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게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재물보다도 귀중하고 벼슬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게지.》

리덕천이 그 말을 마치고 일어서자 현감과 매장사군, 로파가 일시에 땅에 엎드렸다.

《사또님!—》

모여섰던 사람들의 얼굴에 이루 말할수 없는 속연한 빛이 흘렀다.

나어진 부사의 심중에 무엇이 끓고있는지, 어째서 부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두가 알고도 남음이 있었던것이다.

그후의 이야기

리덕천은 녕변부사로 근 16년간이나 부임해있었다. 몇번이나 벼슬이 갈리웠으나 그때마다 녕변고을백성들이 조정에 그를 부사로 그냥 있게 해달라고 상소하다나니 도저히 다른 벼슬직에 오를수 없었다.

열댓살 어린 나이에 부사로 부임되어왔던 리덕천은 서른살이 지나서야 녕변땅을 떠날수 있었다. 그가 서울로 벼슬이 옮겨간다는 소문이 어떻게 세

어나갔는지 동헌주위에 인파가 성을 쌓았다. 성의 남문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어 그가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밤낮으로 지켜서있었다고 하니 그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애착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었다.

하여 리덕천은 녕변고을을 떠날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울로 가는 남문길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북문으로 빠져 구룡강을 건너 박천쪽으로 길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그는 레조판서벼슬에 올라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며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였다. 임금도 재능있고 진실로 조정과 나라를 위하는 리덕천을 몹시 중시하며 나라안의 크고작은 일들을 그와 토의하여 처리하곤 하였다.

허나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다는 말처럼 리덕천이 젊은 나이에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조정안에 한둘이 아니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벼슬에 있는 령의정을 축으로 하는 무리들이 그를 모해하고 시기하며 암암리에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리덕천이 레조판서벼슬을 맡은지 이태가 되는 어느해 설명절이었다.

설을 맞으며 임금이 조정의 문무백관들을 대동하고 한강가에 나아가 하늘과 땅에 종묘사직의 영구한 복을 빌며 나라안에 풍년이 들고 태평성세가 깃들기를 축수하는 의식을 벌렸다.

판례에 따라 축사는 레조판서가 하기로 되어있었다.

의식을 주관하는 판리의 소개에 이어 레조판서 리덕천이 축사를 하려고 함을 열었다. 현대 축문이 들어있는 함이 비어있는것이 아닌가. 어제 저녁까지 있던 축문이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것이었다.

변이면 이런 변이 또 어데 있는가. 리덕천은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룡상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임금의 주위에 령의정과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과 룡조의 당상판들이 빙 둘러서있었다. 이는 필경 리덕천 자기를 모해하기 위한 음모군들의 술책이 틀림없었다. 허나 당장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어쨌든간에 축문을 읽어야만 하였다.

리덕천은 축문대신에 빈 종이장만 들어있는 함안을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결심을 내리고 빈 종이장을 높이 쳐들었다. 어제 축문을 한번 읽어본 덕천이었다.

이윽고 리덕천의 맑고도 우렁찬 목소리가 얼음장같은 찬 대기를 누르며 울리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생겨 땅이 열리고 땅이 열려 인간이 살아가거늘 거룩하신 옥황상제와 천지신명께 삼가 비나이다. ...》

어느덧 축사가 끝났다. 리덕천을 모해하느라고 밤새 자기 끄나불들을 시켜 축문을 술쩍 해치운 령상을 비롯한 음모군들의 두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리덕천이 빈 종이장을 들고도 마치 글을 읽듯이 거침없이 축사를 해대는것을 본 그들의 속이 바질바질 타들었다.

세상에 저런 고비에서도 벗어나는 놈이 다 있는가. 언제 한번 읽어보았는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또 또 하나 빠치지 않고 축문내용을 그대로 외워대는 리덕천의 뛰어난 재능앞에 그들은 가슴이 섬쩍하였던것이였다.

하지만 의식이 끝난 뒤 보이지 않는 음모는 아지를 치며 계속되였다. 리덕천이 종묘사직의 영구한 복을 비는 중요한 의식에서 축문을 잃어버리고 빈 종이장을 들고 제멋대로 말했다는 탄핵문이 임금의 탑상앞에 수북이 쌓이였다.

신하가 임금앞에서 빈 종이장을 들고 글을 읽듯이 흉내를 냈으니 이는 지엄한 임금을 속인 기만죄요, 한편으로는 종묘사직의 복을 비는 의식절차에서 존엄성이 없이 제 말대로 마구 지껄였으니 이는 종묘와 사직을 우습게 대하는 불경죄라고 음모군들이 들고일어났다.

리덕천을 크게 믿고있던 임금에게 있어서 이는 청천벽력이였다. 제아무리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나라의 법과 기틀은 어쩔수 없는 법이였다.

하여 임금은 리덕천에게 천륜을 거역한 죄를 씌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결국 리덕천은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옥에 갇히우고말았다.

《재사단명》이라더니 리덕천과 같은 재사를 두고 이른 말이던가.

리덕천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어느새 온 평안도땅에 짜하게 퍼졌다. 녕변고을에도 그 소식이 날아들었다. 리덕천이 애매하게 곤욕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은 녕변의 백성들은 남너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분개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약속이나 한듯이 상소문을 써들고 서울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밀려갔다.

서울의 등문고앞에 장사진을 치고 며칠낮, 며칠밤 꼬박가 밝히며 저들의 심정이 담긴 상소문을 올

리고 저들의 부사가 놓여나오기를 기다렸다.

봉건조정은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앞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평안도백성들의 그 소행이 다른 린접고을이나 도에 파급될가봐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리덕천은 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

옥에서 풀려나온 리덕천은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내려갈것을 요청하는 장계문을 임금에게 올렸다. 서로 질시하며 권력다툼을 하는 조정의 벼슬살이가 그의 심지에 맞을리 없었다. 제판에는 그래도 봉건조정과 임금을 위하여 충성과 의리를 다하자고 했건만 차폐지는것은 옥살이었으니 리덕천이 새삼스레 벼슬살이길이 어떤가를 느끼게 되었던것인지... 하긴 리덕천과 같이 총명검박한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 조정이었다.

임금은 리덕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를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평안도 관찰사가 된 리덕천은 그후에도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한개 도를 잘 다스렸다고 한다. 국경과 대치한 상태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여 외세가 엿보지 못하게 하였고 농사와 상업, 교육을 장려하여 수년간 내려오면서 쌀이 그득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변시켰다.

*

리덕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꾸며낸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직도 냉변에 가면 사람들은 나어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부사의 이름이 리덕천이라고 하고 또 리덕보라고도 하며 또 그의 나이가 열다섯살이 아니라 아홉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실여부는 어쨌든간에 리덕천에 대한 이야기에는 당대 사회사람들의 지향과 요구가 담겨져있는것이 아닐가.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7호 (루계 제813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쇠 공 장

인 쇠 주체104(2015)년 7월 1일

발 행 주체104(2015)년 7월 5일

7-56165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